•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0월 8일(음력 9월 10일) 수요일(주간)



"계율 해이하면 교단 무너져"
17 선지식-법혜 스님



"놓아버리면 행복해요"
9 도반의 향기-손병옥



"보시문화로 정토구현할 터"
6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세영 스님



교방춤의 향연 속으로
19 '성신의 춤향기' 최윤실 총감독

"불교문화 저작권 보호 비상"

조계종 문화부 세미나 열어 '인식확산'

인터넷 누리꾼에게 유명한 보살이 있다. 누리꾼들은 지장보살은 몰라도 '지름보살'은 안다. 지장보살을 희화화한 지름보살은 한 손에는 신용카드를, 다른 손에는 최신핸드폰을 들고 "연체가 대수냐, 있을 때 질러라"고 말한다. '지름신'의 하나로 '뽐뿌'(사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해 웃음거리로 표현된 지름보살에게 육도중생을 구원하는 지장보살의 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름보살은 불교문화가 제작자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

#지장보살이 '지름보살'로 둔갑

불교문화 지적재산은 유형과 무형으로 나뉜다. 유형적 불교문화는 불교건축물이나 불상, 불화 등이며, 무형적 불교문화는 불교 음악 · 무용 등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교계 관계자들은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계의 불교문화 지적재산에 관한 인식은 걸음마 단계다.

이웃종교인 개신교는 종교음악이 대중 속에 깊숙이 진출해 있다. S통신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멜론'에는 기독교 음악장르인 CCM이 독립장르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퀴바디스' '벤허' 등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도 많다. 카톨릭은 '신부수업' 등 다양한 영화와 음악으로 고상하고 힘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했고, 젊은 신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들만의 문화 지적재산 정책이 일군 결과다.

이에 비해 불교음악은 국악 장르에 포함됐고, 종단차원 찬불가 총계도 미비하다. 영화로는 '달마야 놀자' 등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흥행작이 없는데다 불교를 교묘하게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들이 창작의 자유를 빌미로 난무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불교문화 지적재산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교계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적 활용 반드시 감안돼야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은 현재 저작권 개념에만 치중해 있다. 권리행사 주체도 불교계가 아닌 일반업자다. 얼마 전 A사찰 합창단은 찬불가 악보를 출판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저작권협회가 "합창단이 악보집을 복사해 사용한 것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락되기는 했다.

김모씨는 얼마 전 모스님 법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뤘다. 출판사측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포교에 반하는 권리행사를 막으려면) 사찰이나 종단 등이 문화콘텐츠 저작자로 참여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높은 디지털콘텐츠 보급해야

전문가들은 문화산업의 핵심은 콘텐츠며, 선점과 가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두고 문화원형사업을 진행 중이다.

불교소재 문화원형사업은 얼마나 될까?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등 10여개 단체가 사업에 공모해 성보문화재와 불교문화를 소재로 동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돼 활용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소재 콘텐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제작에 불교계가 배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이 2006년 지정공모해 제작한 운주사 관련 디지털콘텐츠는 운주사 사전 허락이나 내용관리, 사후 사용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됐다.

조은정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은 "운주사 콘텐츠 일부는 내용도 빈약하고 완성도도 낮다. 함량미달 콘텐츠는 차후 상품화시 불교문화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종단이 비전 갖춘 정책 내놔야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2007년 12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을 출간했다. 2008년 10월 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지적재산 현황 파악 ▲불교문화의 산업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컨텐츠산업실을 두고 컨텐츠 정책, 미디어 정책, 저작권 정책을 각각 분리 · 운영하는 것처럼 조계종 문화부 직제부터 전략적으로 확장 · 개편해야 올바른 정책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교계의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관심이 디지털시대 보현보살과 호법신장으로 나투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은 9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창립식을 개최했다. 법인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사부대중 300 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식에서 지관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공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은 창립식에서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을 상임이사로 위촉했으며, 현재 8억 여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박재완 기자

"종단 화합위해 내년 3월이전 사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징계자 복원 등 노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운산 스님은 10월 1일 인사동 한식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3월 30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사의 마무리와 조계종과의 신촌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나겠으며, 그 전이라도 두 현안이 해결되면 즉시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저에 대한 보우승가회의 잇단 비리 의혹 제기와 순천 선암사 문제 등으로 이전투구식 폭로와 종단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정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임을 결심했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멸빈당한 도산 스님 등 징계자와 각종 의혹을 제기한 보우승가회에 대한 제재조치들을 중단하고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겠다"며 화합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9월 30일 총무원에서 열린 '신주화악 봉행위원회' 회의에서 원로의원들과 중앙 및 지방종무기관 소임자, 중앙종회 의원 등 원로 · 중진스님들에게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한 운산 스님은 조만간 혜초 종정스님과 원로회의에 사퇴의 배경과 진의를 보고할 예정이다.



운산 스님은 지난 1974년 34세로 최연소 총무원 총무부장에 임명된 이후, 2002년부터 제22 · 23대 총무원장으로 연임해 35년여 동안 태고종의 주요 종무행정을 맡아왔다. 2009년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스님은 내년 3월 임기를 8개월 앞당겨 사퇴한 이후 악화된 건강을 추스르고 천중사 불사와 인재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社 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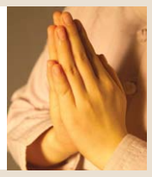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3차 법보시 환경부 주요 부서에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신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환경부 장관실, 차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환경전략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등 주요부서에 본지 700호부터 발송합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 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 고 일 : **불기 2552(2008)년 11월 3일(월, 음력 10.6) ~ 11월 12일(수, 음력 10. 15)**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동시충족)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포살 및 결계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 · 사미니는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2011-1710)**

불계 2552(2008)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문화도량에서 배운 포교콘텐츠

"우리 절이 템플스테이를 하겠다고 신청 했더니 모두들 비웃더군요."

조계종 총무원내 차방에서 만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지난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웃었다. 조계종 관계자 눈에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땅 끝 마을에 자리한 잊혀진 사찰 미황사가 수련생을 여법하게 반길만한 방 한 칸이 아쉽게 보인 까닭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다. <화엄경>과 <법화경>을 실은 검은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은 곳에 창건했다는 설화를 간직한 미황사는 2002년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이래 매년 4,000명의 수련생이 다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한문학당과 작은 음악회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참사람의 향기' 머금은 문화 도량 1번지가 됐다.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활명수와 같은 포교방안을 미황사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불교가 고심해온 문화콘텐츠는 결국 '잘 사는 삶'의 방향제시다. 미황사는 미황사만의 남다른 포교콘텐츠가 있었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하는 식의 획일화된 관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성공전략이다.

예를 들어 10월 18일 봉행될 괘불재의 '만물공양'이 신선한 프로그램이다. "정성스레 농사지은 깨 한가마니를 나누고자 부처님 전에 올린다"거나 "어린이 간식이 문제되는 이때 유기농 밀가루로 직접 만든 과자를 선물하고 싶다"거나 "산수경시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부처님 전에 감사하며 올린다"는 식의 소박하고 순순한 마음이 만나 감동으로 어우러진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군 땀의 결실을 도시와 농촌 · 남과 여 · 어른과 아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미황사에서 만나 도반이 된다.

매년 가을은 산사음악회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깊게 물드는 단풍만큼이나 따뜻한 온정도 물들이기 좋은 때다. 그러나 포교1번지 조계사 주변은 촛불 수배자들의 주경야독으로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8 · 27범불교도대회 이후 국제 유가 하락 ·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공황의 태풍 속에서 중생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심장은 암울하기만 하다.

힘 있는 개혁도, 확고한 고집도 융통성의 발휘는 요구된다. 종교의 역할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 세간 사람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미황사의 멀티플렉스(multiplex) 문화콘텐츠는 한국불교의 포교 전략에 죽비를 친다. 미황사 사례를 통해 '일상의 아주 작은 것까지 불교 아닌 것 없다'는 진리를 나눠보면 어떨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착공

10월 2일 서울 신정동 현장서 개최

한국불교 세계화의 전초기지인 국제템플스테이센터가 건립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공사현장에서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혜총, 조계사 주지 세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한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센터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불교의 정신인 간화선 전문수행센터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템플스테이센터는 한국건축가협회상 2회 수상 경력의 국민대학교 김개천교수가 설계했으며, 삼환기업(주)이 시공을 맡아서 신축한다. 공사시간은 총 14개월로 2009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2,110㎡, 지하3층 · 지상8층, 연면적 11,296㎡의 종교시설이다. 800여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고 100여명이 상주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향후 수도권 템플스테이 중심 거점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착공식이 10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현장 부지에서 봉행됐다. 사진=이나은 기자

국제템플스테이센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내 · 외국인들의 선(禪) 문화와 명상,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직접 체험케 하기위해 기획됐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센터는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불교문화체험시설과 교육시설 · 건강치유시설 등의 복합체험시설을 통해 내 · 외국인에게 한국불교의 다양한 진면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하나이다. 또 템플스테이는 2007년 한 해 동안 8만 여명이 참가해 전통불교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성우 · 이나은 기자

조계종 10월 9~17일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제6회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을 10월 9~1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실시한다.

승랍 10년차 비구 · 비구니 대상의 3급 승가고시는 1차 논술, 2차 수행평가 갈마, 3차 연수교육평가를 거쳐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고시에는 비구 75명과, 비구니 32명 등 107명의 출가자가 응시했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3급 승가고시는 사찰 주지 등 소임자로서,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대중에게 설법하듯이 경전 등 각 과목을 서술하면 될 것"이라 설명했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은 중덕(中德), 정덕(定德) 법계 품수와 말사 주지 및 교구본사 국장 소임 등이 가능하며, 도제(상좌)를 둘 수 있는 사승(師僧)의 권한을 얻게 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장적 스님, 재무부장-정념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장적 스님(재무부장 · 사진 왼쪽)이, 재무부장에 정념 스님(낙산사 주지 · 사진 오른쪽)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30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장적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적 스님은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재정국장, BBS대구불교방송 본부장, 13 · 14대 중앙종회의원, 선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2007년 10월 9일부터 총무원 재무부장을 맡아왔다. 현 안흥사 주지.

정념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사회부장, 영등포 보현의집 원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 낙산사 주지.

노덕현 기자

호계원, '승려법상 양형제도와 행정심판' 워크숍

김종빈 前 검찰총장이 조계종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10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승려법상의 양형제도와 행정심판'을 주제로 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종빈 前 검찰총장과 홍성칠 변호사,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소 절차와 호법부의 양형제도', '심판행위와 호계원의 양형제도',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를 각각 발표한다.

김성우 기자

종단협, 대구경북 불교도대회 동참

대회봉행위 소위, 10월 7일 회의서 실무준비 착수

11월 1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종교평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에 불교 종단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30일 서울 하림각에서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지역별 대회를 계속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1월 1일 대구경북대회의 형식과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은 10월 7일 오후 3시 동화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봉행위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파괴 종교편향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은 "대구경북 불교도대회를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종교편향 방지 법제정 촉구, 범불교도의 호법의지 제고를 위한 불교도 실천결의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 대책위원회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3조(임원선출) 3항'을 수정해 상임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또 제4차 이사회에서는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장 회성 정사 후임 상임이사로 진각종 총무부장 효심 정사가 선출됐으며, 회칙 변경에 따라 신임 상임이사로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지공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이 선출됐다. 이사회에서는 10월 9일~11일 제주도 관음사 일원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보고도 진행됐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민추본, 北 양묘장 건설현장에서 식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명진)는 9월 27일~30일 '통일나무심기 평양 삼석구역 양묘장 건설현장 방문 및 백두산 참관'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민추본 부본부장 진관 스님(조계종 인권위원회), 혜안 스님(낙산사 부주지), 경희 스님(서봉사 부주지) 등 조계종 대표단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조계종.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이사회 개방이사 원학스님등 선출

중앙승가대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 등을 선출했다

승가학원(이사장 지관)은 10월 1일 제79차 이사회를 열고 개방형 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前 기획실장 승원, 교육부장 법장, 무상 스님을 선임했다. 또 추천감사에 전 감사국장 덕관 스님을, 일반이사에 영축총림 율주 혜남 스님을, 일반감사에 정인 스님과 경진 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불교의식(범음 · 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0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제10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시 : 불기 2552년 10월 14일(음 9월 16일) 화요일 -
10월 20일(음 9월 22일) 월요일(7일간)
■교육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84번지 미륵골 무각사(061-362-8902)
■교육대상 :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교육동참비 : 십오만원(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접수기간 : 불기 2552년 10월 10일까지
■접 수 : 교육원장스님 011-9607-5245
교무스님 011-604-9584 재무스님 010-3639-2946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가사,장삼,목탁,필기도구 지참요망)

■교육과목

안체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욕, 시식 등)
거체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

“산불로부터 목조문화재 지켜라”

산림청·문화재청, 66개 사찰에 산불예방 이격공간 등 구축

국보 ·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목조건축물과 산림사이에 20~25m 거리의 나무가 없는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산림에는 이격공간과 연접해 솎아베기,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의 숲가꾸기를 한층 강화해 산불발생시 산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확산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완충지대’(25m이상)도 조성된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10월 1일 합천 해인사에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하영제 산림청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대장경판전과 홍제암 주변 산림에 대해 폭 30m, 거리 1km로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하영제 산림청장은 “숲가꾸기는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켜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고 목재가치를 높이는 사업이지만 유사시에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며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은 2005년 4월 양양지역의 대형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되고 올해 2월에는 방화로 숭례문이 소실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화순 운주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 산림을 모두 불태웠으나 운주사 대웅전 등 사찰 건물 9동을 산불로부터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숲가꾸기의 산불피해 예방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해인사 협약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국보 ·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의 66개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재 숲가꾸기’를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는 숲가꾸기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기대된다”며 “산림청 및 문화재청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10월 1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문화재보호를 위한 산불방지협약식’. 앞줄 왼쪽부터 이건무 문화재청장,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하영제 산림청장.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종교중립법 제정이 국민통합의 시작”

민주당 연등회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합동토론회 개최

공무원종교중립법 제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연등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종책토론회가 열렸다.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 종교중립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가 그 것.

이날 종책토론회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재무국장 원철 스님, 사회국장 재경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들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장세환 · 김개균 · 노영임 의원 등 국회의원, 윤남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등 정관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지석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 아래 박광서 대표(서강대 교수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형남 변호사(신화 법무법인),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연등회 부회장)의 발제가 진행됐고, 조욱종 신부(천주교부산교구), 김상근 교수(연세대 신학과),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안), 이지범 집행위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박선숙 국회의원(민주당)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제1발제에서 박광서 대표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담배를 싫어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권리라고 판결했다”며 “개인의 종교자유와 별개로, 선교할 권리보다 선교받지 않을 권리가 우위”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교회투표소’와 ‘공직을 이용한 선교행위’ 등 6개 목차에 걸친 50여개의 사례를 제시하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도 밝혔다.

제2발제에서 김형남 변호사는 한 · 미 · 일 3국을 비교하며, “3국 모두 헌법상 종교자유와 종교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종교편향 사례는 무수히 많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정문제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이거나 의도적 결과”라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발제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MB정부가 시행하는 시행령 하위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한 제재는 약하다. 헌법 위반자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종교갈등은 국민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법제정이 시급하다. 법제정에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9월 29일 열린 민주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합동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남양주시장·창원중부서장 ‘종교편향’ 관련 사과

이석우시장 시목위 구성, 강선주서장 ‘엘리스증후군’ 망언 물의

종교편향 관련 행위와 신문 기고로 물의를 빚은 남양주시장과 창원중부경찰서장이 잇달아 불교계에 공식 사과했다.

시목(市牧)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양주시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 초청 기도회’에 참석,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9월 27일 지역불교계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남양주사암연합회(회장 금담 · 무량사 주지) 종교편향대책위 2차 긴급확대회의가 열린 남양주시 화도읍 원광사를 방문해“이번 건으로 인해 스님들에게 잠시나마 실망과 아픔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목위원회 위촉장 전달과 관련, 이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드림스타트사업에 종교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종교편향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0여 스님들은 이 시장의 발언을 듣고 난 뒤 이를 공식 사과로 인정하고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라 지적한 지방 일간지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선주 창원중부경찰서장은 9월 30일 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선주 서장은 경남도민일보 광고면에 “이 글로 인해 대덕스님들과 불자들 마음에 상처를 입힌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서장은 사과문을 통해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데 치중해 불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등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 불교계에서 우려하는 종교 편향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경찰서내에 종교편향 방지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 박지원 기자



대한불교다도회 창립

오대산 월정사 일대서

한국불교 전통다례를 복원하고 현대적인 불교다례를 개발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다도회가 창립된다.

대한불교다도회 창립법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의정)는 10월 10일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일원에서 창립 기념법회와 함께 ‘전국 차인 108들차회’(월정사 관음선다회 주관)를 연다.

이번 행사는 10일 오전 상원사 문수전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효명 · 보천태자 헌다례를 시작으로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월정사 대웅전에서 봉행하는 다도회 창립법회로 진행된다.

대한불교다도회는 앞으로 불교전통 헌다의식을 복원하고 춘추헌다제와 들차회를 전국 교구본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또 부처님오신날 · 연등축제에서 진다례를 주관하는 등 불교전통다례의식을 복원하고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연숙 기자

영석학원, 동국대에 영석고 기부

10월 2일 정식 기부약정 체결

학교법인 영석학원(이사장 안채란)은 동국대(이사장 영배)와 10월 2일 영석고 이사장실에서 기부약정 체결식을 갖고 영석학원 산하 영석고등학교를 동국대에 기부했다.

기부자 안채란 여사(83)는 동국대 국문과를 1953년 졸업하고, 현재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과 사단법인 채란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영석고는 1970년 개교해 현재 17학급 학생 600여명 규모의 학교다.

2007년부터 임시이사가 5명 파견돼 현상태로는 학교법인 합병 등 정상적인 기부절차 진행은 어려운 상태다.

동국대 관계자는 “영석학원과 경기도 제2교육청,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영석학원의 정이사 체제 환원 및 기부 승인 등을 공동으로 청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11월 5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11월 5일까지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후보를 공모한다.

불교언론문화상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된다. 이 중 최우수 작품에는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불교언론인 중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불교언론인상(3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애니메이션 · 인터넷 · 뉴미디어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작가, 연기자, 단체 등에게 특별상(200만원)이 수여된다.

(02)2011-1779

이나은 기자



‘금어’ 만봉 스님 불화 한 자리에

만봉불화박물관 강원도 영월 망경산사에서 기공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었던 만봉 스님(1910~2006)의 불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된다. 올 7월 법인설립을 마친 재단법인 만봉불교문화원(이사장 이용국)은 9월 27일 강원도 영월 망경산사에서 만봉불화박물관(관장 최복숙)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종회의장 인공 스님,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 옥천 범음대 학장 일운 스님, 이광재(민주당)국회의원, 고진국 · 권석주 강원도의회 의원, 이우식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선규 영월군수, 박용석 부군수, 장경재 영월군의회의장, 김경득 영월경찰서장, 구진열 영월세무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사람이나 어떤 일에 있어 천운과 지운 인운 등 세가지 운이 매우 중요한데, 만봉불화박물관은 이 세 가지 운을 잘 갖추어서 좋은 도량에 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라며 “만봉 큰스님의 유작들이 후대에 길이길이 전해지고 후학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지 6994㎡에 연건평 1588㎡ 규모로 지어질 만봉불화박물관은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 등으로 이뤄진다. 만봉불교문화원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만봉 스님의 불화 235점을 확보한 상태다. 만봉 스님은 6세 때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해 26세에 ‘금어’로 인정받았으며 일생동안 불화에 매진한 기념비적 인물이다. 따라서 만봉 스님의 작품이 한 자리에 상설전시 됨으로 불화 연구와 교육 및 전승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만봉불교문화원 이용국 이사장은 “만봉 큰스님의 전통불화 및 단청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복숙 관장도 “서양문물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이 나라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지거나 희석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뜻있는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그 맥을 잇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봉불화박물관은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만봉불화박물관(위 · 조감도) 기공법회에서 시삽하는 불교계 및 지역 인사들.

해인사 마을불자회·불교청년회 창립

절과 사하촌의 상생·나눔의 장 마련

예나 지금이나 절과 사하촌과의 관계는 그리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사하촌이 오히려 신심이 약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해인사가 마을불자회와 불교청년회를 창립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일 1일 오후 3시 보경당에서 합천군 가야면내 마을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마을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오늘 창립법회는 해인사와 마을이 상생과 나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함께하는 삶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고 해인사 신행단체로서 신심과 원력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사마을불자회 최미석(관도심) 총무는 “마을의 화합을 위해 초대회장은 해인사 부처님으로 모셨다”면서 “마을부녀회(회장 배법선)를 중심으로 주민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마을불자회는 마을버스로 불자들을 해인사로 이동시키고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봄 · 가을 성지순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 · 리 단위로 법등장을 정해서 불자들을 관리하고 독거노인 반찬배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신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해인사는 같은 날 오후 7시 보경당에서 해인사 불교청년회 창립법회도 봉행했다. 청년회는 각 마을의 일반청년회의 불교청년회 가입을 유도해 재난구호 및 소외이웃돕기, 마을행사 지원등의 실질적인 봉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해인사 마을불자회가 10월 1일 보경당에서 창립됐다. 앞줄 가운데가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3〉 원효종 종정 법흥 대종사

법흥 대종사는 한일불교문화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다. 1915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10세에 조모를 따라 서울에 왔다가 박한영 큰스님에게 한문을 배우고, 14세에 유점사 운악스님에게 득도하였다. 17세에 건봉사, 법주사 강원에서 일우 스님 강의를 듣고 유점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4세에 일본에 들어가 정토종 영안사, 천태종 불학원에서 공부하고, 입정대학 · 연녁불교전문학교에서 율학을 전공, 천태종 권율사가 된 뒤 자하연 존승암 주지가 되었다.

8 · 15 해방과 함께 조국에 돌아와 만해 스님과 불교호국단을 조직하고, 광주 봉은사 총무, 해인사 원주로 있으면서 효봉 · 청담 스님과 함께 묵언수행을 1000일 동안 하고, 6 · 25한국전쟁 때는 8만대장경을 수호하는데 큰 공을 세워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받는다.

스님은 통영 용화사 도솔암 선방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서울 선학원에서 불교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구례 화엄사 석봉스님의 소개로 부산 금수사 주지가 되었다.

경내지 산림을 확보하고 본전 · 신도회관과 종 · 누각을 짓고 조사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민영환 · 이준 · 안중근 열사를 봉안하고 봉은재를 올린 것이 남북통일 · 세계평화기원도량으로 지정되어 호국사찰로 성장하였다.

1963년 정법의 흥륜을 위해 대한불교원효종을 창설하고, <원효성전>을 편찬 일본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시대부터 원효 · 의상 스님을 고산사에 명신(明神)으로 모시고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일본에 가서 보니 1968년 스님 나이 52세 때 100일 회봉에 도전하여 외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인 동시에, 가장 많은 나이로 수행했기 때문에 가는 곳 마다 국보대접을 하였다.

우리는 스님께서 100일 회봉을 시작한 동사부터 1km 간격으로 떨어진 변천당, 명왕당, 호마당, 대승원 등 252군데를 들렸는데, 차로 다니는 시간만도 4시간이 걸렸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32km의 머나먼 산곡을 100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3일 동안 단식하고 부좌(不坐) · 불와(不臥)하는 고행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만한 일이다.

스님은 1971년 한국의 묵담 대율사에게서 율맥을 전승하여 다시 묵담 스님의 손상좌 수진 스님에게 전하였다.

스님은 부지런하시고, 또 기억력이 좋아 국내 큰스님들의 제사나 생일을 잊지 않고 직접 찾아 공양하였고, 무슨 일이든지 불교계에 큰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특히 덕암 · 석주 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며, 서울에 오시면 으레 모시고 공양하였다.

또한 스님은 정통 밀교의식에 범패까지 겸하여 대 · 소 의식에 모르는 것이 없었으므로 모든 의식사들이 증명법사로 모시고 자문하였고, 사람이 없을 때는 직접 의식에 동참하여 모여 있는 신도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켰다.

상락향수도원에서 세 번 국제수계법회를 하실 때는 증계 설계아사리가 되어 수천 수만의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었다. 스님께서 제안하여 9박10일동안 인도성지를 갔을 때는 스님이 일생 동안 지낸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시고, 또 버스 안에서 일본말과 한국말로 된 불교의식을 빠짐없이 육성으로 들려주어 오늘 이 글을 쓰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스님께서 마지막 여행시에 제안하셨다.

“한 법을 가지고 100구의 시를 짓는데, 이 차가 스톱하기 전까지 결판을 내기로 하자” 하시어, 한 시간 동안에 100구의 시를 지은 일도 있다.

원효 대사의 <십문화쟁론>을,

“삼승일승화쟁문(三乘一乘和諍門) 공유이집화쟁문(空有異執和諍門)

불성유무화쟁문(佛性有無和諍門) 인법이집화쟁문(人法異執和諍門)

삼성이의화쟁문(三性異義和諍門) 오성성불화쟁문(五性成佛和諍門)

이장이의화쟁문(二障異義和諍門) 열반이의화쟁문(涅槃異義和諍門)

불신이의화쟁문(佛身異義和諍門) 불성이의화쟁문(佛性異義和諍門)”

하고 외우면,

“그래, 그래.”

하시면서 덩실 덩실 춤을 추시고,

“이 세상 모든 분별과 시비는 진 · 망(眞妄), 염 · 정(染淨), 공 · 유(空有), 인 · 법(人法) 속에서 일어난 파도요 거품이지. 깨닫고 보면 모두가 일심(一心) · 일법(一法) · 일리(一理) 인 것을…”이라고 하셨다.

효봉 스님 등과 천일묵언…日서는 ‘100일 회봉’ 마쳐
한국전쟁때 8만대장경 수호하는데 공세워 훈장받아
‘원효 성전’ 편찬해 일본불교와 밀접한 관계 맺어

실상세계實相世界 영靈의 본체本體를 일깨워주신 부천님! 아 아! 우리 父天任!

1. 모든 종교宗敎의 궁극은 하나<一>이다. 왜냐하면 종교宗敎란 모름지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가장 으뜸 되는 가르침이어야만 함과 동시에, 모든 삼라만상의 참된 존재存在 가치의 이유와 그 명제命題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고한 답答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이러한 근본根本을 망각하거나 또는 아예 모르는 채, 그 제도制度와 방식方式에만 매달리거나 혹은 그 제도와 방식을 제 아무리 새롭게 창조하고 고치고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滿足 과 완성完成은 향유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시비是非는 끝내 시시비비로서 가려지지 않게 마련인 까닭이다.

3. 유有냐? 무無냐? 선善이냐 악惡이냐, 물질物質이냐 정신精神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누구나 다 심증心證 체달體達하고 보면, 이 대우주 법계의 실상세계는 하나<一>로서 통화統和되어 지극히 평온한 것임을 분명 체감體感할 수 있고 오득悟得할 수가 있음이니, 진실로 말과 글이 끊어진 경지

4. 부언하자면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영靈의 세계 영靈의 실체實體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듯 영靈의 근원根源은 맑고 고요하여 옛날과 지금이 없으며 <時間초월>, 오묘한 그 본체는 둥글고 밝기만 하여 생生과 사死에도 물들지 않나니 <空間초월>, 선善도 악惡도 존재할 수 없음이라. 헌데 여기 어찌 성령聖靈이니 악령惡靈이니 운운 한다는 말일까? 기실 땅이 있으니 허공虛空도 있고 하늘세계도 있으나 그 하늘세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불멸의 실재實在가 아니며,-<月天, 日天, ?利天, 夜摩天, 도솔천, 化樂天, 大梵天, 光音天, 遍淨天, 廣果天, 大自在天>- 비록 이러한 여러 하늘의 하느님이나 그 하늘의 주인이라 일컫는 천주님天主任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근원인 영靈의 본체 즉 법신法身은 아니니, 그 법신法身의 실체를 오직 빛<光明>이요, 길<道>이요, 영원한 생명<不殺生>으로서 확철하게 밝히신 우리 스승 세존世尊이야 말로 바로 그 모든 하늘과 천주天主의 어버이 부父 천天 님任이라, 이렇게 쓰고 불러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것이로다.

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불교계佛敎界 사정은 과연 또 어떠한가? 대한불교, 한국불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통종단인 조계종마저 어찌된 영문인지 ○○불교 조계종, 조계종△△불교 등등 셀 수도 없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니, 언제부터인가 간혹 개<犬>도 미치더니 이제는 소<牛>까지 미쳐버리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하기야 물론 자광조처연화출慈光照處蓮花出이요 혜안관시지옥공慧眼觀時地獄空이라 이 또한 통화연동統和連動 되고 있는 영靈의 본체 법신法身 그 실상세계와는 하등 무연 무관한 일이라 잘라 말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한 사람의 구도사문求道紗門으로서 광명정대한 올바른 길을 몰라 방황하며 고통 받는 4생6도 뭇 생명들의 윤회輪廻가 못내 슬프고 안타까워 신음하듯 가슴 치며 내 뱉은 자책과 자탄의 하소연이다.

6.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비심大悲心을 대자심大慈心으로 이타자리利他自利 하기위해 바꾸어 말하자면, 이제부터라도 전 인류세계 불교도佛敎徒들은 일주문一柱門 그 불이문不二門을 마음속에 통화문統和門으로 올곧게 세우고, 우리 스승 세존世尊께서 오로지 전하신 돈교법頓敎法을 시설施設하여, 모두가 여래장금如來藏金, 여래장광如來藏光, 여래장불如來藏佛임을 활연개오活然開悟케 하자는 뜻이다.

①불살생계의 올바른 뜻을 받아 지녀 ②숨 잘 쉬고 ③음식 잘 먹는 일, 도대체 이 밖에 따로 무슨 도道가 있고, 기도祈禱가 있으며 수행修行이 있더란 말인가.

第一戒제일계 不殺生불살생

※ 이 참뜻을 다시금 받아 지녀 금생今生에 요해了解하시어 심증心證 체달體達 하옵소서

自性之靈妙 자성지영묘
常住法內在 상주법내재
斷滅見不起 단멸견불기
是名不殺生 시명불살생
靈界無善惡 영계무선악
所以父天任 소이부천님

世尊應化 二五五二.九

統和佛敎
實參禪敎를 위해 떠도는 雲水納子
香月堂 慈明 합장배례
H · P 011-9752-1080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소금실은 달구지가 선운사 오른 까닭은

고창 선운사, 1500년만에 보은염 이운 재현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등 선운문화제 성황

"올해 소금농사 잘 되어서, 마을 주민 배 따숩고, 우리 고장 번창하니, 이것이 검단 선사 은혜일세."

쪽빛 보다 더한 빛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 농악소리는 창공을 찢고 색색의 만장은 허공을 가른다. 백제식 전통복장을 갖춘 200여명의 사람들이 소달구지 가득 소금을 싣고 구성지게 소리를 읊는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27~28일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를 주제로 제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은염 이운식을 비롯해 영산대재, 전통다례시연 및 시음,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펼쳐져 선운사 사부대중이 지역민이 화합의 한마당을 이뤘다.

보은염 이운행렬은 오전 10시 고창군 신원면 검단마을을 출발해 오후 12시경 선운사 입구에 도착했다. 잠시 휴식 후 다시 출발한 행렬은 오후 1시 40분경 선운사 천왕문에 도착했다. 천왕문 앞에서 기다리던 스님들과 주민들은 보은염을 꽃가마에 옮겨 싣고 대웅전과 영산대재가 봉행될 특설무대로 이운했다.

1500여년 전 고창 도솔산에는 도적이 많았다. 선운사 창건주인 검단 스님은 도적들을 교화하고자 소금 굽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스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해마다 봄 · 가을이면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운사에 공양 올리는 소금을 '보은염(報恩鹽)'이라 부르고, 마을 이름은 '검단리'라 했다. 보은염을 공양하는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주민대표로 행사를 준비한 주길선 위원장(보은염이운추진위원회)은 "1500년 이어진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보은염 헌공, 영산대재로 이어져

이운된 보은염이 반야등 · 해탈향 · 감로다 · 만행화 · 보리과 · 선열미 등 6가지 공양물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오르며 영산대재가 봉행됐다.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모습을 재현한 영산재는 보은염을 공양한 지역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더했다.

#차(茶)문화 체험 프로그램 인기

"녹차 맛이 너무 좋아요!" "차향이 마음을 편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운사 만세루는 선운사 차를 맛본 대중들의 탄성으로 가득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회원들의 봉사로 열린 시음회는 황차와 선운사 녹차, 말차가 제공됐다.

특설무대에서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차 마시던 예법을 재연한 '규방다례'가 시연됐다. '규방다례'는 다성(茶聖)으로 추앙받는 초의 선사의 <동다송>및 <다신전>에 나타난 차문화예절법을 기초로 현대에 새롭게 복원된 전통 다례법이다.

#산사에 가득한 희망 메시지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1500년 전,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처럼 모든 중생이 더불어 잘사는 희망공동체를 꿈꿉니다. 꿈을 가진 자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기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꽃무릇 가득한 산사에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할 무렵, 산사음악회 시작에 앞서 희망 메시지를 낭독한 주지 법만 스님의 목소리는 범음이 되어 울려 퍼졌다. 스님의 희망 메시지는 타악그룹 '얼쑤'의 힘찬 울림으로 이어졌다.

법현 스님(선운사 前 주지)을 비롯해 이강수 고창군수, 박현규 군의회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은 얼쑤에 이어 범능 스님, 잉카의 후손 시사이, 신세대 퓨전국악그룹 헤이야, 정태춘 · 박은옥 등 다섯 희망손님의 음성공양에 화현한 '희망 메시지'를 흥겹게 맞이했다.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려

"복분자주 맛이 좋네요." "예쁜 한과가 맛도 있고 저렴해서 너무 좋아요." 선운사 천왕문 앞에서는 고창 지역 특산물과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펼쳐졌다.

27~28일 진행된 장터에서는 선운사 특산물인 명차 · 자염 등과, 복분자 · 복분자 한과 등 고창 지역 특산물이 저렴하게 판매됐다.

#학술세미나로 공식 행사 마무리

문화제 둘째날인 28일 오후 2시 선운사 세미나실에서는 '도솔산 선운사의 역사와 인물'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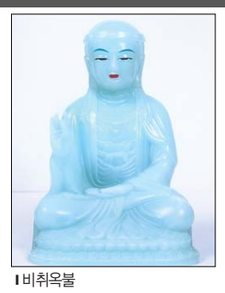
기조강연한 성관 스님을 비롯해 김상현 교수(동국대), 최성렬 교수(조선대), 오경후 박사(동국대) 등은 각각의 주제발표에서 선운사 창건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의 1500여년의 선운사 역사와 큰 스님들의 행적과 저서 등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한편 선운문화제와 함께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9월 23일부터 2개월간 '임희진, 생멸(生滅)의 만다라' 기획초대전도 열린다. (063)561-1422

글 ·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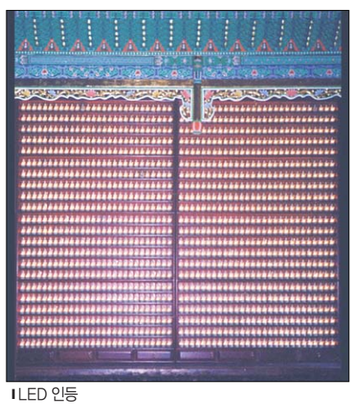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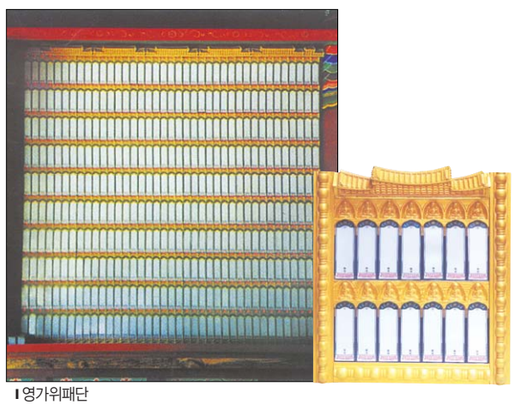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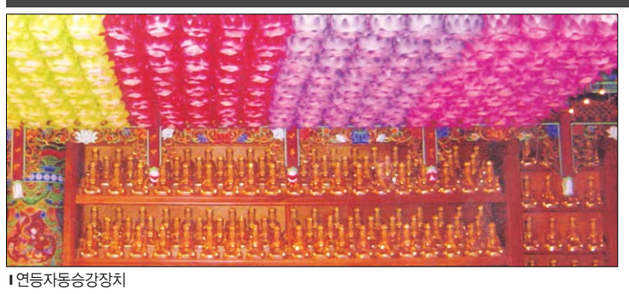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영가위패단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연등자동승강장치


LED 전구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일주문



논산훈련소 장병에 수계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4일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에서 장병 2400명에게 수계하고 "불자라는 긍지로 군복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불광법회 창립34주년 기념법회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불광법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10월 5 · 12일 각성 스님(화엄사 회주)과 통광 스님(칠광사 회주) 초청 법회를 연다.(02)413-6060



제5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개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10일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5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연다.



미황사 20년 중창불사 회향 괘불재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10월 18일 20여년의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미황사 중창불사 회향기념 괘불재와 작은 음악회'를 봉행한다. (061)533-3521



청주검찰청 영동지청 양형자문위원

옥천사암연합회장 혜철 스님은 9월 26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김영종) 양형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진흥원, 군포교 지원금 1억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10월 8일 오전 11시 진흥원 5층에서 군종특별교구에 군포교지원금 1억원을 전달한다.



불교여성개발원장 '구슬정원전'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10월 12일 ~ 11월 2일 길상사에서 '문화공간 지대방'이 주최하는 '구슬정원展'을 개최한다. (02)883-7354



제6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개최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는 10월 13일 명랑대첩축제의 일환으로 진도대교 녹진광장 야외무대에서 제6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02)2278-5452



내장사 제4회 녹향제 개최

샘골 다례원 정기진 이사장은 10월 11일 오전 11시 정읍 내장사에서 제4회 녹향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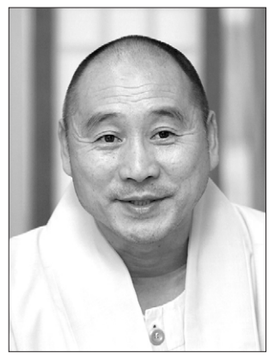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에 이훈(李勳) 前 불교TV 방송본부장이 선임됐다.

"불교 전통 '보시' 체계적 기부시스템으로"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세영 스님



"불교의 보시문화를 체계적인 기부문화로 정착시켜 정토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 신륵사 주지 · **사진**)은 "불교에는 보시라는 기부문화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기부시스템이 없었다. 보시문화가 기부문화로 자리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동행' 창립준비위원장으로 많은 일을 한 스님은 "당초 설립에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5일 행정안전부에 3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허가 신청을 냈지만, 정관과 자본금, 복지부와 통일부 등 관련부처 협의로 계속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내년부터 공익법인 기본재산 요건이 5억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창립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기본 재산 5억 원으로 9월 30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창립식 당일 전달된 기부액수만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불교공익법인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크다. '아름다운 동행'은 조계종에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세영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복지시설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재난구호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민족공동체 지원사업 ▲숲가꾸기 등 생태사회운동(에코운동) ▲국제 개발 및 교육 · 의료 지원사업의 5가지 분야에 걸쳐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루 360원 이체, 100명이 월 108만원 기부하는 '365캠페인', 직접 저금통을 만들어 저축과 기부의 기쁨을 나누는 '네모의꿈',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재능도 개발하는 '나눔씨앗뿌리기' 등 다양한 기부운동도 펼친다. 이를 통해 5개년 기금 적립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정하고, 기금 조성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본재산을 포함한 모금액은 8억여원이다.

세영 스님은 "기부는 재력가 · 사업가뿐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계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중생은 모두 한 가족이다. 사회가 발달할 수록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빈부격차 문제 등에 기부를 통한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며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 '아름다운 동행'에 불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올바른 정보 제공할 터"

김재원 前 의원 BBS 아침저널 진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국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고, 소수라도 정직하고 바른 주장이면 가감 없이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김재원 前 의원(**사진**)이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시사프로그램 '김재원의 아침저널' 진행을 맡았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캠프와 후보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던 김 前 의원은 경선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박근혜의 영원한 서포터즈'로 남겠다는 글을 남기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었다. 前 의원은 공정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열성도 보였다.

김재원 前 의원은 "그동안 중국 북경대학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국제질서의 흐름을 주시해 왔다"며, "그간의 경험과 기량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前 의원은 "산업화와 지식정보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열패자가 양산돼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재원 前 의원은 종립학교인 대구 심인고 재학시절 <반야심경>에 심취했던 불자다.

'김재원의 아침저널'은 BBS불교방송(FM 101.9Mhz)에서 매주 월~금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법의 짓는 마음으로 염색"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김경열 염색장



"자연에서 찾아낸 염료로 심혈을 기울여 물들이다 보니 은은하게 우러나는 그윽한 색감에 자연스럽게 매료됐지요. 불자로서 성스러운 법의를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천연염색이 오늘의 영광이 됐습니다."

제33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자연전통 홍화염색'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경열 염색장(**사진**)은 700~800평 넓은 밭에 홍화를 직접 재배하며 전통 염색을 고수해온 장인이다.

그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인 아름다운 문양을 바탕으로 염색을 통해 재구성, 쪽염이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이래 최초로 홍염 염색장 대통령상의 영애를 안았다. 장인의 오랜 연륜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염색철학이 불교와 만나 맺은 소중한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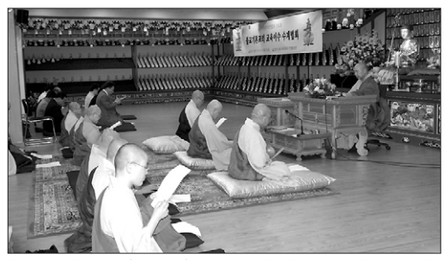
박 물관에 소장된 가사(袈裟)를 복원하는 데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김경열 염색장은 "가사뿐만 아니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장삼과 복장 복원작업에도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한국 최대의 전통공예 전시로서 전통공예기술을 보존 전승하고 육성하는 공모전이다.

서울 전시는 10월 12일까지 덕수궁 석조전, 지방 전시는 10월 16일~11월 2일까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진행된다.

가연숙 기자

대구사원주지련 신도회 수계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9월 26일 불교대구회관 만불보전에서 불교기본교리 교육을 이수한 신도들과 공무원 불자 105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은해사 제3회 태권도 아리랑 예술제



영천 은해사는 9월 28일 제 3회 태권도 아리랑 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태권도 아리랑 시범단의 창작무술과 대한무사회의 무술시범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전주 · 전북 포교사단 철야정진법회



전주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은 9월 26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전북지역단 포교사 40여명이 동참해 좌선,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배 참회 정진 등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자천도재 봉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8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4회 시신 및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인간문화재 법진 스님의 인례로 이날 천도재는 시련, 대령, 법문, 영가천도의 순으로 봉행됐다. 노덕현 기자

종교인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캠페인



'옥천군은 9월 26일~28일 옥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용택 옥천군수와 옥천군 종교단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문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자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입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촉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뭄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를 이룹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든지 얼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이마 안쪽에서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에선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된지 얼마간이 지나면 희열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인데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낳으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중풍으로 5년간 누워 계시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생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아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훨훨 털어버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천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제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 락 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 강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전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가 · 세계침구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 협회 회원 · 대한신불교 천우종 포교원장 삼봉 김영생 법하

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지?

해외불교칼럼

일부 서구인들은 불교를 종교보다는 오히려 철학이자 교육(education)이라 여긴다. 이를 반영하듯, 몇 달 전 세계 굴지의 인터넷 토론방에 이런 질문이 떴다.

'왜 어떤 이들은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말할까?(Why do some people say Buddhism is not a religion?)'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러 의견을 간추려봤다. 그 중 가장 큰 공감대를 이룬 견해는 '불교는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 그리고 그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불교는 임의적 교리나 일방적 독선에 따라 절대선, 절대악 등 극한양분과 대립개념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리를 내새워 독단적으로 죄악과 상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좀 더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 '불교는 서로 가르고 밀쳐내는 상극배척(相剋排斥)이 아니라 두루 어울려 사는 상생원융(相生圓融)이 우주만물의 존재이유라 설명한다.' 하나같이 신중하고도 자유로운 자기의견이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견해도 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불교는 적대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게는 정복하고 제거해야 할 적이 없다. 이처럼 적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불교가 어찌 종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한 서구의 석학은 불교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let it be)'이라 말했다. 오래 전에 들은 그 말을 얼마 전 새삼 떠올리는 뉴스를 접했다. 다음은 9월 20일자 AP통신의 일부 인용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선 특정종교를 보호하고자 종교적 신념을 바꿀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법규가 시행중이다. 9월 19일 미 국무성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독교, 이슬람, 유태교, 불교, 힌두교가 신앙의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을 열거했다. 언급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3개 이슬람국가는 구소련에서 독립했다.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실태를 조사한 동 보고서는 '해당지역의 다수민족이나 주류 종교 등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직접 개인적 개종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의 말레이시아, 기독교의 그리스, 유태교의 이스라엘은 '평화적 개종행위를 저해하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힌두교의 인도는 동 실태조사가 진행될 당시 28개 주 가운데 6개 주에서 개종제한의 법규를 명문화하고 1개 주에서는 시행중이다. 불교 주류인 스리랑카에서는 2004년 상정돼 제청된 반(反)개종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집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은 개종을 금하고 배교자에 가혹한 처벌법규를 적용한다. 특히 구소련의 3개 이슬람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행 종교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이는 신앙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 보도는 이 국가들을 마치 중세유럽의 종교심판관 앞에 끌려온 이단이나 마녀피고인처럼 상세한 죄목까지 들어가며 열거했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기독교 선교공세가 '인도의 강간(the Rape of India)'이란 인도인의 국민적 수치심마저 야기하고 국가내분의 씨알로 커가는 스리랑카의 위기감은 모른 척 덮어뒀다.

도대체 왜 남들이 내내 살아온 대로 놔두질 못하는지? 조용히 지내고픈 이웃집의 문을 왜 흔들어대는 건지? 언뜻 근세 서구제국들의 이른바 '통상개방'이란 식민침탈의 예열작업이 연상되는 건 웬일일까? 혹시 이젠 '영혼개방'의 예열작업인가?

다른 한편, 미국의 NBC는 미국인 2만명이 해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 가운데 75%가 여성이며 현재 전체 무슬림은 500~700만 명이라 보도했다. 또한 미군 공보처에 따르면 현역복무 미군 중 1~2만 명이 무슬림이다. 또 영국 백인 중 1만4000명이 최근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서구사회에서 불교의 급속한 발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른 순리다. 이처럼 문화든 종교든 개방이란 억지로 되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스스로 될 터이다.

편역:성휴 스님

출처: NBC, Armed Forces Press Service, Yahoo.com, The Rape of India, 기타

"What did you want most?"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뭐가 절실히 필요하던가?



A young man interrupted a hermit meditating by the river. "Master, I wish to become your disciple." "Why?" "Simple, to find the path." "Good enough!" Then suddenly the master jumped up, grabbed him by the scruff of his neck, dragged him into the river and plunged his head under water. After holding him there for a minute, with him kicking and struggling to free himself, the master finally pulled him out of the river. When he coughed hard and finally quieted down, the master asked, "Tell me, what did you want most when you were under water." "Air!" grumbled the man. "Very well," said the master. "Go home now and come back to me when you want the path as much as you just wanted air."

젊은이가 물가에서 참선 중인 은자에게 끼어들었다. "저, 선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왜?" "득도 좀 해보려고요." "거 좋지!" 그리곤 선사는 붕 뜨더니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서 강물 속에 처박았다. 젊은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선사는 한참 뒤에야 강물에서 꺼내줬다.

그가 마구 기침을 하다가 겨우 숨을 고르자 선사가 물었다. "말해보게. 물속에 잠기니까 뭐가 절실히 필요하던가?" 젊은이가 투덜댔다. "공기죠, 뭐!" "그렇지! 그럼 이제 집으로 가게. 그리고 방금 공기만치 득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게나."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영국 특수학습원 참선 지도 정기수업 지도할 스님 섭외

영국의 랭커셔 주에 신설된 번리 앤펜들페이스 특수학습원에 정통 불교승려가 지도하는 참선클래스가 도입된다.

랭커셔 주 의회의 미래지향학교 설립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습원은 9월 8일 바든레인에서 정식으로 개교했다.

학습원의 테리 머레인 조정실장은 우선 매주 수요일 정기참선수업을 실시하고자 현재 불교승려와 협의 중이라 밝혔다.

"이번 참선클래스는 불교신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 신설된 특수학습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지닌 불교승려 측이 제안했다. 앞으로 참선클래스와 더불어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작은 법당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Lancashire Telegraph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도 블룸 ❹

"깨우침의 걸림돌은 나 자신"

주변상황이나 남 탓 않고 치우침 없는 삶 추구
"내가 작은 배라면 불교는 닻 … 모든 생명 존중"

금년 31세인 올랜도 블룸은 작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제 나이가 서른이 갓 넘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겨우 삼라만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나 봐요. 매사를 좀 더 진지하고 슬기롭게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지니고 싶습니다." 이어 기자가 묻는다. "그것이 올랜도 님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랄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불문에 들어선 후로 이미 몇 해가 지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여러 잡다한 망상과 번민을 모두 떨쳐내진 못하고 있어요. 깨우침이나 자아발견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는 없는 거겠죠." "네, 하지만 올랜도 님께선 나를 가지런히 추스르는 자기정리를 위해 남달리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무엇이 깨우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던가요?" "걸림돌이요? 아, 네, 그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그렇겠죠. 나 밖의 남이나 주변 여건 등을 탓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예요. 불제자들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라만상과의 인연은 끈이 맺어진 '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거칠고 사나운 적이 생겨날 일이 없고 삭막하고 껄끄러운 이웃을 만들 까닭도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불교의 비폭력과 평화적 특성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온갖 일들과 이런 저런 사람들이 때로는 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나'의 삶속을 들락거리죠. 그것이 곧 인간사의 속성이겠지만요."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과 사물에 일일이 대응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길', 즉 오직 나에게 맞도록 닦아진 나의 길, 여기도 저기도 치우침이 없는 나의 길을 택한 겁니다." "아, 이제 불교철학의 핵심인 중도(中道)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세상만사가 나의 길만을 가도록 놔두질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대니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네, 기자님과 불자인 저의 차이가 바로 그 점입니다. 저의 길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 쥴 아세요? 제게는 불교라는 길잡이가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명쾌하고 냉철한 자아인식이다. 게다가 그는 나 스스로 애써 깨달은 바를 '나의 말'로 전하고 있다. 모든 불자가 그렇듯 그 역시 무슨 경전의 말씀 중 몇 장 몇 절 운운하며 해묵은 처방전 따위를 어설프게 따라 읊지 않는다. 깨우침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장소마다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개봉을 앞두고 독립영화 지와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작은 파도에도 늘 흔들리는 작은 배입니다. 저는 아무 때든 큰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어요. 불교는 제게 닻입니다. 저를 항상 바르게 붙들어주는 든든한 닻입니다. 불교는 흔들림이 없는 굳은 자아를 지니게 해줍니다. 불교는 제가 열심히 삶을 살고 모든 인연과 생명체를 존중하도록 늘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될 지구촌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줍니다."

2000년부터 환경생태보호와 관련된 다국적기업 '글로벌 그린'의 일원이 된 그는 런던의 자택을 폐품 재활용 및 태양에너지형으로 개조했다. 현재 그는 유니세프 국제대사로 발령대기중이다. 머잖아 그의 고운 자비공덕의 빛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 〈끝〉 성휴 스님

사리전시회 대성황 스코틀랜드 샴발라 선원서

9월 20일부터 3일간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인근의 파인드혼 샴발라 불교선원에서 개최된 불교사리 전시회가 수백 명의 참관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붓다 및 역대 조사들의 사리 300여점이 소개된 이 행사는 약 1000점의 사리를 소장한 마이트레야 기획의 2개 순회전시활동 중 일환이다. 이번 전시된 모든 사리들은 현재 인도에 건립 중인 청동대불 내에 보존될 예정이다. 출처: BTN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H.P 010-3056-3315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고구려삼계탕 3층 지장사
☎ 02)796-7579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믿음과 실천’ 불교 수행의 근간

한국정토학회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에 대한 문제’ 세미나

불교는 ‘수행’과 ‘깨어있음’을 강조한다. 수행하지 않는 불자는 결코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는 불자도 수행을 통해서만이 부처의 세계로 향한다.

수행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에서 수행이 주목받은 시기는 근래의 일이다. 해방 후 기복불교를 거쳐 1990년대 종단개혁과 불교교양대학 출현 등으로 대변되는 교학불교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붐을 형성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야 출가자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수행이 재가자로 확산 · 대중화되며 수행불교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정토, 화엄, 선, 밀교 등 대승불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승불교의 수행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는 10월 2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불교학 각 분야의 대표 학자들이 발표했다. 기조강연한 태원 스님(중앙승가대)을 비롯해 정토학자인 보광 스님(동국대), 화엄학자인 도업 스님(동국대), 선학자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밀교학자 종석 스님(중앙승가대)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수행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삼학은 불교 수행의 근간

태원 스님은 기조강연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의 문제’에서 “계 · 정 · 혜 삼학이 불교 수행의 근간”이라 주장했다.

스님은 “불교 기초교리부터 마땅히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계 · 정 · 혜 삼학이 강조된다”며, “계의 수행으로 선정이 생기고, 선정에 의해 지혜가 있고, 이 지혜에 의해 수행의 목적지인 깨달음을 완성해 성불한다”고 설명했다.

태원 스님은 “삼학 중심의 수행이 부처님 당시부터 설해졌다”며 <장아함경> 등을 인용해 전거를 들었다.

<장아함경>에서 부처님이 “모든 비구에게 이르기를 네 가지 깊은 법이 있다. 첫째는 성스러운 계(聖戒)요, 둘째는 성스러운 선정(聖定)이며, 셋째는 성스러운 지혜(聖慧)며, 넷째는 성스러운 해탈(聖解脫)로 이 법은 미묘한 것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한 것이 삼학을 뜻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스님은 “해탈을 위해서는 삼학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삼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인의 수행이며, 해탈은 수행의 결과”라 말했다.

<장아함경>의 지계(持戒) → 선정(禪定) → 지혜(智慧) → 해탈(解脫)로 이어지는 수행 차제가 대승경전인 <열반경>으로 이어졌다. 태원 스님은 “남방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위빠사나 수행도 계 · 정 · 혜 삼학의 체계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분율> <오분율> 등을 인용해 “모든 율장이 말하는 계의 역할은 선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계와 정 없이 관법이 가능하다는 일부 수행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태원 스님은 “삼학을 근본으로 지계와 선정, 지혜를 구체화해 육바라밀 수행 등 대승불교 수행법이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믿음(信)’이 정토수행 핵심

‘정토교의 수행방법론’을 발표한 보광 스님은 “극락정토와 아미타불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토수행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량수경>의 ‘지심신락욕생아국내지십념(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 구절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십념정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한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이미 모든 수행은 완성된 것”이라 설명했다.

화엄수행은 생활 속 실천

도업 스님은 주제발표 ‘화엄의 수행’에서 “화엄수행은 신해행증(信解行證) 가운데 ‘행(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도업 스님은 “대승불교의 모든 실천행은 십바라밀로 귀결된다”며 십주(十住)와 십행(十行), 십지(十地), 십회향(十回向)을 십바라밀로 도식화해 설명했다.

스님은 “<화엄경>의 절반에 가까운 17품이 보살이 가야할 길(보살도)과 행해야 할 실천행(보살행)에 대해 설했다”며, “실천행이 진정한 보살행이 되려면 믿음과 발보리심(發菩提心)과 원(願)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화엄수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願), 력(力), 지(智)를 실천하는 지극히 일상생활적이며, 개개인의 행동규범”이라 말했다.

신심 없는 선수행 없어

김호귀 연구교수는 ‘조사선에서의 수행의 양상과 신심의 관계’를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신심은 발심의 근원이며, 모든 보살행의 시작이다. 수행과 깨침을 위한 기초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살행의 완성”이라 강조했다.

김호귀 연구교수는 “신심은 보리달마에게서는 벽관수행으로 드러났다. 대혜의 간화선에서는 대신근(大信根) · 대의단(大疑團) · 대분지(大憤志)라는 화두참구의 모습으로 전개됐다. 굉지의 묵조선에서는 본증자각(本證自覺)이라는 본래 믿음(本來信)을 바탕으로 지관타좌(只管打坐)의 좌선수행으로 성취됐다”고 정리했다.

밀교수행 바탕은 보리심

종석 스님은 ‘밀교의 수행’을 <보리심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보리심론>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설한 밀교의 수행지침서다.

스님은 “밀교는 불교의 완성이다. 밀교의 수행법은 중관과 유식의 알라야식, 여래장 사상을 계승 · 발전시켰다”며, “밀교의 키워드인 즉신성불을 위해서는 보리심이 필수”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진천 영수사 괘불 내년 4월까지 일반 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10월 7일부터 괘불탱 특별전 개최


10월 7일부터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공개되는 진천 영수사 괘불탱.

보물 제1551호 진천 영수사 괘불(사진)이 일반에 공개된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10월 7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 진천 영수사 괘불탱 등을 전시하는 제20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한다.

진천 영수사 괘불은 국내에 현존하는 불화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53년 조성된 작품으로, 조선시대 영산회상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불화로 손꼽힌다.

가로 554cm, 세로 813cm 크기의 삼베바탕에 안료를 푼 작품으로, 삼베 17폭을 횡으로 연결해 한 화폭을 구성했다.

괘불은 안료 벗겨짐과 구김 등이 심해 최근 보존처리를 거쳤다.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인물들이 빼곡히 둘러싸인 구도로 본존 대좌 전면에 표현된 비구형 청문자를 중심으로 화면은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상단부는 본존을 중심으로 18보살, 가섭 · 아난, 16나한, 범 · 제석천 등 약140위의 존상을 가득 배치한 영산회 설법도량을 묘사했다. (055)382-1001 조동섭 기자

“배타적 개신교 근본주의가 뿌리”


‘한국기독교의 배타주의’ 공동학술세미나서 토론 중인 유승무 교수(우측).

“국가권력 ·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나, 타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개신교 근본주의가 최근 종교편향 사례의 뿌리다.”

감신대 기독교통합학문 연구소 등 개신교 학술단체가 9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의 배타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 교수는 “한국 개신교의 독특한 근본주의가 기독교 권력을 매개로 타종교에 일방적으로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무 교수는 “종교편향 재발을 위해서는 정부는 종교편향 방지 법제화를 시행해야 하고, 종교계는 소통의 기회를 활발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길희성 명예교수(서강대)는 ‘한국기독교의 배타성은 어디서 오나’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매장문화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앞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견 ·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을 받는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 발굴 포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46호) 및 시행규칙 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장문화재 신고 포상금은 발굴 문화재 가치에 비해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저 유물 불법인양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발굴조사기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발굴조사원 중복투입을 가능하게 했다.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절차 조항 등도 포함됐다. 조동섭 기자

이근무 교수 “금석문 디지털 보존해야”

경주 석굴암, 동종 및 석탑류에 새겨진 부도는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탁본 등 아날로그식 보존이 아닌 이미지 처리를 통해 디지털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근무 교수(위덕대)는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9월 2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2008년 가을논문발표회에서 ‘불교 금석문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기술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컴퓨터 그래픽에 사용되는 렌더링 기술 등을 불교 콘텐츠에 적용해 디지털화하면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이종수(동국대 박사과정)씨가 ‘숙종 7년 중국 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간행’을, 하유진(서강대)씨가 ‘축도생의 실상관’을 발표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최문순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가 · 지자체 의한 문화재 훼손 막고자”



문화재청의 보존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청건물(서울시 등록문화재 제52호)을 기습적으로 철거하면서 문화재보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사진)이 등록문화재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 145건을 현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문순 의원은 “8월26일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기습적으로 헐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병원에서 안 되는 병
기공의학으로 고친다!

스님! 소백산 수련원으로 오세요. 스님들의 건강 쉼터가 되겠습니다.

■ 소백산 수련원에는 통증이 즉석에서 사라지고 어혈이 맑아지는 것을 즉석에서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건강비법이 있습니다. 〈미국 FDA인증〉 www.chgg.co.kr

상기증, 호흡곤란, 불면증, 심근경색증, 협심증, 당뇨, 만성두통, 갑상선, 척추, 고관절, 허리, 좌골, 골반, 어깨, 관절, 디스크, 엘보, 협착, 변비, 어지럼증, 위장,회춘, 혈행장애, 손발저림, 수족냉증, 만성피로, 안면풍

■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침, 뜸, 부항, 척추교정도 그때뿐이고 다시 재발하는 분
■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분
◇모든 만성병은 골반변형으로 생깁니다. 골반, 척추를 바로잡지 않고 병을 고치려는 것은 손 없이 보물 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스스로 골반을 교정하고 통증을 치유하는 자가 치유법을 배우면 평생 건강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생체전기(자기장)가 전신을 감싸고 무너진 생명원기를 되찾아 온몸이 더워지고 수승화강을 이루어 난치병을 치유하는 기(氣)의학의 실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독일 동서의학병원 임상시험 인정증 획득!
※ 16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스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가장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천일의학기공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구초등학교자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 자원봉사의 집 -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 전국소년소녀가장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귀 양화사 건강원 귀 고려수지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분회

인간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 구현을 실현하여 건강 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이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 (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자원봉사의 집” 입니다.

※ 전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한하여 관할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서”을 발급 받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경통, 관절, 혈압, 성인성질환〉〈아토피, 피부, 부인성질환〉〈불치난치성질환〉〈각종 희귀성질환〉등에 대하여 “수지대체요법”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수지대체요업, 민간요법, 자연요법, 체질개선〉〈기능식품,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양화사 건강원. 고려수지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서금요법 수지침 무료교육 안내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가정의 건강관리” “수지침 자원봉사” 고령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입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을 아시면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건강걱정 줄여 줍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 “자격증” 취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 합시다.
※ 전국지방 각종단체 “무료출장교육” 신청 상담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 201호 ☎ 문의 031)251-2213, 254-2213 / 전화 · 팩스 258-2213, 010-3013-2213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80520 / 제 일 604-20-378236 / 국 민 877001-01-362102 / 우체국 104323-01-001733 (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손병옥(호두마을 명상센터 설립자)

놓아 버린 사람은 행복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에서 수행도량 일꾼으로 '변신'

"위빠사나는 무한대의 이익"…법보시도 앞장

천안의 광덕산 아래 자리잡고 있는 '호두마을'은 위빠사나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두마을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마른 논에는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누릇누릇 익어가는 나락 위로 쏟아져 내리고, 길가의 호두나무에는 누르스름한 호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세파에 찌든 마음은 한결 순화되는 느낌이다.

호두마을은 예로부터 '만복사'라는 큰 가람이 있어 수많은 수행자가 모여 수도하던 곳이었다. 그 자리를 이어 호두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니 땅도 내력이 있는 것 같다. 누군가가 정성들여 가꾸어 온 수행도량임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다. 12만㎡ 가량의 대지 위에 수행공간인 대법당과 소법당, 수행자들의 숙소와 공양간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4채의 토굴이 있다. 그리고 경행(經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된 아름다운 오솔길이 있다. 이곳의 장점은 남방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위빠사나의 참맛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위빠사나 수행의 발원지답게 연간 이용자만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프랑스에 틱닛한 스님이 세운 명상수련센터 '자두마을(플럼빌리지)'이 있다면 한국에는 '호두마을'이 있다고 말을 한다.

호두마을 설립자인 손병옥씨는 밀짚모자를 쓰고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 호두마을에서 그의 공식 직함은 고문(顧問)이다. 호두마을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는 위빠사나 명상법을 국내에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이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단다. 손 고문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수행자에게서 느껴지는 예리함도 갖추고 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인천에서 일 년에 100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호두마을의 일꾼을 자처하여 불목하니처럼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 손 고문은 이십대 때 가슴 가득 차오르는 구도심을 억누를 길 없어 통도사로 출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호두마을을 세운 것도 세세생생 불가로부터 빚진 것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손 고문은 '업에 대한 법칙'만이라도 바로 이해한다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을 거쳐 위빠사나 수행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행한 수행의 방법인데 그것에 '좋다 나쁘다'는 어떠한 토를 다는 것은 불법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 깨달으셨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는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부처님 정법을 훼손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부처님을 닮고 싶어 하고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면서 부처님께서 수행한 그 방법을 외면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손 고문의 말은 이어졌다. "<대념처경>에 보면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해탈하기 위한, 오직 한 길(一乘道)이 사념처 위빠사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알고부터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놓아버림의 행복'을 맛본 것이다. 손고문은 사업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남달라서 그가 손대는 것은 모두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는 20년 넘게 돈과 출세를 구하며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처럼 달렸다. 자신이 목표한 도달점에 이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오히려 허망감이 밀려왔다. 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사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회사 내 전담직원까지 두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불우한 가정 120가구를 매달 지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위빠사나를 만나게 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에 자아나 실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요. 지혜가 없는 마음은 나를 기만할 것이며, 지금처럼 끊임없이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행복과 만족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지요. 귀하다고 여겼던 돈과 명예도 벗어놓고 가족을 떠나 마흔 다섯에 이곳 호두마을로 왔어요."

그야말로 잘나가던 회사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에겐 '재산 상속이 없을 것'이라고 공포했다고 하니, 그는 이미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을 일순간에 버리고 수행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라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것이 바로 출가(出家)가 아닌가 싶다.

지금의 호두마을 부지는 1992년에 개인토굴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행터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메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호두마을을 하나하나 일구어나갔다. 손 고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1년 명상센터 호두마을을 개원했고, 2002년 호두마을을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행자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호두마을은 누가 뭐래도 손 고문의 시간과 땀과 돈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질문인줄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저는 원래 사업가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으니 저 역시나 지금 무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해요."

손 고문은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어 '우 조티카 사야도'가 쓴 <여름에 내린 눈>을 비롯하여 '아짠 차' 선사의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위말라 람시' 스님의 <사띠 사마디>등등의 책을 수천 권 보시했다.

수행은 놓아버리는 공부라 했다. 아짠차 선사의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렸다. 손고문은 자신의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큰 평화를 얻었음에 틀림없다. 세상이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번득이는 지혜와 부드럽고도 따뜻한 자비가 보태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SHC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센텀시티 자성불선원 개원

자광 스님 "삼독 훔쳐가니 참된 성품 찾아라"

부산 해운대 'IT, 영상, 전시, 컨벤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단지 센텀시티에 불법을 전하는 첫 포교원이 문을 열었다.

양산 통도사 해운대 포교원 부처님마을의 분원 자성불선원(주지 효범)이 센텀IS타워 508호에 문을 열고 9월 27일 입소식을 봉행했다.

이번 입소법회에는 前 직지사 주지이자 관오사 불교 사회복지회 회주 자광 스님과, 서운암 명조 스님, 자성불선원 수안 스님, 중국 천진 부처님마을 신도대표 문곡거사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자성불선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선원장 효범 스님은 "사랑, 명예, 재물을 훔치면 지옥에 가지만 중생에게 탐, 진, 치를 훔치면 극락에 가게 된다"며 "앞으로 자성불선원 모든 신도들의 삼독을 내가 훔쳐갈 테니 자성불의 뜻대로 스스로의 참된 성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27일 자성불선원 개원식에서 자광 스님이 법문했다.

입소법회에 이어 11시 30분부터는 자광 스님의 축사 및 <육조단경> 특별 강의 총 13회 중 첫 번째 시간이 마련됐다.

자광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는 12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며 개원식은 10월 중순 열린다. (051)780-8855 박지원 기자

미륵종 승려연수교육 입교

한국불교미륵종은 9월 25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미륵종 승려교육장에서 2008년도 사미계 수계식 및 승려연수교육 입교식을 봉행했다.

각 말사에서 1년간 행자수업을 받던 예비스님 24명(사미14명, 사미니 10명)은 18일 입교해 일주일간 대중생활을 하며 그동안 공부한 <초발심자경문>과 승려로서 지녀할 습의 등을 시험받고 이날 수계식을 가졌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미륵종승려 단기연수교육은 2박3일의 일정으로 종도스님 120명이 참석해 '미륵부처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종회의장 혜월 스님과 용산사 만성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승려교육입교식 축사에서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종단의 발전과 종도들의 화합은 수행자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미륵종은 9월 25일 사미계 수계식과 승려연수교육 입교식을 봉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종단에서 4년마다 봉행하는 비구계 수계식도 함께 열렸다. 영민 서부경남지사장

울산 월봉사 10월 12일 문화예술축제

달빛 고운 절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월봉사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한다.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 산사음악회, 선서화전, 다도시연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사부대중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음식 시연회, 백일장, 사생대회, 효자효부시상식, 바자회 등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축제를 맞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열린다. (052)251-4602 박지원 기자

용호복지관 '투명경영' 선언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 '따뜻한 동행' 출범

부산 불교계 복지관에도 '투명경영'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2008 윤리경영실천기관 2기로 선정돼 9월 26일 '윤리경영 선도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윤리경영 선도사업 선포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윤리경영 선도기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투명성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6일 '윤리경영 선도사업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종철 남구청장 외 시·구의원, '따뜻한 동행' 자원봉사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윤리경영 선도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보고, 전직원이 지역주민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포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자원봉사단&후원회 '따뜻한 동행'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자사와 후원자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발전과 복지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또 자원봉사단과 후원회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종철 남구청장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감사를 표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국제도시 부산 남구에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가 운영 중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한때 타 기관의 부실운영으로 맡게 되어 정상화를 이뤄냈고, 이번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가능성,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덕명대종사 유물전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에서는 2008년 범어사 개산대재를 맞아 '남곡당 덕명대종사 기증 유물 특별전'을 마련한다.

덕명 대종사 기증 유물 특별전 '庭前柏樹子, 뜰 앞에 잣나무'에는 안적사의 귀중한 성보인 지장탱, 신중탱, 아미타후불탱을 비롯한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작가들의 서화류 총 8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 경남지역 불화의 장엄함과 화풍, 다양한 서체에 담긴 필력,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전시 기간은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범어사 성보박물관내에 상설 전시된다. (051)508-6139

박지원 기자

천진불 미소 '찰칵찰칵'

(사)동련 어린이불교사진&UCC공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에서는 어린이불교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제3회 천진불의 미소 어린이불교사진&UCC 공모전'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세계를 표현한 다양한 사진 및 UCC를 공모한다.

사진 분야는 어린이의 순수한 미소, 동심세계를 표현한 인물 사진으로, 규격은 컬러 및 흑백사진 8×10, 디지털 사진의 경우 300만 화소(2048×1536)이상으로 한다.

UCC 분야는 어린이법회 등 모든 불교활동 및 어린이 포교에 관한 내용으로, 규격은 컴퓨터에서 재생시킬 수 있는 동영상 파일로 해상도 640×480(200MB 이내), 총 3~10분 내외면 된다.

시상내용은 대상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금상 각 부문별 1명씩 상금 50만원 및 상장, 은상 각 부문별 2명씩 상금 20만원 및 상장, 동상 각 부문별 3명씩 상금 10만원 및 상장, 가작 상장 등이 수여된다.

접수마감은 10월 31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첨부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료는 무료이며 10월 31일 이후에는 제4회 대회로 자동 응모돼 연중 상시 참가가 가능하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세계가 담긴 미소를 통해 어린이와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전문 사진작가 솜씨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면 응모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864-4569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

바르고 맑은 세상 만들기 '동분서주'

"참회의 뜻을 아는가? '참'자는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것, '회'자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는 것이다. 대통령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교분리를 지켜 달라."

9월 26일 오후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가진 간담회장이 한 스님의 한마디에 회의장이 일연 숙연해졌다. 옳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행하는 대쪽같은 분이 바로 자인 스님이다.

부산시 강서구 봉화산 기슭에 위치한 백옥천불도량 길상사. 대웅전과 요사채 각 1동씩 3층 규모로 수행과 휴양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대웅전은 삼존불과 1080불은 백옥, 수미단과 바닥은 황옥, 신중탱화는 흑옥 등으로 장엄하게 조성했다.



자인 스님은 "우리 절이 천년고찰로 유지되려면 화재 위험이 적은 소재여야 했고, 자연 그대로의 숲속 별장 같은 수행도량이다.

올해부터 자인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연합회는 부산의 각종 불교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정부와 사회단체와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단체다. 스님은 "연합회는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팔관회, 시민연등축제, 사명대사추모법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과 소통의 장도 열어 종교편향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단을 떠나 스님들과 불자들이 관심은 가지지만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해 늘 아쉽다"며 불교종단, 법인, 신행단체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인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부본부장으로 아프고 소외받는 이가 없는 순수한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 옥을 선택했다"고 한다.

숲속 별장 같은 길상사 신행도 휴식도 'OK'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백옥도량의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진다. 스님은 "도시에 사는 불자들이 주말에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쉬러오는 별장 같은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다"며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행공간과 휴양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도를 끝낸 신도들은 옥방에서 쑥뜸을 뜨며 쉰다. 매주 길상사에 들른다는 한 보살은 "절에 와서 마음 가다듬고 쑥뜸 뜨니까 더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이렇듯 길상사는 일상에 찌든 도시민들을 위해 스님이 만든 숲속 별장 같은 수행도량이다.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생명나눔의 장기기증운동과 의료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스님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데 타종교에 비해 늦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자인 스님의 포교는 '실천'이다. 현재 스님은 몇몇 스님들과 뜻을 모아 해동고등학교 원호장학회에 연간 27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10년째 부산교도소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다. 매달 용두산공원의 노숙자 300여명에게 대중공양을 하고, 올해부터는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 후원금을 내며 일요법회의 군법사로서 끊임없이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포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박지원 기자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5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9월 27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5일 (음, 9월 27일)
- 3재 : 양력 11월 8일(음, 10월 11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6일 (음, 11월 9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볼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약천사 방생안내

11월 3일 (음. 10월 6일 월요일)에 등명낙가사 (강원도 강릉)로 방생법회를 갑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잔치
천천클럽 주최



9월 28일 둔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잔치.

전북의 대표적 불교봉사단체중의 하나인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은 9월 28일 금선암, 송광사, 원경사, 우리는 선우, 전북포교사단의 후원으로 완주 산업단지내 둔산체육공원에서 제3회 외국인 근로자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네팔, 베트남, 미얀마 등 11개국 250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발야구, 과자 따먹기, 제기차기 등의 게임을 즐기고 고국의 노래와 개인기를 발휘하며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날려 버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장 스님 '법화경'
자비신행회 경전공부

종교편향 등 불교계가 어수선한 때, 교육과 포교 등 인재불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불자의 마음을 다잡는 경전공부 바람이 불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9월 25일~11월 27일 지장 스님(증심사 주지)의 '법화경 열린 강좌'를 시작으로 불교경전공부를 열었다.

지장 스님은 강의를 여는 말에서 "<법화경>은 불교가 여러 갈래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기에 등장해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이끌었던 포용의 경전이다. <법화경>을 통해 참된 삶의 가치를 체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50여명이 동참한 강좌는 직장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야간에 개설된 열린강좌다.

한편 지장 스님은 경전연구회 회장으로 매년 서울과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출가자들의 경전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종교인들의 문화공동체인 무등산 풍경소리 이사장, 광주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경 스님 "오체투지 왜 필요한가"
'기도, 사람 · 생명 · 평화의 길' 오체투지 순례단 동행기

"딱!" "휴~!"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과 앞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센 맞바람을 뚫고 죽비소리에 맞춰 온 몸을 내던진 오체투지(五體投地) 순례행렬이 전북 임실 인근 17번국도 이동령 고개길을 오른다.

'기도, 사람 · 생명 · 평화의 길'을 찾아나선 순례단은 9월 4일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묘향산을 향하고 있다.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 불교환경연대 대표)과 문규현 신부(전주평화동성당)는 행렬 선두에서 지관 스님(김포 환경연대 대표)의 죽비소리에 맞춰 마른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고 온 몸을 던진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두 성직자의 이마는 땀방울이 맺혔다.

오체투지 순례는 30여일째다. 순례단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3~4㎞의 매우 느린 속도로 묵묵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 길가에 텐트를 치거나 인근 성당과 사찰 등에서 자고, 식사는 길에서 해결하는 등 사실상 생사를 넘나드는 고행 중이다.

서울, 부산 등 지역과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할 것 없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순례길'에 동참 중이다. 9월 26일 순례길에는 광주불교환경연대 법일 스님을 비롯한 회원 10여명과 공주 영평사 포교당 현관 · 정수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동참해 순례단의 발길을 가볍게 했다. 이들 가운데 20여명은 스님들과 함께 땅바닥에 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며 뒤따르는 불자들의 눈가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두 성직자들과 함께 늘어서 온 몸을 길바닥에 던진 이들의 순례길을 위협하는 차량의 질주. 한결 매서워진 바람과 매연, 따가운 가을햇살에 달구어진 아스팔트 바닥의 열기로 순례길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그나마 아주 가끔 먼발치에서 차를 세우고 합장 반배로 인사하고 차창 밖으로 손 흔드는 이들이 있어 순례단에 큰 힘이 된다.



'기도, 사람 · 생명 · 평화의 길' 순례 중인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공주 영평사 신도 이진복 보살(대전)은 "그동안 했던 어느 기도보다 오늘 길에서 오체투지한 것이 가장 좋았다. 자신을 좀 더 낮은 자세로 돌아보고 느림과 고통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동참했다"고 말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기자에게 수경 스님은 "오체투지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실천불교 역할 수행하겠다"
복운문화축제 열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선운사 주지 법만 · 관장 무공)은 10월 1일 고창주민을 위한 '복운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지역내 기관장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행사에는 한국무용 화관무, 생활체조, 댄스 스포츠 등 어르신들이 복지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을 뽐냈다. 또 광주전남북무용교육원의 창작무용과 품바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주거환경개선 복지기금마련 공예전'과 '바자회'도 함께 개최됐다. 전시회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에 사용될 복지기금을 마련하고자 11일까지 열린다.

복지관 운영위원장 법만 스님은 "노인의 날을 기념한 경로대잔치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기금 마련 전시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선운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산중에만 묻어두지 않고 소외되고 병약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해 회향하는 실천불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의식교육 '인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원장 원명)은 9월 24일부터 4박 5일간 스님과 재가자를 상대로 생활불교의식과 사찰 상용의식 교육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찰에서 매일 행하는 상용의식과 재의식을 비롯해 천수바라 등 전문의식까지 전수됐다.

원명 스님은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이 의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안타까웠다.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많은 불자들에게 여법한 불교의식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각사상 실천해 성불하자"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2주년 기념법회

근대 불교의 선구자인 백용성 조사 탄생성지 전북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9월 28일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2주년 기념법회 및 독립운동33인 · 광주 학생운동 대표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100여명의 스님들과 3000여명의 불자들, 천도교, 개신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는 백용성 조사기념관에서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다례재 봉행에 이어 독립유공자 및 광주학생운동 대표 추모대제가 열렸다.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오도송을 소개하며, "용성 스님은 오도 후 대각사상을 선양하셨다. 자각, 각타, 각행, 각만의 대각사상을 실천해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9월 28일 장수 죽림정사에서는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2주년기념법회 등 행사가 열렸다.

추모대재 후에는 석가산 스님(불교종정협의회 의장)을 계사로 전수 국제 금강 보살대계 수계법회를 통해 불자 1000여명이 보살계를 수지했다.

한편 '헌법파괴 종교편향종식'을 외치며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 도보순례 중인 마조 스님을 비롯한 '평화누리 불교연대' 스님 4명도 이날 법회에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 증심사 조영훈 사무국장

광주 문화운동의 핵 증심사 살림꾼

무등산은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광주를 껴안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광주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무등산에서 가장 큰 사찰을 꼽으라면 증심사를 빼놓을 수 없다. 증심사는 광주 대표사찰이자, 사찰 중 유일하게 문화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사찰이다.

이곳 증심사 살림을 도맡아 이끌어가는 이가 바로 조영훈(법명 현담) 사무국장이다.

"지금까지 사찰은 지역사회와 교류협력을 등한시하고, 포교를 비롯한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찰 공간을 개방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조영훈 국장의 말에는 사찰의 역할에 대한 그만의 역력한 고민이 묻어나온다.



증심사는 현재 부설로 운영하는 무등산 풍경소리를 통해 故 일철 스님부터 진화 스님을 거쳐 지장 스님까지 6년여 동안 무등산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중이다. 여기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종교간 대화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역할도 도맡고 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를 아우르면서 지역에 나눔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현재는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과 최명진 목사(미래에서온교회)가 공동대표격인 '풍경소리 지기'로 활동 중이다.

평화와 상생의 음악회를 개최한지 다섯 돌이 지난 무등산 풍경소리는 음악회 때마다 스님과 목사가 손잡고 노래하고, 신부와 수녀가 기타를 치는 등 무등산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조 국장은 호남지역 불교계는 물론 불교계 전체에서 이미 잘 알려진 활동가다. 스님으로 말하면 동진출가요, 재가자로 말하면 동진발심해 일찍 불교에 귀의한 이른바 '불교운동가'다.

조영훈 국장은 "중학교 다닐 때 종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을 잠깐씩 경험해봤는데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편안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조 국장의 불연은 원각사에서 중학생회 1기로 첫 활동을 했고 고등부를 거쳐 대학까지도 불교학을 전공하게 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조영훈 국장은 "그저 불교가 좋아서 종립대인 동국대 불교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동진발심해 곳곳서 일한 '불교운동가'

대불련 중앙조직부장 및 정책실장과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홍보차장을 역임한 그는 생명나눔실천회 실무자 등 불교계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울 봉은사 교무계장을 거쳐 현재는 증심사와 무등산 풍경소리 행정일을 맡고 있다. 광주지역 불교실무자들 모임인 육화포럼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조 국장은 광주지역 불교계의 보배 같은 존재로 불자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조영훈 국장은 광주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불교사업도 구상 중이다.

조 국장이 광주 불교문화운동과 사찰문화운동으로 불자들에게 현대불교의 새 비전을 전할 날이 머지않았다.

양행성 광주전남지사장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우리 종단을 말한다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지공 스님

자각각타·각행원만 가르침 구현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종정 붕해)은 일붕 스님이 1988년 9월 16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창종한 종단(1991년 종단 등록)이다. 현재의 총 본산은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천애자연을 품은 도량, 봉황산 일붕사(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175번지)이다.

본 종의 개조 스님인 일붕 존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거쳐, 1969년 태국 탬플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6년까지 세계 각국 유명 대학에서 126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최고의 석학 스님이다. 또한 1965년 한국불교 최초로 해외(미국) 포교사 임명장을 받은 국내 최초의 해외포교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포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 1965년 미국을 시작으로 활발한 국·내외 포교활동을 펼쳤다.

일붕사, 세계 최대 동굴법당 기네스 등재
승가교육으로 모든 이 불성 찾도록 포교

이러한 포교 활동의 정신을 그대로 주창하고 있는 종단이 바로 (재)일붕선교종(www.ilbung.org)이다. 1996년 열반에 들 때까지 일생을 불법 전파에 힘썼던 개조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현재 종단소속 법사 1500여명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중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본 종은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국태안민(國泰安民)에 힘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동시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일붕선종회(현 종단의 전신) 시절인 198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일붕삼장대학원의 설립취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근본이념을 구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원의 목적이다. 이타의 보살행으로 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하고, 나아가 확고한 호국관과 생활불교관을 정립해 현대 불교가 지향하는 유능한 불교 지도자를 양성함은 물론이다. 일붕삼장대학원은 △지혜섭심(知慧攝心) △각행원만(覺行圓滿)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원훈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본 종단은 해마다 승가교육을 정례화하고 화합과 안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 위해 총본산인 일붕사에 '강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총무원 (02)998-8161

정리=김진성 기자

지구촌 재가불교의 실천방향 모색

총지종, 10월 16~20일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재가불자는 그동안 불교를 외호하는 역할로만 인식됐었다. 수행 등 불교 전반에서 출세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재가자 위상 재정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지종(통리원장 원송)은 10월 16~20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월정사 등지에서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박광서 교수(서강대), 성태용 교수(건국대), 원병관 교수(강원대) 등 국내 석학과 프란츠 그슈윈트 박사(독일, 前 뮌헨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16개국 30여 재가불자 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와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1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 대주제 발표, 18일 강원도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템플스테이 활동과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9일 서울로 돌아와 한국문화프로그램과 전통문화공연 관람도 한다.

대회조직위원장 화령 정사(총지종 중앙교육원 원장)는 "한국불교 전통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재가불교의 철학 정립과 재가불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국제교류를 확대하고자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출가자 또는 학자간 교류가 아닌 일상적 국제교류를 이루겠다"며, "재가불자들이 자신의 철학과 역할을 정립한다면 한국불교 중흥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인사들.

화령 정사는 "제1회 대회가 재가불자간 상호 소개 수준이었던데 비해 이번 대회는 ▲재가불자의 철학 ▲근대 재가불교 지도자들 ▲재가불자들의 협력방안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실질적인 논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종은 매년 국제재가불자불교도대회를 정례화해 지구촌 재가불자들의 단결과 상호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생활불교종단인 총지종을 전세계에 홍보해 종단 위상 제고와 포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령 정사는 "대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돼 재가불자들이 사회평화와 공존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재가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세계 10개국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 10월 19~23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회관 등에서 개최됐다. (02)552-1080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태 중부어린이 '체육 통해 화합 한마당'

9월 28일 이천 운동장에 어린이·신도 1000명 참석

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정산)은 9월 28일 경기도 이천 장화사 운동장에서 중부지역 23개 천태사찰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중부지역 천태어린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천태어린이 및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해 청룡·황룡·코끼리·사자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황룡팀(춘천 삼운사, 분당 대광사, 수원 용광사, 홍천 강룡사, 인천 황룡사, 이천 장화사)이 우승을 차지했다. 2위부터는 코끼리팀, 사자팀, 청룡팀 순. 단체 줄넘기는 29개를 기록한 제천 삼천사, 400m 계주는 안산 월강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선수 입장으로 시작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교무부장 유정 스님은 "기성세대는 천진한 어린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다"며 "우리 불교가 어린이를 교육하는 목표는 이 같은 천진성과 순수성을 세상의 탁류로부터 보호하고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법문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오전에 팀 피구와 단체 줄넘기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터널통과와 풍선 터트리기, 돼지몰이, 날으는 양탄자 등의 순환식 명랑경기, 사찰별 400M계주, 대동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한 번외경기인 림보, 양궁다트, 캐릭터축구, 가위바위보 뽕망치, 달려라 굴렁쇠 등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즉석상품을 타가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성우 기자

천태종 관문사 '관음정진 100만독' 입재

매일 8시간씩 55일간 용맹정진하는 관세음보살 독송 랠리가 시작됐다.

천태종 관문사(주지 정산)는 9월 24일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옥불보전에서 '관음정진 100만독'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매일 6시간 이상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중흥을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용맹정진하라"고 법문했다.

관음정진 100만 독송은 11월 17일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된다. (02)3460-5300 조동섭 기자

평창 대흥사, 대불보전 낙성

10월 18일, 전통 목조양식…4년만에 회향

천태종 평창 대흥사(주지 국성)가 4년여간의 불사를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낙성되는 대불보전은 총 면적 178㎡(약 54평) 규모로 정면 5칸·측면 3칸의 전통 목조양식으로 건립됐다. 비로자나부처님을 주불로 삼존불을 봉안했으며, 후불 탱화는 목조 판각으로 조성됐다. 법당 내외부 단청은 천연 도료를 사용해 화려함과 전통을 조화시켰다.

대흥사는 1969년 상월 대조사로부터 사찰명을 받았으며, 1980년 20평 규모의 법당으로 창건됐다. 신도 증가와 건물 노후로 법당 증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4년 10월 대불보전 건립불사가 시작됐다. 대불보전 불사 기간 동안에는 2004년 낙성된 백화당(白華堂) 4층에 법당을 조성해, 700여 신도들의 신행활동 공간으로 사용했다.

대흥사는 사찰 부지가 2만3천㎡에 이르는 만큼 향후 일주문, 사천왕문, 종각 불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전통사찰의 풍모를 갖출 계획이다. (033)333-2435

김성우 기자

태고종, 33기 합동득도 입재

행자 46명, 10월 24일 선암사서 수계식



9월 30일 열린 태고종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

태고종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이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남녀 행자 46명과 행자교육을 담당할 습의사, 총무원 집행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서 운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속의 삶을 잊고 성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서, "본 종의 승려이자 종도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진할 수 있는 올곧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수계산림봉행위원장 보경 스님(교육부원장)은 환영사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여기에 모인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교육기간이나 수계식 이후에도 분별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수행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에 참여한 46명의 행자들은 4주에 걸쳐 매일 새벽 4시 새벽예불 및 정근을 시작으로 강의, 운력, 참선,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수계산림은 10월 24일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사미(니) 수계식으로 회향된다.

김성우 기자

699호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혜암' 스님은 '회암' 스님의 오기입니다.

팔공산 은해사 제1199돌 開山大齋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설총선생, 민족의 자족·자존·자주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선사(一然禪師) 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현 은해사는 조계종립 승가대학원과 3개의 선원을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수림장을 운영 선진 장례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 오후 3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 부도전

■ 2008년 10월 12일 일요일
• 오전 10시 30분 헌공(불교전통 의식시연)
• 오전 11시 30분 개산법요식 • 오후 7시 저녁 예불 및 만등 점등식

▸ 동참금 :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접수처 : 은해사 (054)335-3318~9, FAX (054)335-0293
은해사 교구 각 말사

※ 개산대재 당일 오전 차량운행 시간 안내
- 동대구역 육교 밑 8시 출발⇒ 반야월⇒ 하양⇒ 은해사
- 포항역 7시 30분 출발⇒ 영천⇒ 은해사

은해사 수림장 안내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섭리에 근거한 수림장은 유골분을 지정된 나무아래에 봉안하는 환경 친화적 장례문화로 국내 최초로 은해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소나무와 숲에서 고인은 자연과 영원히 동화되고 유족들은 고인의 넋을 기리며 나무와 숲을 가꾸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친 환경적 장례입니다.

www. surimjang.co.kr
전화상담 : 054)335-0566

제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 주지 중 화 법 타 합장

제12회 취산 국제신과학심포지엄

"무한 행복하려면 '욕구제로'를 만드세요"

발 표 : 용타 스님(미국 삼보사 주지)
발 표 : 김종순 수녀(사랑의시튼수녀원 책임수녀)
주 제 : 영성과 코칭
일 시 : 2008년 9월 27일
장 소 :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대강당
주 최 : 미내사클럽

신과학과 의식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온 '미내사클럽(www.herenow.co.kr)' 주최 '제12회 취산(翠山) 국제신과학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모든 과학 분야를 성찰하고 그 근거를 찾아 연구하는 첨단 정보의 국제 교류장이다. 이날 행사는 코칭(Coaching · 미래지향적인 삶의 기술)을 통해 인간 근본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다. 연사 또한 20여 년 이상 사람과 삶의 근본변화를 위한 작업을 화두로 삼아 온 이들이다. 각 종교에서 진행되는 의식변화 수련의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영성 수련은 무엇일까? 그들로부터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코칭의 기법을 전수받아보자.

용타 스님

근본적인 변화-순수의식 돈망(頓忘)

지금까지 지녀온 내면의 잣대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불교에서 지향하는 해탈이란 손가락을 들어 코를 스치는 것 보다 쉽습니다. 막상 손에 쥐어 주려니 어려운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문제의식은 죽음이었습니다. 입산수도 6년 만에 깨달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세상 전부가 진리 아님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 · 유정이 부처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천하가 그대로 진리인데 그것을 모르는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둘러보니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모두 진리라는 것과 통합니다. 도가 통하는 순간 세상의 시시비비가 느슨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일체가 문제될 것이 없어진 것이죠.

내가 나의 주관성을 제치고 보면 세상만사는 여여합니다. 세상 자체는 분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파고들면 도통의 경계에 근접해 해오(解悟)합니다. 이미 의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순수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만 그 의식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순수 의식을 유별난 체험으로 오해한 이유입니다. 순수 의식 체험이 어렵다는 신념을 버리십시오.

마음속 모든 고통과 사회적인 모든 싸움의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이따금 성취의 기쁨을 주지만 거의가 좌절의 분노로 점철됩니다. 집착은 왜 하게 될까?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집착과 분노 그리고 이해부족의 어리석음은 정화하는 삶이냐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합니다. 크나큰 해탈과 자비가 인격으로 드러난 상태를 구경각(究竟覺)이라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구경각이란 행복의 극점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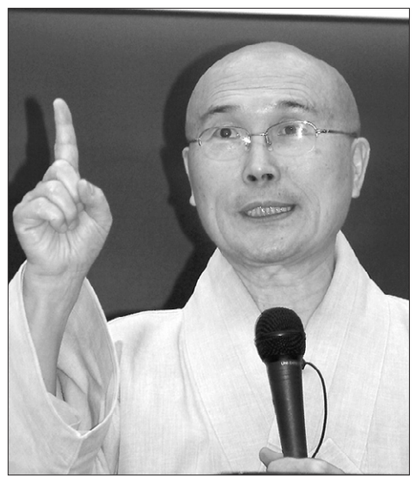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 · 해탈 · 구원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끝내 그것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참으로 마음의 해탈을 원하는가? 진실로 원하는가를 날카롭게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영성은 잘 유지돼야 합니다. 지금 갈고 닦아야만 후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해탈의 길을 찾았느냐? 그 길은 너무 많습니다.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진정 해탈하고 싶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애는 여러분의 지성입니다. 개념이죠. 삶의 편리한 도구인 개념은 옳지만 그 개념에 휘둘리면 옳지 않습니다. 중독된 지성의 테두리 안에서 해탈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반 컵의 사이다입니다. 불행하려면 반 컵 밖에 없다고 하면 됩니다. 반 컵이나 있다고 한다면 행복 99%가 확정됩니다.

행복의 원리는 '행복이란 소유에 비례하고 욕구에 역비례'합니다. 물 온도 99°c는 물의 물질적 한계에 머물고 나머지 1°c를 채우면 무한의 물질로 해방됩니다. 행복이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욕구 제로가 되는 길 뿐입니다. 1/0은 무한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란 무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손을 치우니 허공이 보입니다. 허공마저 치워 버리십시오. 유한에서 무한으로 열리는 세상이 보입니까? 그것이 진실입니다. 물감을 완전히 빼낸 원단이 보입니까?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계속 가감해 보십시오. 나의 원단 나의 자성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타 스님.


김종순 수녀.


9월 27일 열린 제12회 취산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김종순 수녀

'향심기도' -기도라는 생각도 없는 상태로 도달

향심기도(向心祈禱 · centering prayer)는 신성한 독서로 생겨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관상으로 향할 때 관상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걸림 없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관계를 이루는 영적 여정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쉬고 만나고 알게 되며 일치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왜 향심기도를 하는가? 1970년대 초 미국 코네티컷의 스펜서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토마스 키팅 신부의 권고 하에 윌리엄 메닝거 신부가 '무지의 구름'이란 방법을 도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향심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 주변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진 거짓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향하려면 이 거짓 자아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마음을 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향심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둠 즉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동(doing)이 아닌 단순히 존재(being)하려는 수용의 기도이자 수동의 기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한다는 면에서 수용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선하신 분' '무한한 아름다운이여!' 등과 같은 말로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관상으로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향심의 핵심은 '지향'입니다. 집중이 아닌 지향으로 시작되고 유지하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함에 대해 동의하는 지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독 속에서 조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정합니다. 이것은 지향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현존한다고 인정합니다. 단순 허락이 아닌 승복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탐색하는 여정으로 하나님 안에 나를 놓을 수 있는 여정의 지향입니다.

이 거룩한 단어를 조용히 의식 속에 불러들이며 눈을 깊게 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내시며 정한 단어를 의식 속에 띄웁니다. 이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흐르는 것은 모두 사고입니다. 그 사고에 내가 끌려갔음을 알아차릴 때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갑니다. 끌려가지 않았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지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면 정화되고 비워집니다. 내 안에서 불행의 뿌리가 끊어지면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자아의식은 영적 성장에서 하나의 도약 단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집니다. 향심기도는 우리의 이러한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렸던 잔뿌리까지 뽑아서 영생의 밭에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저는 동경이라는 말을 그리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 · 진리 · 생명으로 표현하며 그리움의 축으로 삼습니다. 아름다운 여정이죠. 이 둘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뿌리로부터 해방하는 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거듭 내 안의 장애를 제거하도록 돕는 하나님은 나를 확장시켜줍니다.

수행은 새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영생밭에 심는 것
관계 풍성히 하는 것이 삶의 기술 …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정리=가연숙 · 김진성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0월 15일 수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쉬운 해설로 선문에 도달할 수 있어



육조단경
혜능 대사 지음 | 광덕 역주
불광출판사 펴냄 | 2만원

'자성(自性) 즉(卽) 진불(眞佛)이라.'

법해 스님에 의해 집성된 중국 선종의 제6조 혜능 대사의 어록 <육조단경(六祖壇經)>이 난해했다면 광덕 스님의 해설로 역주가 더해진 송천사(松川寺)판 <육조단경>을 권한다. 진리를 구하고 근원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어록에서 이르는 차제를 따라 선문에 도달하도록 한다.

육조 스님의 최초 설법은 무슨 내용일까? 오도(悟道) 득법(得法)의 경위가 밝혀진다. 의법을 받고 시기하는 무리를 피해 16년 동안 사냥꾼들과 섞여 지내다 법성사에서 인종 법사의 눈을 열어준 것을 계기로 삭발 수계하고 조계로 나와 설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하고 있다.

광덕 스님 역주의 <육조단경>은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해 받아 유통을 부촉하는 과정을 총 10장으로 나눴다. 몽산 선사의 서(序)와 법해 선사의 약서(略序)를 머리에 두고 끝으로 부록과 여러 선사의 발문을 실었다.

가연숙 기자

행복 찾는 이에 대한 해답



마음의 고향4-무아 · 무소유법문
청화 스님 지음
상상예찬 펴냄 | 1만1000원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제10조)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조금 더 나아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정작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무슨 이유일까?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마음의 고향 제4권 – 무아 · 무소유법문편>이 출간됐다. <마음의 고향> 시리즈는 미국 삼보사에서 진행된 '순선안심탁마법회'에서 청화 스님(前 조계종 성륜사 조실 · 2003년 입적)이 펼쳤던 법문을 담은 법문집이다. 이번에 발간된 4권은 '본래 고유한 내가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보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화 스님은 법문집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욕망과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추구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비어 있으나 공허하지 않고, 잡히지 않으나 늘 품고 있는 마음의 근본, 참다운 생명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성장할 수 있다'는 스님의 법문을 따라 자신을 비우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자신과 만난다.

김진성 기자



한지유의 사찰 문화재 기행 한지유 지음|여래 펴냄 | 1만5000원

사찰을 이해하면 한국역사가 보인다

한국불교를 아는 것은 한국사를 아는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사찰 배치와 윤회 세계를 연계 조명한 길라잡이 서적 <한지유의 사찰 문화재 기행>이 출판됐다. 현장에서 사찰 문화재를 안내해 온 저자가 신앙 비교사를 통해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 신앙의 의미를 살핀다. 역사 속에서 중생의 삶 · 현실 생활 가운데서 진리를 위한 삶 · 향후 불교인의 역할과 전망까지 고민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를 농축했다.

저자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친 사찰의 석등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불교의 시각과 교리에 의해 철저히 배치된 존재임을 알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새겨 볼 것이라고 전한다. 종교는 원래 자연 앞에서 유한의 존재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견해다. 화려한 예술성과 뛰어난 과학성이 결합된 불교를 문화로 보유한 한국의 전통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동안 한국불교를 향한 자부심이 배양된다.

#천상에서 전해준 비밀

전통 사찰에서 조형물과 마주할 때 뭔가 아쉬움이 든 경험이 있다. 제작 목적이 불분명하고 문화재적 가치나 미술 작품으로만 강조된 까닭이다. 불교 조형물 안에 깃든 사상적 기반을 알고 다가간다면 관람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저자는 사찰 안내판으로 해소되지 못했던 사찰의 비밀을 불교적인 맥락에서 접근한다. 수미산의 상징인 사찰에서 처음 만나는 당간으로부터 시작해 불국토의 표상인 불전과 수인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명칭들의 유래를 살핀다.

#부처와 장인의 숨결

불교의 세계관을 파악하면 사찰의 각 구조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조성된 사리탑과 조사를 모신 부도를 설명했다. 시대의 장인에 의해 장엄된 사찰 곳곳의 조형물에 대한 기본 용어들은 당신을 문화 지식인으로 만들어 준다.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 신앙의 의미를 조망해 온 저자는 사찰 조형물이 조성된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문화와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본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파라미타 문화재 모니터링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생활문화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인 저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의식이 완성한 한국의 사찰 문화재 기행집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인문적 교양을 두루 얻을 수 있는 교양서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
이덕일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 | 전2권 각 1만1000원

조선 숙종 시대는 불교의 황금기였을까?

사찰을 즐겨 찾는 사람이나 유적답사를 위해 사찰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쯤 사찰 안내문을 통해 '조선 숙종 때 중창'이라는 문구를 읽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등사 · 통도사 · 범어사 등 수많은 절들이 숙종 때 중창불사 됐기 때문이다. 성리학만이 정도이고 다른 사상은 사도로 취급받던 시대에 많은 사찰이 중창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는 사학자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소장이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소설이다. 필자는 당시의 중창불사가 "막바지까지 간 성리학 사회에 반기를 든 불교 세력과 민중들에 대한 회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며, 당시의 상황을 문학적 이야기 전개와 역사적 평설로 조합하고 있다.

<숙종실록>은 '숙종 23년(1697년) 운부라는 승려와 풍수사 이영창이 조선을 멸망시킨 후 정몽주의 후손을 임금으로 삼는 새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 청나라를 공격해 최영 장군의 후손을 임금으로 세우려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이영창 문초 기록> 등 당시의 역사서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 사료와 사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소설로 완성했다.

조선 숙종조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와 관련된 인문적 교양을 두루 얻을 수 있는 이덕일 소장의 야심작이다.

김진성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뜰	원철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6	하늘이 감춘 땅	조연현	한겨레출판사
7	인과경	현담	선
8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10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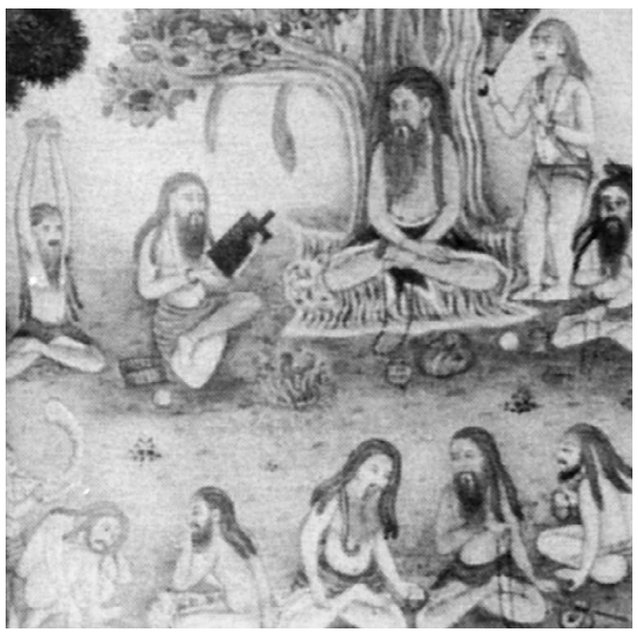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연료비 90% 절약
전자파 없고 모터없고 소음없는 무동력 온수매트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전선이 아닌 온수순환 방식으로 전자파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성장하는 어린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금사원단
☑ 활성탄
☑ 3단접이 보관
☑ 완전 방수기능
2009년형 신제품
특허품 : 무동력 히팅순환기
2009년 무동력자연순환방식 특허보일러로 더욱 편리하고 고장율이 적습니다.
■규격 :2인용 : 1400×2000×40 (±5)
1인용 : 950×2000×40 (±5)
후불제 판매단행!
웰빙 온돌방의 특장점
웰빙 온돌방 온수보일러는 모터작동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이 아닌 무동력(자연순환방식)이라 고장률이 거의 없으며, 모터회전에 의한 소음이 없습니다.
• 무동력 디지털 보일러 기존의 강제순환방식(동력)에서 벗어나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모터없이 물을 자연순환시켜 소음이 없고 가열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발열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가뿐한 웰빙 온돌방입니다.
특허청 ▶10-2008-0002113 ▶10-2008-0009761 ▶10-2008-0019875 ▶10-2008-0064719
국제특허 : PCT/KR2008/003038
※무단복제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전자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며 뇌파침전도 검사 결과 수면방해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면역력에 문제가 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5년 5월 『전기장판은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 침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침대 · 온돌겸용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가 따뜻하여 아주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큽니다.
현금가 : 1인용 218,000원 2인용 248,000원
지로분할가 : 1인용 : 52,000×5회 / 2인용 : 59,000×5회
대진하우징 주문전화 080-338-3388
입금계좌 (농협) : 1285-02-011378 이현실

인도 정신·힌두의 다양성 포괄적 설명

譯者, 책을 말하다

이 책은 원제 그대로 요가전통(Yoga Tradition), 다시 말해서 고대 베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요가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8년에 처음 출판된 이 책은 요가에 관한 역사, 문헌, 철학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서 실천수행의 방법까지 한마디로 요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가에 관한 종합적인 입문서

지은이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 박사는 요가 전통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요가수행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14살 때 폴 브룬턴(Paul Brunton)의 저서 <A Search in Secret India>를 접하고 나서 이후 요가의 길로 매진하면서 다양한 요가서적들을 접하고 위대한 요가수행자들을 만나 직접 영적인 수행을 실천했다. 또한 그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Yoga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YREC)'의 설립자 겸 소장으로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요가의 철학, 역사, 수행법 등에 대해 가르치는 한편 학술논문들과 많은 대중적인 작품들을 집필했다. (현재 이곳의 사이트는 활동이 멈추어진 상태로 지은이의 또 다른 사이트인 TRADITIONAL YOGA STUDIES(TYS: www.traditionalyogastudies.com)이나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ga Therapists(IAYT: www.iayt.org) 로 연결된다) 현재는 전통요가연구(TRADITIONAL YOGA STUDIES: TYS)라는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의 이론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린요가(Green Yoga)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의 수많은 저서들 가운데 <딴뜨라(Tantra: The Path of Ecstasy)>와 <요가의 세계(Yoga: The Technology of Ecstasy)>는 이태영 박사에 의해 비록 요약본의 형태이지만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다.

이 책은 지은이가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30년 가까이 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요가에 열중한 결과의 진수로 요가에 관한 종합적인 입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1989년 <요가: 무아경의 기술(Yoga: The Technology)>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의 개정판겸 증보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개정판이 아니라 분량도 두 배 이상 늘었고 새로운 내용과 요가에 관한 주요한 산스크리트 경전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포함시킴으로써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인도의 정신 힌두의 다양성 포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의 정신, 특히나 힌두의 다양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최근까지 요가의 발전에 대한 학문적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요가의 놀라운 복잡성뿐만 아니라, 인도의 복합문화의 각기 다른 면들이 밀접하게 상호연관을 맺으면서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인도만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요가의 변화와 성장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요가의 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과정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은이는 요가에 관한 주요 경전들을 발췌하여 함께 수록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요가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이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책은 원서든 번역서든 아니면 저작이든 간에 요가에 대한 저서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요가사상과 수행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요가수행을 하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 역시 자신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의심을 품고 있던 문제점들이 이 책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혜의 요가와 행위의 요가

<요가 수뜨라>에 의하면 요가는 '마음작용의 멈춤'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인도적 관점에서 인간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본래의 자아, 마음 그리고 몸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마음은 자아와 몸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없이는 영혼의 본질을 알 수 없다. 또한 마음에 대한 자각은 단순한 지적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가에는 크게 지적인 방법(Jnana-yoga: 지혜의 요가)과 실천적인 방법(karma-yoga: 행위의 요가),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한다. 요가는 바로 이러한 자각을 위한 다양한 길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가는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한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요가를 무분별하게 만들어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요가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마구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옮긴이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요가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요가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지만 높아지는 대중적 관심에 비해 요가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론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옮긴이는 인터넷 서점을 통해 필요한 책들을 찾던 중 우연히 지은이의 책을 만나게 되어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하여 강의 교재로 활용하면서 완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출판을 계획한 지 몇 년이 지나 요가에 대한 무분별한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보다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요가의 본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우주의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요가전통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 지음
김형준 옮김|무우수 펴냄|3만8000원

역자 김형준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 후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1993년)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 강의전담 교수를 역임 했으며 현재 건국대 한경대 한국외대에서 강의하며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불교와 인도사상> <동양종교와 서양사상> 등을 옮기고 엮은 책으로는 <이야기 인도사> <이야기 인도신화>가 있고 공저로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등이 있다.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오진탁 지음
세종서적 펴냄/1만2000원

'잘 죽기'는 '잘 살기'의 완성 조건

1.자살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2.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3.자살은 끝이 아니며, 자살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4.우리에게는 자살권이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권리만 있기 때문이다.
5.자살은 남은 사람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6.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생사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다.

자살,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자살이라는 말이 일상화 되어 있다. 재벌총수가 한강에 투신하고 유명 연예인이 자결을 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런 가운데 죽음이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온 것이다. 심지어 자살을 충동질 하는 사이트까지 은밀하게 성행을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세상은 떠들썩하게 웰빙(Well-bing)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잘 죽기, 웰다잉(Well-dying)은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제 웰빙과 웰다잉이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한 바람몰이에 생사학이 있다. 죽음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삶을 빼지 않고 웰다잉을 추구함에 있어 웰빙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비결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자살 관련 뉴스를 들으면 대부분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부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자살에 관련된 철학적 사색과 사회적 문제,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생사학이 출현하고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은 자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10년간 자살자의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한림대학교에서 생사학연구소를 운영하는 오진탁 교수는 "죽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자살을 양산해 내는 근원적인 이유"라고 간파한다. 오 교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자살유형과 그 근저에 깔린 원인들을 분석했다. 또 각종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꼼꼼하게 체크 했다. 그러한 작업을 종합적으로 묶은 이 책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명백하게 짚어 낸다. 책의 말미에서 오 교수가 힘주어 말하는 한 대목은 웰빙과 웰다잉이 둘이 아님을 잘 이해시켜준다.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자살 선택
"자신의 의지 따라 웰다잉 이룰 수 있어"

"자살은 올바른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빙(Ill-being)이다. 자살은 사회병리적 문제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중략) 웰빙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간주되어 쉽게 간과되고 있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들 잘 죽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웰다잉이야말로 웰빙을 완성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임연태 기자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밤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신심명 / 증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환단고기 전5권 / 법융선사 심명 / 선가귀감 /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본래 자기의 눈을 뜨고 있어라"

오늘의 禪語 ㊳ 주인공

'주인공'은 흔히 소설이나 연극 · 영화 등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또는 어떤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핵심이 되는 인물,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여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곧 죽을 듯하면서도 끝내 살아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비록 픽션이지만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 나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주인공이 죽는 영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의 마음입니다만 주인공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영화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禪)에서 주인공이라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선에서 주인공이란 영화나 연극에서 주인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자기'를 가리킵니다. 옷을 입은 형상적 자기가 아닌, 화장을 짙게 한 가식적 자기가 아닌, 그 형상과 육체를 지배하는 '본래적 자기'를 가리킵니다.

주인공을 요즘 말로 정의한다면 아마 '자기 자신의 실체' 또는 '자신의 주재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존재' 또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관찰, 컨트롤(주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힌두이즘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의 주체자인 아트만이나 영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전생과 내생 그리고 금생을 오가면서 한 인간의 생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영혼이나 아트만 또는 그 일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란 '사물을 보고 듣고 지각할 줄 아는 존재' 즉 '마음'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아닌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인공과 관련한 재미나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말 서암사에 사언(師彦, 생몰연대 미상) 화상이라는 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큰 소리로 "주인공아!" 하고 부른 다음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고는 "눈을 떠라, 깨어 있는가?" 하고 물은 다음 스스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느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 하고는 스스로 "예! 예!" 하고 자문자답했다고 합니다.

사언 화상의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주재자 즉 주인공을 항상 불러서 부단히 스스로를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해 안일과 무감각, 방일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에 물탄 듯 흐리멍텅한 상태로 앉아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좌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 즉 안일에 빠집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건 학자건 사업가건 좀 편안하다고 해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의 무덤이 됩니다. 그러므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합니다. 깨달음도 그 자리에 안주하면 집착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느 날 어느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는 말은 '자기의 눈(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저것이 깨달음이다'라는 말에 속지 말고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즉 안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은 절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말만 듣다 보면 일평생 허둥대다가 끝나게 됩니다. 다행히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함께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참고는 하되 지나치게 추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속지 말라'는 말에는 언어의 화려함이나 문자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언어나 문자로 기록된 글 속에는 일정 부분 과장이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한문은 기본적으로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사언 선사는 이와 같이 항상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불러서 스스로 안일로부터,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방치되는 일 없이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교나 선을 모르더라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 무심코 "너(주인공)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울에 나타난 자기는 '감성적 자기'이고, 묻고 있는 존재는 '이성적 자기'로서 그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주인공을 잘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가슴이 떨립니다. 두근두근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주인공" 하고 부른 다음 "절대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라고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사물을 보고 듣고 지각할 줄 아는 마음이 '주인공'
깨달음도 안주하면 집착 … 주인공 불러 평상심 유지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중생 향하는 모성애가 지장보살 성품

㊳ 광목

지장보살의 전생 여인, 어머니 구하려 공양
예배·공양 공덕은 일체중생 부처님으로 보는 것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전생담이 남성으로 2번, 여성으로 2번 모두 4번 등장한다. 그중 여성으로 묘사된 전생담은 아주 구체적이고 극적이다. 남성으로 태어난 전생담이 "전생에 왕자나 왕의 신분으로 원력을 세웠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록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아마도 지장보살과 같은 큰 원력은 자비롭고 헌신적인 여인들의 성품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리라.

<지장경>에 묘사된 지장보살의 첫 번째 전생 여인은 과거 아승지겁 전 각화정자재왕여래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 갖은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여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각화정자재왕여래 앞에 공양을 올렸다. 그는 지옥의 무독귀왕으로부터 자신의 기도로 그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함께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들까지 모두 구제됐다는 말을 듣고 큰 원력을 발했다. 그리하여 그는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성불하지 않는 보살로 남은 것이다.

지장보살의 두 번째 전생 여인은 무량 아승지겁 전 청정연화목여래 시대에 광목(光目)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광목의 어머니 역시 살아생전에 물고기와 자라새끼를 많이 죽이고 먹은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고 있었다. 광목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광목의 어머니를 지옥에서는 구제해주셨으나 수명이 매우 짧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종으로 태어난 그의 어머니가 지옥의 과보가 매우 괴로웠음을 이야기하자, 광목은 큰 서원을 발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백천만겁 동안 지옥과 삼악도의 모든 죄고(罪苦)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들이 성불한 연후에야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러한 큰 서원으로 광목은 후에 지장보살이 됐고, 그의 어머니도 해탈보살이 됐다.

이와 같이 <지장경>을 보면, 여인이었던 광목과 바라문의 딸이 지극한 공양을 통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양이 그토록 거룩한 과보를 낳는 수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불공양(諸佛供養)이 중생공양(衆生供養)이요,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능히 중생을 수순(隨順)함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함이 되고,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여래를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여래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화엄경> '보현행원품')

참된 예배와 공양의 공덕은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보는 눈을 갖추는 것이다. 미운 사람, 잘못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증거이다. 동료와 이웃, 남편과 아내를 불 · 보살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 얼굴에 짜증 안 내는 것, 입으로 악담하지 않는 것이 돈 안 들이고 불공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을 찬탄하거나 미소 짓는 것은 마치 묘한 향을 토해내는 것과도 같다. 스스로의 아만을 꺾고 인욕 · 하심하며 남을 공경하는 공부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가 보살이 되어 있을 것이다.

광목의 보살도(菩薩道) 수행을 보면, 자비심과 원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 수 있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은 실제로 보살행을 거듭해 위대한 지장보살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품, 특히 모성애는 한량없는 자비심과 동일시되니 이것이 곧 부처의 성품과 다름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추운 겨울, 떨고 있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땅으로 몸을 숨겼다는 지장보살. 만 중생을 포용하는 그런 헌신적인 성품이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만 중생에게 향하는 것이 곧 지장보살의 성품이고 원력인 것이다.

"나와 더불어 널리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간경, 참선, 염불,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이 사홍서원, 법장 비구의 48대원과 보현보살의 10대행원, 지장보살의 대원(大願) 등 발원과 연계될 때 정진과 보살행은 비로소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만 중생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떠나라"하셨듯이, 대승보살이라면 바라밀행 가운데 여래의 길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지장에서 미륵까지' 템플스테이=**호남불교문화원은 10월 10~12일 '지장에서 미륵까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김제 금산사와 고창 선운사를 순례하고 주지 원행 스님과 차담을 나눈다. 새벽에는 심원암, 도솔암 숲길을 걷는다. 참가비는 1인당 20만원이고 35명 선착순 접수한다. (062)383-3538

● **대용맹정진=**부산 해운정사는 10월 13~16일 대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참선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동참금은 4만원이다. 16일 회향 후 재가오계 수계식이 이어진다. (051)746-2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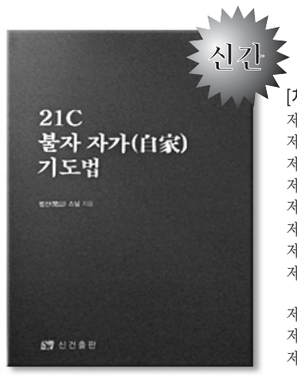
●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오대산성지 월정사에서 12월 9일까지 제19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2009년 1월 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단기출가학교는 삭발염의 등 행자생활을 직접체험한다. 수행경비는 60만원. (033)332-6664

● **위빠사나 수행 기초=**한국 위빠사나 선원은 10월 15일 서울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수행기초과정을 개강한다. 수행 이론, 경행, 좌선, 면담 등 수행기초이론 강의와 실제수행을 병행한다. 매주 월 · 수요일 14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자율보시다. (02)512-5258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112회 3000배 용맹정진
강력한 대긍정의 밝은 기운! 찬란한 부처님 가피! 소원성취 저절로…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8년 10월 11일(토) 저녁 9시 ~ 2008년 10월 12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신규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옷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 · 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경전 공부와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불서총판 운주사 / 법우당 및 전국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대표직통 010-4581-484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승단의 계율 해이해지면 교단도 무너져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출가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또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돌아다닐까 생각하면 뼛속깊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는 법혜 스님은 불가와 인연 맺은 것에 대한 감사로 말문을 열었다. 스님의 눈은 예지로 빛났고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동국대 종비생 5기인 법혜 스님은 백상원 기숙사에서 지낼 때 도반스님들이 ‘해인사 율사’라는 별호를 지어 불렀다. 별 융통성이 없고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행하니 도반들이 그러한 별호를 지어준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별호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혜 스님의 주위에는 계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은사이신 도원스님은 율사였기에 평소에도 계율에 관해서 많이 듣게 됐으며, 대학에서도 자연스럽게 계율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교단을 유지하는 데는 계율이 수명이라고 했어요. 계율이 전승되지 않고 전수되지 못하면 교단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교단이 존재를 못하면 불법이 단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법이 중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이어받을 교단, 즉 승보가 있어야 합니다. 승보를 지탱하는 것은 계율인데 계율이 해이해져 자체적으로 타락해져 버린다면 그 교단은 무너지게 됩니다.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킨다면 승가의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혜 스님은 속가 나이로 17세 때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강원 졸업 후 영암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회계소임을 맡았다. 돈 만지는 일이 생리에 맞지 않아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자,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그 뒤 몰래 대구로 도망 나와서 시내 사찰에 머물면서 대학입시 공부를 했다. 법혜 스님은 부처님 법이 좋고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 열일곱의 나이에 출가를 했을 정도로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다. 대입 검정을 거쳐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 대학원 과정까지 끝냈다. 체질적으로 병약했던 법혜 스님은 동국대 석사학위를 마치고는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접고 치료를 겸해서 대구에 대각사를 지어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던 보광 스님이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권했다. 법혜 스님은 “이런 몸으로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공부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보광 스님은 대각사 신도들을 설득해 법혜 스님을 일본 유학의 길로 나서게 만들었다.

“다른 스님들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저는 신도들이 생활비를 보내 주어서 수월하게 공부했지요. 그리고 동국대와 일본 대정대가 자매학교라 등록금이 면제됐으니 공부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대정대학에서 <능엄경>을 연구해 <돈황본 능엄경 연구>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능엄경>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 몸을 무리해가면서 연구를 했더니, 그만 다리가 마비되는 병을 얻게 됐다. 학위논문 받을 때도 다리를 절면서 겨우 단상에 올라가 받았다. 그래도 스님의 연구는 헛되지 않아 <능엄경> 연구로 ‘한일불교문화교류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1988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계율’과 ‘불교윤리’를 후학들에게 가르쳤다. 이십년 동안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정년을 서너 해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했다. 경주 정각원 원장을 여섯 번이나 연임했을 정도로 학교의 법혜 스님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

법혜 스님은 ‘대구사원주지연합’ 회장 소임을 맡아 지역 불교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 불자들의 소원이었던 ‘불교대구회관’을 건립해 6층에 만불보전을 조성했다. 그리고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마하야나 불교대학’을 열어 재가 불자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스님은 이런 이력에 대해 전부 다 역대 회장들이 일구어 낸 일이라면서 손사래를 쳤다.

올 팔월에는 <칙수백장청규 역주>라는 책을 펴냈는데 몸이 따라 주지 않아서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법혜 스님을 두고 주변에서는 건강을 망쳐가면서 책을 쓴다고 비난 아닌 비난을 했다.

“건강을 지킨다고 한들 백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고 방일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몰아부쳤지요. 부처님 은혜, 은사스님, 법사스님, 신도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태산 같은데 조금이라도 갚고 가야지요. 건강했다면 오히려 망상을 피웠을지도 모르지요.”

도반들이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건강도 해치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농을 하기도 하지만, 법혜 스님은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하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위법망구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역주한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와 <칙수백장청규 역주> 두 권의 책이 후배들에게 ‘청규’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니 다행한 일이라면서 웃으신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은사스님께서 손수 먹물을 들여 장삼을 만들어주시고 발우가사를 전해주시고, 중노릇 잘하라고 항상 경책해주셨는데, 그런 은사님께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계 · 정 · 혜 삼학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혜의 완성인데, 지혜 완성의 첫 시작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려면 계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율부터 실천해야 올바른 참선이 됩니다. 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정이 생기지 않아요. 교육이 계 · 정 · 혜 삼학 순서를 지켜서 행해야 지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보급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좋은데 불교를 세속화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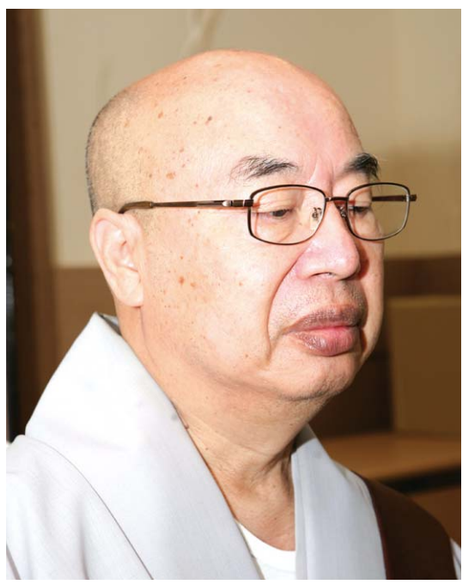
<칙수백장청규 역주> 등 청규에 관한 책을 펴낸 것은 ‘선종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단의 지율청풍(持律淸風)을 발원하면서 작업한 것’이라면서 “선방스님들이 조선조 오백 년의 모진 숭유억불 정책을 견디어 나왔고, 일제 강점기에 정법이 유린당하는 그 속에서 비구선방을 유지했어요. 선방스님들이 계율을 지켰고, 선방스님들이 참선을 했으니 한국불교를 유지하는 것은 선방스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니 승가는 비구계를 재가자들은 오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하는 길임을 깨우쳐주었다.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법혜 스님을 뵙고 불교대구회관을 나서는데 왜 그리도 가슴이 아픈지…. 뺨에 와 닿는 한줄기 바람이 참으로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지혜의 완성은 계율 지키기에서 시작**
>
> **부처님 법 잘못 보급 ‘불교세속화’ 곤란**
>
> **건강 안 돌보며 저술…“은혜 태산 같아서”**







선지식을 찾아서 법혜

법혜 스님 (前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학장)

1957년 해인사에서 진제도원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1년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 수지. 1972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1975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1988년 일본 대정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3년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문화대학 학장 및 정각원장 역임. 지금은 대구 대각사에 주석. <율장> <불교윤리학논집>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 <칙수백장청규 역주> < 돈황본 능엄경의 연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8 비름나물

비름은 길가나 밭에서 자란다. 인도를 원산지로 한국 · 타이완 · 중국 · 말레이시아에 널리 분포한다. 높이는 1m 정도이며 굵은 가지로 뻗어 자란다. 잎 형태는 어긋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넓은 달걀 모양이다.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 양면에는 털 없이 잎자루만 있다. 잎(靑) · 줄기(赤) · 꽃(黃) · 뿌리(白) · 씨앗(黑)이 오색이라 오행초로도 불린다.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해 장명채(長命菜)라고도 한다.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 … 장명채(長命菜)' 로 불리기도

어린 순은 나물로, 뿌리는 해열·해독·최유·소종에 쓰여

비름은 한국의 들에서 자라는 어린 순은 나물로 뿌리는 해열 · 해독 · 최유 · 소종 등에 쓰인다. 비름은 차가운 성질로 맛은 담백하다. 시금치와 비슷하게 생긴 비름의 어린 순을 국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을 공급받는다. 생잎을 찧어 뱀이나 벌레 물린 곳 또는 치질 · 종기에도 바른다. 잎과 줄기를 전부 말리거나 씨를 말렸다가 달여 마셔도 좋다.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물고 씨는 설사를 멈추게 해 부종도 완화 시킨다.

비름은 각종 난치병을 고쳐주는 신비의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락 심경 · 대장경에 작용해 해열 · 해독 · 이뇨작용을 하며 어혈을 없애는데도 효과 높다. 연한 순을 뜯어 데쳐서 찬물로 우려 낸 다음 양념해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몸속의 나쁜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 피부에 생긴 염증이나 종기에 생으로 찧어 붙이거나 설사나 만성 대장염에도 죽을 끓여 섭취하면 좋다.

비름과에 속하는 식물은 10여 종이 있는데 개비름은 본래 유럽식물로 번식력이 강하다. 3월에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므로 농가에서 주로 재배 한다. 들에서 채취해 장터에서 파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시금치보다 구미를 돋우는데 탁월해 봄부터 가을까지 어린잎을 계속 식용할 수 있다.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거리로 이용한다. 파를 조금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에 버무리는 것이 우리 식성에 맞다. 쓰고 떫은 기운이 전혀 없어 가볍게 데쳐 조리하면 된다. 산촌 (02)735-0312



비름나물 재료 : 비름나물, 간장, 참기름, 깨소금.

만드는 법
① 비름나물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친 다음 찬물에 얼른 담가 식힌다.
② 5cm 길이로 썰어 물기를 짠 다음 간장과 깨소금을 넣고 간이 골고루 배게 무친다.
③ 참기름을 넣고 살짝 무쳐서 낸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12

"금강선원 천혜의 수행처로 가꿔지길…"

평생 수행자락을 놓지 않은 서강 스님은 남은 생도 묘관음사를 찾는 대중들을 끌어안으며 수행하며 살아갈 수행자다. 스님이 있어 묘관음사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한국 불교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뽕잎차 한잔 다려 놓고 향곡 스님이 남긴 임종게를 읊어본다.

목인은 고개 위에서 옥피리를 불고
석녀는 시냇가에서 춤을 추도다.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영원히 밝고 밝아 언제나 수용하리.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금강선원 앞 소나무 두 그루.

유잠산은 금강선원 뒤에 자리해 복주머니 형태로 금강선원을 감싸고 있다. 기암괴석이 즐비한 유잠산은 좋은 기운을 가득 품은 명산이다. 이런 유잠산 아래 자리한 금강선원의 절 앞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절터가 문중터라 산소의 도래솔이 오랜 역사를 품고 절로 들어오는 길에 늘어서있다. 헌데 문중에서 소나무들을 팔았다며 캐야한다고 말했다.

금강선원 가족처럼 여겼던 절 앞 소나무들을 캐야한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일부지만 문중터를 사용하고 있어 그네들 뜻을 반대할 수도 없었고, 물색없는 출가자 신분에 소나무를 대신 사둘 여건도 아니었다. 가진 것이 없고 여력이 안돼 절 앞 소나무 두 그루만 겨우 지켰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 좋은 터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 이 가슴 아프게 와 닿는다.

자작작수(自作自受)하는 마음으로 불사를 하며 선원건립 기초를 다져왔다. 다져진 기초 위에 뼈대를 올리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심 있는 불자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평생 출가자로 살터라 갖고 못 가진 것에 무슨 집착이 있겠냐마는 많은 이들이 금강선원을 찾아 마음 편히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칠불선원에서 용맹정진하는 범허 스님이나, 묘관음사에서 불법을 전하는 서강 스님처럼 금강선원이 어서 자리잡히길 부처님께 발원했다. 불가의 인연자리가 이곳 금강선원에도 닿아 천혜의 수행처로 속세의 이들이 마음 한 자락 쉴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원하고 원한다. (055)931-9590 (끝)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5 우울증2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마음 조화롭게 하려면 '일체유심조' 로 사고하라

 # 우울증 치유의 비밀

◇ 첫번째 비밀!

① 자신의 관점을 변환시키는 마음 바꾸기(changing mind) 훈련

우울증을 겪는 이들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 특별한 이유나 증거도 없는데도 임의로 부정적 결론이나 추측 등을 하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상황에 집중한다. 무리한 일반화나 특히 긍정적 부분에 있어 성급한 결론을 내거나, 축소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본인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싶다면 두뇌 인식구조를 변경해야만 한다. 의도적으로 두뇌를 단련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마음가짐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조건 등은 내 마음에서 근본이 비롯되고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을 중심 사고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지를 확실하게 각인한다.

첫째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0으로 한다."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는 식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았던 댓가나 반응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설령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기에 행위 그 자체로 만족한다.

둘째 "~때문에는 없다."

이 세상 어떤 일도 누구 때문에는 없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혹은 그녀 때문에 등. 화나거나 슬프거나 하는 주체는 누구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 때문이다.

◇ 두번째 비밀!

②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명상

운동과 식이요법, 명상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심신의 병은 식생활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정제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음식(빵, 파스타, 아침 시리얼, 국수, 흰쌀, 각종 디저트, 사탕, 청량음료, 과일쥬스) 등을 과다 섭취하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설탕으로 인해 발생되는 육체, 정신의 복합적인 질환들을 '슈거 블루스(sugar bluse)'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다 한 순간에 곤두박질치게 만든다. 심신도 그만큼 급격히 다운되고 우울해진다.

◇ 세번째 비밀!

③ 세로토닌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생리적으로 우울증은 뇌 속 화학 물질 균형이 깨진 결과다.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이 낮아진 것으로 우울증 환자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 약물을 복용해 세로토닌 분해를 막고 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자연적 방법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세로토닌은 햇볕을 좋아 한다." 잠시라도 밖으로 나와 따뜻한 가을 햇살을 즐겨보자. 나도 모르게 기분이 편안해지며 안락해짐이 느껴질 것이다. 이는 행복지수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DHA형 어유(魚油)는 세로토닌을 조절 한다." 세계에서 생선 섭취율이 가장 높은 일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세계최저다. 반대로 생선을 가장 적게 먹는 뉴질랜드인들은 발병률이 일본인들에 비해 50배나 높다.

셋째 "세로토닌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세로토닌이 감소해 짜증, 우울뿐 아니라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진다. 세로토닌 감소는 이유 없이 늘 피곤하다는 증세로도 찾아온다.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달고 산다고 말한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까지 감소시킬 것인가, 웃음으로 증가시킬 것인가?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02)576 -7575 (계속)



2008년 '성신의 춤향기' 최윤실 총예술 감독

호흡의 禪이 드리운 교방춤의 향연속으로

'춤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는 생각으로 무대 위에 서는 춤꾼 최윤실.

단지 춤이 좋다는 이유로 결성된 성신여대 소속 성신예술단은 '성신의 춤 향기' 를 10월 8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선보인다. 전통이 문화가 되는 시대, 한국인의 혈맥 속에 신명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는 기획(동국예술기획 대표 박동국)으로 전통의 외길을 고집스럽게 걸어온 춤꾼들의 향연이다.

총 예술감독 최윤실 교수(45 •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한국무용)는 (사)흥청무보존회 회장으로 서울 • 경남 • 전남에 지부를 두고 활동 중인 '진주 교방 굿거리 춤 경남도 무형 문화재 21호 이수자' 다. 그러한 그가 진두지휘하는 '성신의 춤 향기' 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천년 학의 고결함으로 거듭난다. 사십여 성상(星霜)을 헤아리는 그의 춤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기생의 전승, 恨을 넘어 願으로

"어머니가 진주에서 교방 굿거리 춤의 대가 김수악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 덕에 숙명처럼 춤을 익혔죠. 언니를 대신해 무용을 배웠는데 기생의 춤이라는 편견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가 말보다 앞서 춤을 배운 것이 4세 무렵이다. 논개의 의암 바위로 유명한 진주는 교방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도시였다.

"진주에도 평양 · 동래처럼 기생 양성 학교 권번(券番)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조선 후기 마지막 춤 사범 강옥남 선생을 만났지요. 춤꾼으로 완성되는데 근간이 된 시절입니다."

외형에서 전해지는 화려함 때문일까? 기생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춤에 대한 열정을 북돋았다. 기생의 희로애락 뒤에 감춰진 애환을 교태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려 했고 그 정수가 '동래 교방춤' 이 됐다.

지난 인생을 추억하자니 팔 할의 공이 어머니의 헌신이다. "어머니가 욕심이 많았어요. 전통무 · 창작무 상관없이 명인의 명무가 있는 곳이라면 저를 데리고 갔죠." 살풀이는 부산에서 황무봉 선생, 한국 무용과 창작무는 서울을 오가며 최현 선생, 前 국립 무용단 단장 국수호 선생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대가들 밑에서 무용 수업을 받은 그는 강옥남 선생에게서 전통 무용의 진가를 본다. 그리고 "이게 진짜 춤이구나" 싶었다.

'흥청' 은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라는 뜻이다. 스승 강옥남의 흥청무(興請舞) 역시 태평한 운수를 만난다는 의미를 지닌 운평(雲平)으로 미색이 뛰어난 인물만 선별해 교육됐다. 흥청 중에서도 임금의 승은을 입게 되면 '천(天)과 흥청' 이라 불렸는데 유독 최 교수는 교방춤을 즐겼다. 이후 스승의 구연과 춤사위를 그대로 전수받아 흥청무를 재현하는 선구자가 됐다.

#보덕행 보살의 춤사위

"어디 숨어있던 보석이냐!"

대금의 명인 이생강 선생도 최 교수의 춤에 탄성을 자아냈다.

"호흡을 끌어 당겨 춤사위를 나눠야 살아있는 춤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은 춤이나 마찬가지예요. 깊고 강한 호흡이 미간까지 올라와 눈빛에 머물면 저절로 객석의 시선이 압도됩니다."

진주 교방 굿거리 춤의 '앉은 사선학체' 를 시연해 보이는 그의 자태는 가을의 애절함이 묻어나면서도 고고한 학의 몸짓을 닮았다.

그의 법명은 '보덕행(普德行)' 이다. 춤으로 관세음보살행하는 것이 그의 숙원이다. 그의 춤이 이어가고자 하는 정신의 핵심은 '호흡과 선' 이다.

"가을 학은 홀춤(獨舞)을 춥니다. 선이 곧고 청정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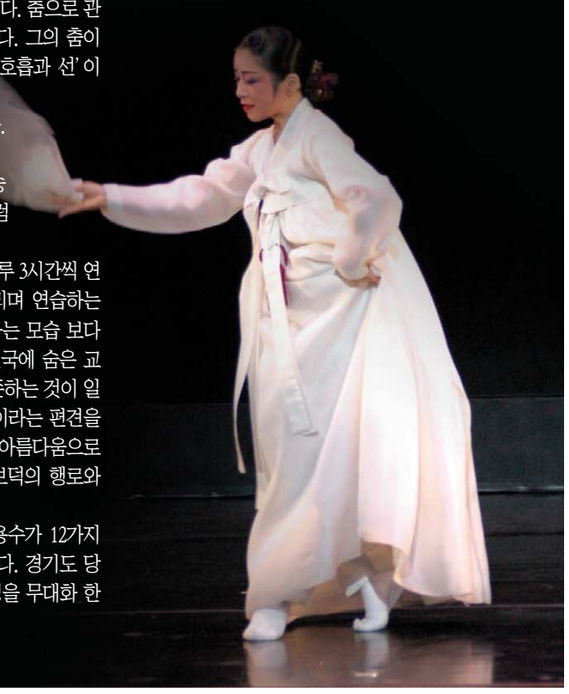
전통의 맥을 올곧게 보존 · 전승하려는 굳은 심지가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다.

후학을 양성하는 시간 외에도 하루 3시간씩 연습에 매진하는 최 교수는 "땀 흘리며 연습하는 제자들 모습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모습 보다 더 예쁘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전국에 숨은 교방 춤의 대가를 찾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이 일생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기생 춤이라는 편견을 넘어 한국 전통 춤에 담긴 가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열정이 진실한 보덕의 행로와 다름없다.

'성신의 춤 향기' 는 30인의 무용수가 12가지 레퍼토리로 전통춤의 향연을 펼친다. 경기도 당굿의 무당춤을 기본 춤사위로 신명을 무대화 한 대감놀이(훈련장 김영순), 강약의 흐름 속에서 맺고 푸는 풍경이 장엄한 살풀이춤(단무장 차성자)도 관람의 백미로 꼽는다.

오로지 한국 무용을 하는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여기는 최 교수는 공연 일정이 끊이지 않는다. 함안 · 경남에서 흥청무 보존회 순회공연(10월 9일), 진주 개천 예술제 공연(10일), 명량대첩 축하 공연(11일), 제6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13일) 등 전국의 문화 축제 곳곳에서 전통 춤의 생명력을 향기롭게 피워내는 그와 만나보자. (02)920-7412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해설이 있는 공연 김지원(무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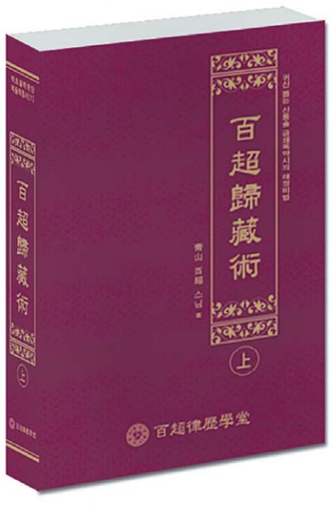
▲지전춤: 망자를 위한 무속의례 씻김굿(동해안 오구굿) 중에서 창호지를 길게 오려 만든 것을 양 손 혹은 한 손에 들고 망자의 넋을 부른다. 그 넋을 깨끗이 씻어 부정을 가시고 원과 한을 풀어 극락으로 보내는 춤이다. 음악은 삼현육각 또는 구음으로 한다.

▲승무: 이매방류의 승무는 힘과 신명이 뛰어난 춤사위다.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 호화로운 장삼놀음, 춤의 경건함을 밟아가듯 매서운 발 디딤새가 멋들어진 북 가락에 어울린다. 관객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에의 경지를 보여주는 춤이다.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고 할 만큼 품위와 격조 높은 춤으로 인정받고 있다.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강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태평무는 전래의 왕십리 당굿의 특이한 무속 장단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경쾌하고 특이한 발짓 춤에 손놀림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절도가 있다.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은 낙 궁 • 터 벌림 • 섭 채 • 올림 채 • 도살풀이 • 자진도살풀이 등으로 우리 민속 음악의 대표 가락과 장단이 고루 어우러져 있다.

▲천과 흥청무: 조선 연산군 때 여러 고을에 모아둔 운평 가운데 대궐로 뽑혀온 기생을 흥청이라 했다. 조선 권번의 마지막 춤 사범인 강옥남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최윤실(성신예술단 총 예술감독)이 정립한 춤이다.

▲진주 교방 굿거리 춤: 교방 춤은 권번 춤의 한 형태인 입춤으로 우리 춤의 기본 성격이 농후하다. 권번에서 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모든 춤의 기초로 사용됐다. 김해 권번의 명기 故 김녹주 선생의 소고 놀이를 절묘하게 합쳐 만든 춤이다.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다음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통합검색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검색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가입 ISO9001품질인증업체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80,000원
곡류 50%를 발아시킨 원주발아생식 80,000원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의 영양 원주黑선식 90,000원
한약재가 듬뿍 들어있는 명품 참생식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요구르트 1병+우유 200cc+원주청국장 1스푼+원주생식 1봉
주문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 28-3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소비자 상담실 (053)958-5921

전자 불경 및 보리수 염주 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칩을 장착하여서 음향 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세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로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 입니다.


전자불경 + 108염주 · 단주 ▷50,000원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호국불교

웃음보살 불등거사 <18>

구성 : 김흥인



곰에게 붙잡힌 노파의 꾀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노파가 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그때 곰이 와서 노파를 덥치려 하자, 노파는 큰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달아났다. 곰은 뒤를 쫓아와 한 발로 나무를 붙들고 한 발로는 노파를 잡으려 했다. 노파는 급한 나머지 나무에다 곰의 두 발을 한꺼번에 눌러 버렸다. 곰은 꼼짝하지 못했다. 마침 다른 사람이 그곳에 왔다.노파는 그에게 말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놈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자." 그는 노파의 말을 믿고 곰을 붙잡았다. 그러자 노파는 곰을 버리고 달아나고 그 사람은 결국 곰에게 곤욕을 당했다. 범부도 그와 같다. 온갖 다른 학설을 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뒷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해석하려 하나 그 뜻을 알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고생만 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남을 대신해 곰을 붙잡았다가, 도리어 스스로 해를 입은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사라쌍수 숲에서 입멸하시다
쌍림입멸(雙林入滅)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쌍림입멸(雙林入滅)편. 불암사판 1679년간행. 비단에 채색.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쿠시나가라성 사라쌍수 숲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모습과 부처님 열반을 슬퍼하는 대중들을 애절하게 표현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유교(遺敎) 말씀이 떠오른다.

유교 말씀을 간추리면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나는 법으로써 몸소 체험해 최정각을 이뤘다. 그대들 또한 마땅히 이 법 가운데 살면서 서로 물과 젖처럼 화합하고 존중해, 다투어 송사를 일으키지 말고 힘써 수행하면서 서로 등불이 되라."

부처님은 지계와 정진을 당부했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을 존중하되, 어둠속에서 벗을 만난 듯, 가난한 사람들이 보물을 얻은 듯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며, 내가 살아 있다 해도 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부디 마음속 분별과 망상과 밖의 여러가지 대상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일함을 원수와 도둑을 멀리하듯이 하여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뤘다. 마치 낙숫물이 떨어져 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정진해라.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여래의 최후 설법이니라."

이어 부처님은 "약 재료를 섞어 약을 끓이거나 점을 치고 관상을 보고 사람들 길흉을 점치거나 혹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별자리의 변화를 살펴 세상의 차고 기움을 추리하거나 역수를 추리하는 등의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교의 말씀을 받들어 불자들은 물과 젖처럼 화합하고 존중해 다투지 말고 수행하며,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어둠속에서 벗을 만난 듯이,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고, 관상을 보거나 길흉을 점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지혜로운 자는…



뽑고 또 뽑아도 뽐만 내던 풀들이
한여름 그렇게도 풀풀 했던 풀들이
겨울 문턱에서 모두다 기죽어 있다.
덤성덤성 잎을 잃어가는 나무들도
가지를 움츠리며 지난 날을 그리워한다.
아~ 삶이란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하나 하나 잃어 가는 것,
그러나 지혜로운자는
잃기 보다는 비워 가리니….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로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장 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대구공개강좌 • 2008년 10월 4일 ~ 10월 5일(토,일요일)

전생 · 빙의 · 자기최면 · 치료최면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과정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 자기최면 / 타인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을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금주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특기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보이茶 수입.도소매
직수입 통관(식약청검사)제품 취급
보이차 각 산지별 제품구비
쿤밍현지 생산시설 및 도매상 운영
보이차 수강생 매월 모집
초급반(무료) / 중급반 / 고급반
중국정부공인 차예사 자격증소지강사
보이차 전문점 왕조차문화연구원
대구소재 053)759-7718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을 돌려드립니다
- 2박 3일 체험 코스 -
비만, 스트레스, 혈압, 당뇨, 암..
각종질환으로 늘 약먹고 불편하시분,
장부 근본치유, 예방 · 자생법으로
평생 무병 건강하십시오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빙의퇴마전문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에서
퇴마스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성암 도통 합장
010-7443-3060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 합격 · 영험 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노 비구로서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제반의
식에는 지장 없음.
여법하게 사는 분으로
손길이 필요한 분
연락 요망
011-9429-578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2)227-0827

기도스님
모십니다
▷의정부 불암사
031)842-7684
011-353-7684

황토사찰에서
행자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운전기사
처사님(50전후)을
모십니다 ▷대구
053)952-4720
016-896-742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55)333-0705
010-9192-6801

원주보살님과 불교
교리를 공부하여
스님이 될 女행자를
구합니다
(수원소재 사찰)
010-9336-256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정읍 내장사
010-2926-7699

15년 이상 염불
하시고 기도를
잘 하시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10-3156-979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7-234-2326

공양주 보살님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개원사)
053)981-0995
016-400-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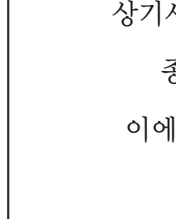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전후)
▷김천소재
054)437-07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6-638-3664

신심있는 처사님
女종무원(유경험자,
숙식가능자)
▷서울근교
010-4540-334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조계종 내원암 공양주를 구하고자 여러차례 광고를 냈으나 도시들만 선호하고 산중사원이라 오지 아니해서 여러번 낸 이유이니 40~50대 공양주를 속히 구하며 인연있는 비구니스님을 관리 운영토록하고 산승은 노승이라 쉬고자 알림
경북 054)653-1180 / 010-6353-1180

사람을 찾습니다

■ 너무 급합니다 .
· 이름 : 권민화 · 법명 : 법의 · 나이 : 1973년 36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크고 막중하여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이 되어야 수습이 됩니다 . 지금쯤은 아마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기위해 행자스님 과정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
법의스님을 보신분이나 행적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법의스님의 막내동생에게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6688-6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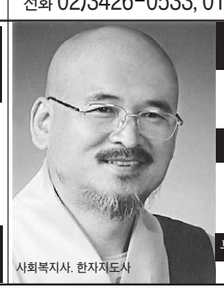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학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 환영
부설: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3426-0533,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 (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입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시인, 한글, 한문, 난매국죽

태양시집 02)736-0922
016-478-5545 / 054)262-1270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소원사
• 법 명 : 도명(정병모)
• 주 소 :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한신아파트 120-501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테이프13개와 教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근교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지장전 : 20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가평외곽
● 법당 : 30평
● 요사 : 14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사찰(중소도심)
● 대지 : 323평
● 기와법당 30평,산신각,종각 요사채,일주문,노천입불
● 신도조직 완벽
● 칠서고속도로IC 5분거리
● 가액 : 3억6천만원 (은행 1억포함)
● 위치 : 부산근교 30분 거리
● 총평수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새
● 가액 : 4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3개,주방1개,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임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010-6582-2588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 관리지역 약 1350평
(전원주택지로도 가능,분할 및 평수 조절 가능)
● 전체부지 도로접함, 정남향
● 불사건축시 최저가 책임시공 및 성실업체 알선
● 양도가 : 15만원(평당)
010-9369-6899 (주인 직접)

인도부동산 투자하실분
● 미래에 경제대국 인도에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실분
● 불교신도에 한해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몇년 지나면 기회가 없을것 같아서 광고함)
011-307-347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버스종점앞(위치좋음)
● 건평 23평(시설최고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 아미타불/지장보살/관음보살
051)638-1134

포교원 안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강남구 논현역 2번출구 50m
● 평수 : 15평, 4층건물중 4층 (옥상사용)
● 보증금(시설비포함) : 1750만원, 월 50만원
● 유동인구많은 최고요지 몸만들어오시면 즉시 포교가능
011-358-4252

사찰및 요양원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국도에서 200m. 도로는 포장 되있음
①평수 : 임야 관리지역 18,479평
농림지역 38,294평
총 56,773평
● 단감나무 200주, 가건물 40평 지하수 200m
● 가액 : 5억 5천만원(급매)
②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7-570-16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포교원 및 불교문화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1호선 구일역 5분거리
● 평수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살림집 40평 (옥상 150평)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 도심포교 및 각종 불교문화 사업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억원 월120만원 시설비 1억 8천 (보시 절충)
02)853-6010
011-9405-81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군포 안양 지역
● 평수 83평. 방4, 욕실, 주방, 냉난방완비, 모든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월 13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0-6271-99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조계종 스님에 한함
● 가액 : 5억원(절충가능)
010-9677-4895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7-373-599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가장 대변 입구 2주공 앞
● 2층 건물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답사후 절충)
051)721-8359
010-4870-8359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 산신각,용왕각, 요사채(75평)
● 가액 : 3억,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중앙시장 입구 황실 예식장 뒷편
● 건평 : 50평 법당 大1, 방 2, 욕실, 거실
● 보증금 500만원/월45만원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약간(방문절충)
011-572-8426
010-2676-6426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5평, 2층
●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월25만 (시설비 별도)
010-3167-52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 동네 윗편 주용한 명당터
● 대지 209평, 전 64평
● (현)조립식주택,차량마당까지진입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6-537-6134
010-2208-4899

요양원 및 수련원최적지
● 위치 : 충주시내 10분 버스정류장앞 충주호 인근 남한강변 소나무숲언덕위치
● 대지 2462㎡. 건평 863㎡
● 가액 : 17억,국유유림1500평
● 주차장, 텃밭사용 현, 팬션 및 가든 영업중
www.pungkyoung.co.kr
011-434-72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바다가 보여 보살님들 포교하기 좋은곳
● 평수 18평
● 삼존불,지장보살,신중탱화, 소불 모셔져있음
●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7930-16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 대지 605평, 건평 130평(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요사채 30평(슬라브건물)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기와건물)
● 가액 : 2억 6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6-339-16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층건물 50평
● 삼존불외 소불 108목후불 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032)504-3467
016-339-162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의정부 시내
● 평수 : 50평,3층 건물 중 3층
● 몸만 와도 법회 가능
● 괴불 및 연 포함
● 가액 : 4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포함)
031)862-1108
017-255-1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 2층 건물 중 2층 100평(법당) 주차장 100대 주차가능
● 월세가능 보증금 5000만원/월50만원 전세 1억원
016-808-2525(주인직)
016-234-2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위치 지하철 2분거리 (평지)
● 자연녹지 300평,건축 허가필
● 하천부지 약350평,법당40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2558-7131
011-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시내 중심상가
● 대지 85평 내 단독 약 30평
● 법당 1, 방 2, 거실및주방 1, 다용도실 1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850만원
● 몸 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458-2955

촌집(기와집)안내
● 위치:안동시청에서 차로 5분
● 20년 기와집, 방3칸, 거실겸주방, 전기, 수도 되있음. 삼면이 산
● 집만 양도. 토지세는 1년에 십만원
● 가액 : 1,200만원
010-8678-49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총평수 : 560평
● 한옥 임법당(27평) 산신각 1동, 단청필 요사채 35평, 창고 겸용
● 실외 화장실1동,주차장건물1동
● 조경수 및 돌탑조성,심야보일러 교통편리,주차무한정,주위경관 좋음 청량산도립공원, 울진불령계곡 각 30분거리
● 가액 : 1억9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 이전관계로 양도함
010-8868-9407
054)673-649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신도숙소(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 가액 : 4억원
019-379-9999

토 굴 안 내
● 위치 : 마산 진주 사이
● 평수 : 총 400평 임법당1동, 요사채2동
● 가액 : 9천 8백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011-9554-56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호선 청담역 200m)
● 평수 : 60평
● 깔끔 즉시법회가능
● 가액 : 8,000만원 시설비 상의후 절충
010-3751-1347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1-4752-882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개운동 교통편리(시내 가깝고, 부산, 서울 2시간 거리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 인접
● 평수 : 100평 (건평17평, 실사용평수30평)
● 비구니스님적합,심야보일러있음
● 가격 : 9,000만원
010-9774-2969
054)536-99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바닷가 입구
● 평수 : 50평, 방4개
● 보증금 : 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천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4137-54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산시 용성
● 대지237평,텃밭665평,모두 902평
● 법당 20평정도, 요사30평 심야보일러, 동불 3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지장탱화
● 마당까지 차진입
● 양도가 : 1억 8천 5백만원
● 위치:청도군 풍각면소재지.시내중심
● 대지70평,건물40평,임법당,방3, 주방,욕실,수세식화장실,기름보일러
● 비구니스님 토굴로 적합.
● 양도가 : 6500만원 (급매물)
011-509-0124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세 수려한 태백산령 형제봉 산하
● 부지 : 약 800여평 추가매입 가능
● 법당 : 목조삼포건물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 회관 : 1층 공양간 및 황토쑥뜸방 2층 사무실
● 요사채 : 1층 스라브건물 대중이 머무는 방 4칸
● 진입로 : 넓은 사찰단독 도로와 조경 된 주차장
● 식용수 : 지하 120미터, 60미터 2곳 지하 천연수
● 가액 : 오억팔천. 꼭 하실 분만 전화 주세요
연락처 010-2970-3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오전 약수탕
● 부지 : 총 3000평 이상(종교용지, 대지 500평)
● 시설 : 대웅전 춘양목으로 5포 7포집 25평, 요사채, 산신각, 서재, 누각등, 부엌, 최고급 단청마친지 6개월, 화장실 현대적
● 환경 : 호수 위에 위치하여 경치가 좋고 풍수완벽
● 가액 : 7억(절충가능), 총 불사비 15억 들었음
017-848-3330/051)335-3127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우암산 중턱
● 대지 평수 : 60평
● 건축면적 : 1층+2층=총 80평, 리모델링 건물
● 특징 : 도심의 위치, 시내 조망권 좋음 산책로 공기좋고, 우암산물 공급되는 수도 확보
● 가액 : 2억 7천 (대출금 5천 5백포함) 조절 가능
● 현재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 도량임
● 참고사항 : 도심포교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스님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공원 등 여건 좋음, 즉시법회가능
연락처 016-401-6254

도심(빌딩속)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평수 : 110평. 법당 약 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각(원목)등
● 요사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두구동 근교
● 대지 : 680제곱미터(약 21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 30평(+요사채 20평)
● 시설 완벽, 연못, 고급나무, 야생화 등 정원최고, 교통최고
● 양도가는 답사후 결정
055)372-3555
011-831-96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1300만원
010-8504-659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②

부정관 닦아 '팔해탈' 증득해야

於後或經一坐二坐 乃至一日二日 一月二月將息 不得 不退 不失 卽於定中忽覺身心運動八觸而發者 所謂覺身痛痒冷煖輕重?滑等 當觸法時 身心安定 虛微悅豫 快樂淸淨 不可爲喩 是爲知息道根本禪定善根發相 行者或於欲界未到地中 忽然覺息出入長短 遍身毛孔皆悉虛疎 卽以心眼見身內三十六物 猶如開倉見諸麻豆等 心大驚喜 寂靜安快 是爲隨息特勝善根發相

미도지정을 얻을 경우 그 시간은 길고 짧음이 일정하지 않다. 향이 하나 다 탈 때까지 선정에 들기도 하고, 날이 샐 때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동안 선정에 들기도 한다.

선정력이 있어서 신체를 보조하고 망념으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오랜 시간 선정 속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몸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 하지만 단지 선정의 맛에 집착하여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를 받아서는 안된다.

선정 속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선정을 잃지도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홀연히 몸과 마음에 여덟 가지 감촉이 일어난다.

몸이 아픈 것을 느끼기도 하고, 온 몸에 가려움증이 일어나기도 하며, 얼음물 속으로 들어간 듯 몸이 시리기도 하고, 온 몸이 마치 불로 태우는 것 같은 열이 치솟기도 하며, 뜬 구름 같이 몸이 가뿐하기도 하고, 바위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몸이 꽉 막히고 뻣뻣해지기도 하고, 유연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오기도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덟 종류의 감촉의 경계는 선정 속에서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수행자는 여덟 가지 감촉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공부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덟 가지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구니 경계가 발현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덟 가지 감촉이 일어날 때는 선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경계라는 것을 알고 요동하지 않는다면 신심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여덟 가지 감촉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몸과 마음은 고요하고 텅 비고 투명해져 청정하고 쾌락해진다. 왜냐하면 선정의 즐거움은 일종의 뛰어난 맛이 따로 있어 세간 오욕락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수식관으로 도를 닦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미도지정의 모습은 수행인이 과거 전생에 선정 선근을 닦은 바탕에서 금생에 지관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를 근본선이라고 한다. 근본선이라고 는 것은 욕계를 뛰어넘은 색계의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말한다.

이 네 가지의 선은 비록 세간 선정이긴 하지만 모든 선정의 근본이 된다. 수행자가 미도지정 가운데서 여덟 가지 감촉의 관문을 통과하면 또 새로운 경계를 보게 된다. 그 예로는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털구멍마다 열려서 호흡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지가 되면 내 마음에 혜안이 열려 몸 안의 서른여섯 가지 물건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창고를 열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곡식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과도 같다.

서른여섯 가지 물건은 자신의 몸 안과 밖과 중간 세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몸밖에 갖춘 열두 물건은 발(髮) 모(毛) 조(爪) 치(齒) 치(胣) 누(淚) 연(涎) 타(唾) 시(屎) 뇨(尿) 구(垢) 한(汗)이다.

또 몸에 있는 열두 가지 물건은 피(皮) 부(膚) 혈(血) 육(肉) 근(筋) 맥(脈) 골(骨) 수(髓) 방(肪) 고(膏) 뇌(腦) 막(膜) 등이며, 몸 안에 함축하고 있는 열두 가지 물건은 간(肝) 담(膽) 장(腸) 위(胃) 비(脾) 신(腎) 심(心) 폐(肺) 생장(生臟) 숙장(熟臟) 적담(赤痰) 백담(白痰) 등이다.

수행자가 미도지정 가운데서 서른여섯 가지 물건을 보게 되면 환희심을 일으켜 크게 놀라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혼자 보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크게 희열을 느낀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적정하고 상쾌하고 편안해지는데 이를 두고 수식관을 따라서 특별하고 뛰어난 선근이 발현한 모습이라고 한다.

이처럼 뛰어난 선근의 모습은 사념처 등 모든 선관을 능가한다.

二不靜觀善根發相 行者若於欲界未到地定 於此定中身心虛寂 忽然見他男女身死 死已膨脹爛壞 蟲膿流出 見白骨狼籍 其心悲喜 壓患所愛 此爲九想善根發相 或於靜定之中 忽然見內身不淨 外身膨脹狼籍 自身白骨從頭至足 節節相柱 見是事已 定心安穩 警悟無常 壓患五欲 不著我人 此是背捨善根發相 或於定心中 見於內身及外身 一切飛禽走獸衣服飮食 屋舍山林 皆悉不淨 此爲大不淨善根發相

두 번째는 몸이 청정하지 못하다고 관하는 부정관(不靜觀)을 통해서 나타난 선근의 모습이다.

수행자가 욕계 미도지정에서 몸과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게 되면 홀연히 다른 남녀의 몸뚱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썩고 부서지고 벌레가 뜯어먹고 고름이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 백골이 낭자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마음이 슬픔과 희열이 일어나 평소에 탐애했던 자신의 몸과 상대방의 몸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구상선근 발상이다.

우선 구상(九相)을 설명해보자. 사람이 죽고 나면 첫 번째 시체 속에 바람이 들어가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모습이 생기고, 두 번째는 몸에 엷던 푸른색의 어혈이 생기고, 세 번째로는 사대육신이 무너지는 모습이 생기고, 네 번째로는 죽은 시체에서 피가 흘러 질펀하게 땅을 덮는 모습이 생기고, 다섯 번째는 고름이 생겨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이 생기고, 여섯 번째는 온갖 벌레가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이 생기고, 일곱 번째는 시체가 산산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생기고, 여덟 번째는 백골만이 남고, 아홉 번째는 백골마저 불에 타 없어지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다.

수행인이 고요히 앉아 선정 삼매에 들었을 때 홀연히 내적으로 몸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 보이는데 자신의 백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사지 백골이 마디마다 서로 버티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나면 홀연히 경각심이 일어나 내 몸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범부 중생은 광겁이래로 생사에 빠져드는 것이 모두가 전도된 망상 때문이라는 점이다.

제법은 본래 무상한데도 상주한다고 헤아리고, 즐겁지 않은데도 즐겁다고 헤아리고, 실재하는 아가 아닌데서 실재하는 아가 있다고 헤아리고, 청정하지 않은데서 청정하다고 헤아린다.

이와 같은 전도된 망상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 윤회를 뛰어넘지 못한다. 지금 선정가운데서 무상을 깨닫고 마음 마음이 오욕경계에 싫증을 느껴 아상과 인상을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배사(背捨)선근이 발현한 모습이다.

배사는 팔배사(八背捨)인데, 팔해탈이라고도 한다. '배'는 위배한다는 뜻이고 '사'는 버린다는 뜻이다.

이 관법을 수행한다면 무루의 지혜가 일어나 삼계 견혹 사혹을 끝까지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하는데 그것을 팔해탈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견사혹끊고 아라한과 도달할수있어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연생론(緣生論)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며 [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역시 멸한다 [此滅故彼滅]"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인연법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주의 일체 현상은 절대 독립된 존재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며, 그 모두는 상대적인 의존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존관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동시의존관계(同時依存關係)이고 또 하나는 시간대를 달리하는 이시의존관계(異時依存關係)입니다.

이시의존관계는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라고 한 의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원인이고 '저것'은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동시의존관계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도 있으며,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도 없다'라고 한 의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주체이고 '저것'은 종속입니다. 즉 인연을 주종관계에서 고찰한 것입니다.

이를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 이쪽은 원인이고 저쪽은 결과이며, 이쪽은 주체이고 저쪽은 종속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관점을 바꾸어서 말해보자면 결과는 그 결과로만 머물지 않고 다시 새로운 현상계를 일으키는 원인을 잉태하고, 그 잉태된 원인은 다시 현상계가 뿌린 새로운 잠재세력으로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엔 절대적인 존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절대적인 인과와 주종관계도 없이 일체가 동시적이고 상대적인 관계로서의 성립일 뿐입니다.

이른바 우주를 시간의 측면에서 관찰하면 헤아릴 수 없는 서로 다른 전후시간대의 동시적 인과관계이며, 공간적으로 고찰해보면 셀 수 없는 동시적 주종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만상은 중중무진하게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들이고 끝없이 인과상속을 찰나찰나 반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임시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주 자연생명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불법이 근본적으로 지향해 가는 목적지는 세간 유정들의 생사유전하는 모습과 여기에서 다시 열반으로 환멸하는 실제 모습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끝내는 정각해탈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론'의 근본주지는 일체유정들의 해탈을 목적으로 해서 수립된 정교하고 근엄한 학설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700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 평수 : 6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용왕각 각각 25평
● 종각 : 5평, 요사채:30평, 창고 및 큰방 하나 사찰내 주차장 확보
● 가액 : 13억
010-5466-7813
055)322-8595

사찰임대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1층 요사채 47평 건물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
● 가액 : 5억
011-9114-9935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포교당 전세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오곡동 공주시청 차로 7분거리
● 법당 20평, 산신각 17평, 요사채12평
● 이름있는 약수있음,정원조성좋음 차가 마당에까지들어감 산기슭에 위치하여 포교당으로 최적지
● 가액 : 1억 5천만원(전세)
011-424-325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 동네 윗편 주용한 명당터
● 대지 209평, 전 64평
● (현)조립식주택,차량마당까지진입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6-537-6134
010-2208-4899

영구적인 최고의 수행 참선 도량
● 위치 : 경북 경주
● 큰방,작은방,거실, 베란다,현대식주방,욕실 20평
● 가액 : 4000만원
● 비구니스님만 가능
010-3142-63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신천지하철역
● 건평 4층건물중 3층(4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별도 3천만원
● 시설완벽,비품 일체 양도
010-8676-710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용암사)국도에서 100m 대구에서 1시간, 진주에서 1시간, 창녕에서 25분, 부산에서 1시간 20분
● 대지 약 400평(현싯가 평당 30만원)
● 건물 : 법당(15평) 목조기와 4불상 요사채 33평 기와스라브 신축(평당300만원 소요) 석축 옹벽조경 공사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 3천만원 급매 특별활인 몽땅 1억 6천 (융자 5천만원낼수 있음)
011-9329-4241(법사)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 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대출가능)
011-9393-496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안지랑이4거리 안지랑지하철1분거리 시내 버스정류장입구,앞산아래
● 평수 : 약40평,3층 중2층전체
● 구조 : 법당,공양간,방2,세면장
● 보증금 1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355-3778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 작목면
● 바닷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 전 630평, 관리지역
● 입구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3850-8398
010-2208-48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암자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삼성가 목조 5평 허공 산신각, 자연우물 용궁상 목조,중 허공,하 거북 3탕(지하 암반수 110m있음),부속건물 5평 방1,차고1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산위에 단독있음, 도로포장 잘 되어있음,주차 30대 이상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탈종공고

● 사찰명 : 도솔선원
● 법 명 : 진법(김성찬)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279-3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유·불 회통 시도 理學·心學 출현에 결정적 작용

<19>심성론(心性論)의 불(佛)·유(儒) 회통론과 거사들(3)

불교의 중국 전래 이래 유학(儒學)은 불교의 영향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당대(唐代)의 유학은 여전히 불교와 비교할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 당대의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은 양숙(梁肅), 한유(韓愈), 이고(李翺), 류종원(柳宗元), 류우석(劉禹錫)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철저한 배불론자인 한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성론에 있어 불교의 학설을 받아들였다.

한유는 <대학(大學)>의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세(入世)'를 제창해 '출세(出世)' 지향적인 불교를 비판했다. 양숙과 이고 거사는 유학자 신분으로 모두 불교의 '출세주의'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불교의 '이굴(理屈)'에 깊이 들어와 심성론에 있어서 유불회통(儒佛會通)을 이뤘다. 류종원 · 류우석 거사는 불교적 정서로 불교의 심성론을 접수했고, '통합유불(統合儒佛)'의 도(道)를 제창한 인물들이다. 이들을 역대 불교계는 전형적인 사대부(士大夫) 거사로 평가했다.

류종원(773~819)은 자(字)가 자후(子厚)이고, 하동(河東; 현재 山西省 永濟市)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류하동(柳河東)으로도 칭한다. 어려서부터 뛰어나 문장에 능했다. 진사(進士)에 급제한지 3년 만에 남전위(藍田尉)에 올랐고, 감찰어사(監察御史),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 등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정원(貞元) 21년(805)에 류우석 거사와 함께 왕승(王丞) · 왕숙문(王淑文)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영주(永州)자사로 좌천됐다가 다시 류주(柳州)자사로 좌천돼 임지에서 50세를 못 넘기고 객사했다. 거사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문장가였고, 현존하는 작품이 600여 편이 넘는다. 후인들이 그를 모아 45권 <류하동집(柳河東集)>을 출간했다.

문집에서 거사는 스스로 "나는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했다. 불도(佛道)를 구하기를 30년. 세상에서 불교 교설에 능통한 자가 드물다고 하지만, 영릉(零陵)에서 나는 홀로 도를 얻었노라"고 말했다.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길지 않은 그의 일생동안 수많은 고승들과 교류했으며, 그를 통해 불교와 관련된 수많은 시문(詩文)을 지었다. 거사는 <송침상인남유서(送琛上人南游序)>에서 "법은 반야(般若)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경전은 <열반경(涅槃經)>보다 지극한 것이 없다. 세상의 뛰어난 사람들이 불법을 알고자 할 때 이 경론을 택하지 않는다면 어그러질 것이다"라고 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거사는 반야학설과 <열반경>을 극도로 찬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사는 당시 수많은 종파 가운데 천태종(天台宗)을 추종했다. 특히 천태종 무성(無姓) 대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무성 대사 입적 후에는 그의 비문(碑文)을 찬술했다.

거사는 불법을 공부하는 과정과 여러 고승들과의 교류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유학(儒學)이 서로 통한다고 봤다. 거사는 <송승호초서(送僧浩初序)>에서 "불교는 참으로 배척할 수 없다. 자주 <주역(周易)>과 <논어(論語)>와 합치돼 즐길만하고, 그 성정(性情)이 크므로 공자(孔子)와 다른 도(道)가 아니다.… 내가 불법에서 취한 바는 <주역>과 <논어>와 분명하게 합치돼 비록 성인(聖人)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유의 배불론이 담긴 편지를 읽고 찬술한 것으로, 배불의 불가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합유불'의 도 제창… 전형적인 사대부 거사
류종원 거사 천태종 찬탄, 류우석 거사 선종에 매료

거사는 육조 혜능 선사(慧能禪師)의 비명(碑銘)을 찬술했는데, <조계대감선사비(曹溪大鑑禪師碑)>에서 불교와 유학의 회통을 여실하게 보였다. <조계대감선사비>에서 "그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함이 있음을 삼고, 공동(空洞)으로 실질[實]을 삼았으며, 광대하고 방탕하지 않음을 귀지(歸旨)로 삼았다. 그 가르침은 시작을 성선(性善)하고, 끝도 성선으로 하며, 경작하지 않아도 본래 깨끗한 것[靜]이다. <중략> 그 설(說)을 갖춰 이제 천하에 펼치니, 무릇 선(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근본은 모두 조계(曹溪)인 것이다"라고 적었다. 여기에서 "경작하지 않아도 본래 깨끗한 것[靜]"이라는 문구는 <예기(禮記)>의 "사람이 태어나서 깨끗함[靜]은 하늘의 성품이다[人生而靜, 天之性也]"라고 하는 사상과 통하는 바가 있다. 사실상 그의 문집에 실린 거의 모든 작품들이 불교와 유학을 회통시키는 내용과 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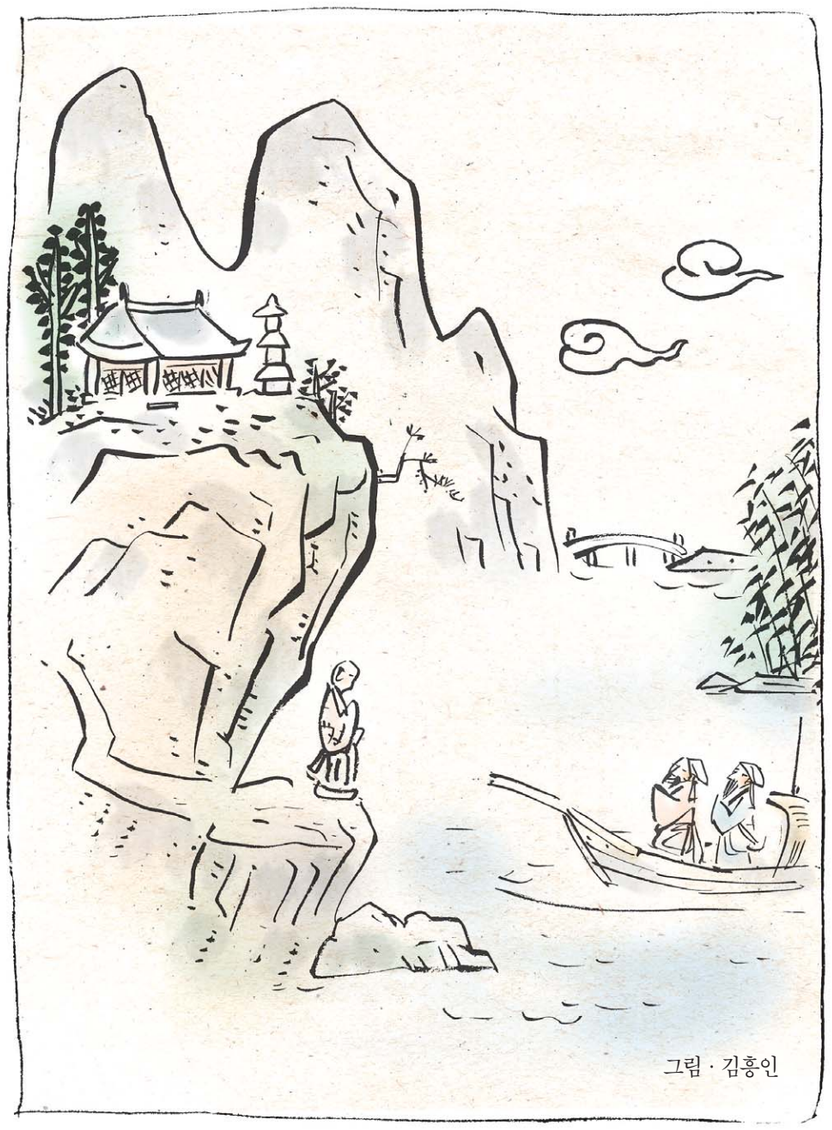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류우석(772~842) 거사는 자(字)가 몽득(夢得)으로 중산무극(中山無極; 현 河北省에 속해있음)사람이다. 거사는 류종원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세상에서 '류류지교(柳劉之交)'라는 말이 '관포지교(管鮑之交)'와 유사한 말로 유행할 정도였다. 정치적으로 류종원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년에 비교적 순탄했다. 사상에 있어 거사는 류종원과 함께 불교와 유학을 회통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거사는 류종원 거사와 다르게 선종(禪宗)에 깊이 매료돼 주로 선사(禪師)들과 자주 교류했고, 거사의 유불회통은 주로 선종의 심성론을 유학과 결합시키고자 했다.

거사는 특히 육조 혜능 선사와 하택신회(荷澤神會) 선사의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거사는 혜능-신회로 이어지는 선맥(禪脈)의 핵심적인 사상을 '돈오(頓悟)'로 파악했다. 류우석 거사는 문집에서 혜능의 사상을 평해 "한 번 돈오(頓悟)를 말하니, 초지(初地)를 밟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지'는 대승보살의 수행계위의 첫 단계로서 초지로부터 십지에 이르는 차제적 수행을 시설하는 교학에 '돈오'를 강조해 그 '수고로움[勞]'을 벗어났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거사는 혜능 선사의 '무소득(無所得)'에 대한 평가를 '얻음이 없는 얻음[無得而得]'이라 귀결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거사의 평가는 이후 선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

거사는 류종원 거사와 마찬가지로 혜능 선사 비문(碑文)을 찬술했다. 이를 흔히 '육조대감선사제2비'라고 한다. 거사는 비문에서 "부처님께서 멸한 후, 오백세(五百歲) 달마(達摩)가 법을 지니고 와 중국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니, 신 새벽에 비로소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게 됐도다"라고 찬탄했다. 이로부터 거사가 선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

거사에게는 규봉종밀(圭峯宗密) 선사에게 보내는 '송종밀상인귀남산초당사인예하남윤백시랑(送宗密上人歸南山草堂寺因詣河南尹白侍郎)'이라는 긴 제목의 시가 있다.

숙세(宿世)에 익혀 얻은 혜근(慧根),
다문제일(多聞第一)이 말을 잊고,
칠조(七祖)에서 전한 심인(心印),
삼승(三乘) 방편은 필요치 않네.
동쪽 푸른 바다에서 옛 흔적을 찾고,
서쪽 붉은 누각으로 돌아가 속세의 일을 잊네.
하남(河南) 백윤(白尹) 큰 시주(施主),
진경(眞經)을 대하여 잘 새기십시오.

이 시에서 '칠조(七祖)'는 바로 하택신회 선사를 가리킨다. 류 거사가 선종의 참다운 법맥을 '혜능-신회-종밀'로 설정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관통례(止觀統例)>의 저자인 양숙 거사는 천태종의 심성론과 유학의 심성이론을 결합시키려 노력했고, 또한 이고 거사는 유명한 <복성서(復性書)>에서 선종의 '명심견성(明心見性)'과 유학의 심성론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양숙과 이고 거사는 여전히 유학자의 입장을 견지해 불교의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류종원 거사는 그대로 불교인의 입장에서 한유의 불교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류종원과 친구였던 류우석 거사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류종원과 양숙은 천태종의 사상에 매료돼 있었고, 이고와 류우석은 선종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불교가 천태종과 선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까닭도 존재한다.

당대(唐代)에서 유학에 뛰어난 거사들은 심성론에 있어 불교와 유학을 결합시키려 시도했다. 이는 전체적인 중국사상에 있어서 중대한 사상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들이 시도한 유불회통은 송 · 명대에 이학(理學)과 심학(心學)의 출현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주돈이(周敦頤)의 '무욕고정(無慾故靜)'의 학설은 선종의 '이상(離相)' '무념(無念)'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고, 장재(張載)의 '천지지성(天地之性)' '민포물여(民胞物與)'의 사상은 불교의 '진여불성(眞如佛性)' '만법유심(萬法唯心)'과 배대할 수 있고, 심지어 표면적으로 불교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주희(朱熹)의 성리학(性理學)조차도 '겉은 유학이지만 내용은 불교[表儒內釋]'라는 평가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이들 네 거사의 작용은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부터 중국 거사불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E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조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영리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육직	서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 사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무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경 기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서 울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울 산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구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전 주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천 안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대행 스님

상대가 밉더라도 바로 내 근본에다 팽개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석존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너무 아파서 다 죽게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석존 뵙기를 원을 하니까 한번 들러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몸 좀 부축해 달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조각과 같고 꽃 이파리 하나와 같고 가을에 떨어지는 가랑잎 하나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그리고 인생은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어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네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허허, 평생 동안 형제 부모 자식에 대한 착을 모두 놓지 못하더니 결국 네 집에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에 대한 착도 놓아라. 몸도 일평생 네 집으로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또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성한 거만 먹였건만 네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란다고 해서 '재산을 버려라'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착을 떼라는 것은 '그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거다.' 하고 탁 맡겨 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그러다가도 바깥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찾아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자식을 뒀어도 나중에는 아주 효자가 되고 충성하고 아주 바르게,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고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하면서 좋은 말을 해 주고 이런다면, 밉다 곱다 이런 생각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부드럽게 "얘, 굶지나 않고 다녔니? 나가서 며칠 밤이 지났는데 어디 가서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좋게 말해 준다면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인공에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면 자식에게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럭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도 치시지 않고 좋게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을 해 준다면 금방 고쳐집니다. 밉더라도 바로 내 근본에다 팽개쳐요. 근본에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맡겨 놓고 하신다면 우리 제주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하면서 자식을 이끌어 가고 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새 빚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100% 다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고,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 마시고 '으레 그러려니…, 나도 자식 노릇을 할 때는 그랬었다.'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을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없지만 그냥 100%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너 장가들고 나서는 이렇게 나를 버리느냐.' 하고 '배신했다' 또 '예전 같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그 귀여운 자식을,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 주십시오.

어느 때에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 다섯을 낳아 놓고 부인이 그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철물점을 하게 되고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만 남편이 예쁘고 나이 어린 마누라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놔 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어려서 장가들어서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하고 무슨 애정이 있겠느냐. 그러니 애정 한번 느끼면서 살아 보겠다는데, 그것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놔 줘라. 그리고 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말해 주고 '여보 당신, 다니더라도 잘 자시고 다니시오. 어쨌든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겠지요.' 하면서 좋은 말로 해 주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보약이라도 달여서 병에다 담아서 그 집으로 보내 줘라.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되 또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고만두고, 싫다는 거 일부러 억지로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싫다 하면 만나지도 말고 그저 편안하게 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쪼끄마한 장사나마 부지런히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작은마누라가 재산을 다 거덜이 나게 했어요. 쓴 사이도 없이 그냥 거덜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마누라가 그냥 죄 긁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큰마누라네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우선 혼자 있을 동안만이라도 애들의 아버지가 돼 주세요. 나는 그저 당신을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의 아버지인 당신이 우리 가족의 하늘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이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지 않소. 나는 어쨌든 간에 말이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 하면서 "그래, 질투도 안 나오?" 이러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질투를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괴롭겠소."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그 마누라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앞서의 여자, 새로 얻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인이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보고 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3층이나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러 주면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되더라 이러거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를 하시더라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시주하는 것도 주인공에 진짜로 아주 지극 정성으로 다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시주를 해도 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깁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준 것만 생각을 하고 물건 가져온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돈 준 것만 아주 뇌리에 꼭 새겨 두니까 물건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 '그 사람 오면 돈 줘야겠다.' 하고만 있으니 물건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안되더라. 그러니 돈 내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백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동안 만나 본 병든 사람들이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스물 몇 살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참 그때는 말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려진 백 원짜리 그걸 세 개씩 갖다 놓고 그냥 가기도 하고 써 놓고 가기도 했거든요.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같습니다. 왜 삼분의 이는 그렇게 가는데 삼분의 일은 그렇게 못 갑니까? 또 그렇게 시주한 것으로, 신도님들이 밥도 못 먹을 지경이

☞26면으로 계속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알립니다.

자격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교육기간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수강일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준비물 필기도구, 녹음기

수강료 월 10만원

교육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헌스님

문의전화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buddhanews.com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세요!

☞25면에서 계속

거나 학비를 못 낸다 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여기에서도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게 되겠죠. 앞의 것을 해결치 못하고 뒤의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도 집이 지금 학비를 못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먼 데 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앞의 것부터 해 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주물이 많이 들어와도 없는 신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원의 스님들은 정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주간 법계에 있는 거니까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시주를 했어도 날 준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날 위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 주십시오

또 날 위해서 먹은 것도 없고요. 나는 하루 동안 내가 일할 만치 하면서 보리밥 한 숟가락 얻어먹고 있지요. 얻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밥 내가 먹고 있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진정코 진실히 일하고 여러분한테서 받아먹는 거니 어찌 내 밥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먹어야 내 밥이죠?

그리고 일을 해서 먹고도 정말이지 거기에서 무지하게 남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무주상 보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전 한 푼이라도 여러분한테 개갠다면 아마 저 하늘에서, 법계에서 그냥 있지 않겠지요. 내 양심, 내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니까요. 어느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뇌물을 주는데 안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받은 줄 안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죠. "여보게, 자네가 알고 내가 알잖나.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나?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의 마음들이 다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나? 내가 힘이 있으면 할 거고 힘이 없으면 못하겠지, 이런 걸 받고 한다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나." 그러고선 쫓아 버리고 자기가 알뜰히 해서,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취직을 시켰다 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항상 내 주인공과 스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믿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제사,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내 버리죠. 김삿갓도 이렇게 말을 했다죠.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는 그 집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상을 잘 차려 놓고 지내야 할 텐데 천도 좀 시켜 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김삿갓도 그랬대요. "허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과일 파는 집이며, 뭐 제물 파는 집이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요. 만약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냥 상에 차려 놓는 것만 알고 지내 준다면 영가 영령들도, 혼백도 그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알 수밖에 없어서, 그 외에는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먹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를 둘글려서 떡 하나를 놓고, 떡이라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놓고 지낸다면 그 혼백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알게 해서 그 혼백한테는 대도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후대에 그분들이 다시 손자 또 증손자로 참, 큰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상들이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얕은 소견으로 차려 놓습니다. 어떤 절에 가 보면 천도를 시키는데 사흘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렇게 차려 놓고 스님네들이 번갈아서 삼 일을 지냅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래요. 이십 대 한창 때의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창 지혜를 얻으려고 무척 애쓸 때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알았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떠억 돈을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하고는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천도는 언제 시킵니까?" 하니까 "천도는 벌써 시켰느니라. 안 시켰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거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은 천도를 시켜 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장 보러 가서 보니까, 일가족이 그냥 내쫓겨 가지곤 당장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올망졸망 데리고 거리에 나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재비를 다 줘 버리곤 그냥 설렁설렁 올라오셨는데 "스님, 제물 흥정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재사는 벌써 잘 지냈네." 이러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우주 천하를 다 가지고 계신 산 부처님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만약에 천도를 시켜서 조상들이 그 마음속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조상들도 역시 부처님이 되시니 얼마나 자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에 잘 차려 봤자 한 상이 아니라 해도 세 상밖에 더 차리리까. 이 세상을 전부 친다면 그까짓 세 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썩으면 없어질 그런 과일, 썩으면 없어질 떡, 먹고 똥 되는 그 떡. 아니, 그런 거 있어 봤던들 뭘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도시키려면 저 총무 스님한테 가서 상의드려서 해요." 그리고 총무 스님한테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받고 좀 돈 있는 사람한테는 넉넉히 받아서 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도 줘야 하고 하니까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하는 말이 "전 차리는 것보다도 스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조상한테 다 주시고 같이 한자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돈 삼백만 원을 갖다 주면서 그런 소릴 떠억 하고는 그냥 절을 하고 삥하니 달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차려서 목탁을 치면 그 사람들 보게 해 줬으니까 그걸로써 끝나는 거지만, 이건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재 지내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갔으니 정말이지 더 깊은 정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신통은 여러분 안에 재료로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에 착을 두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오신통도 벗어나고 몸뚱이도 벗어나고 우주도 벗어나서 자유자재하면서, 불바퀴를 굴리면서 여러분은 아주…. 지금 늙었어도 늙는 게 없고, 애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하하…. 또 지금 애는 늙어 갈 테니까 그렇고요.

두서없이 이런 말 하는 것 같겠지만 체계가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써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데도 체계가 없이 고정됨이 없이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 탄 거 그냥 계획도 없이 마구 써 버리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또 절에 가져온다고 생각도 없이…, 먹지도 못하면서 다 갖다 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성의를 다해서 하시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을 게 없어서 방세 뺀 것을 반을 갖다 놓고 세를 못 들었답니다. 그래도 갖다가 놓은 것만 좋아서 웃으면서 '보증금을 내고 사글세라도 들어야지.' 하고 갖다가 신문지가 둘둘 말려 있는 거를 봤답니다. '아이구, 사글세라도 들어가면 이걸로 구멍이라도 막아야지.' 하고 집어 들고선 펴 보지도 않고 가서 웃으면서 "신문지 잘 개켜서 둬라" 하고선 이렇게 펴 보니까 돈이 한 신문지 싸여 있더랍니다. 그거라면 벌충이 되고도 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쓰라고 준 거야. 이 돈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볼 때 여유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 너 갖다가 써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하고 같이 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큰 아파트를 지니고 삽니다.

또 우리 선원에 다니면서 진정으로 믿었던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인데 남편은 미쳐서 그냥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또 자기는 무거운 소금을 이고 다니다 자궁암에 걸려서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자식들을 사 남매 낳아 놓고, 자기 집도 없었죠. 방 두 개를 사글세로 들어 살면서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소금을 이고 가다가 시간이 없는데도 절에 와서 소금 한 공기를 먼저 떠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 스님! 저 자궁암 좀 낫게 해 주시고 정신없는 애들 아버지도 낫게 해 주세요. 당장 애들도 먹여야 하고 남편도 먹여야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엉치가 아파도 지금 끌고 갑니다. 하혈을 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굴은 백지장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갈 때 나는요, 마음이 찡하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궁암은 저절로 낫고 남편도 저절로 낫고, 10년 동안이나 못했던 철공 일을 하게 됐고, 그 보살은 소금 팔던 걸 놓고 김밥을 싸서 어느 회사에 넣게 됐습니다. 사람을 몇 두고선 그렇게 했는데 인제는 부자가 돼서 큰 집 사서 살고 아들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대학 졸업한 놈도 있고 대학원 나가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잘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겁니다, 네?



우리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뼈저리고 눈물 어린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던 불성, 가련한 자기 의식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믿고, 바로 현재 의식이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을 믿고…. 다 주인공이라 칭한 것이니까요. 고정됨이 없이 잘 나이고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고 거기에 다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사십시오. 앞으로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해! 당신밖에는 이렇게 즐겁게 해 줄 수 없어!' 하고선 놓고, 안될 때에도 질병 문제라면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러고, 가정 문제라면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그렇게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체가 없는 거니까요. 광명과 같고 전력과 같고 자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력과 전력이 한데 합쳐지고 부합이 되니까 바로 통신력도 생기고 거기에서 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밝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도 바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 흙에서는 흙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 붙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들어가면 천체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이나 전체가 종합돼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 놓은 것도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 얘길 했지만 여러분은 자기 마음 변치 말고,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정말이지 자기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주인공이 자기와 둘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법회 의식을 마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니저러니 말 많은 거는 모두 놓고 우리 같은 도반으로서 꼭 열심히 해 봅시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 사 말 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9월 24일(음) 대한불교진언종 종정 석암대종사의 종정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관계요로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불기 2552(08)년도 9월 30일

대한불교진언종 종 리 원 장 유 삼 합장
대한불교진언종 종정 석암대종사 문도회 합장

대한불교진언종 종정 석암대종사 49재 일정

- 제1재 : 불기2552(08)년 9. 26. 오전10시 부산 진광사
- 제2재 : 불기2552(08)년 10. 3. 오전10시 〃
- 제3재 : 불기2552(08)년 10. 10. 오전10시 〃
- 제4재 : 불기2552(08)년 10. 17. 오전10시 〃
- 제5재 : 불기2552(08)년 10. 24. 오전10시 〃
- 제6재 : 불기2552(08)년 10. 31. 오전10시 〃
- 제7재 : 불기2552(08)년 11. 7. 오전10시 경주 불국사 회향

■ 문의처 : 051)753-1504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진광사)
051)809-5789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진광사(종리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림.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 세상보기

이 광 근
동국대 식품공학과 교수

멜라민 공포와 식품안전

필자가 멜라민(melamine)이 국내식품에서 검출되어 이슈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몽골 출장 중 뉴스를 통해서였다. 몽골국립대학의 식품학 담당 교수가 급하게 중국산 분유가 몽골로 바로 수입되어 많이 팔렸다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며 필자에게 묻는 것이 아닌가! 그때서야 국내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이제 멜라민 사태가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인자들이 출몰하였다. 감자튀김류의 아크릴아마이드, 통조림의 퓨란, 분유의 사카자키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물질(異物質) 사건까지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여러 식품안전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이번 멜라민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위해인자라고 할 수 있다. 미리 말해 두자면 이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탐욕의 결정체이다. 그럼 왜 그럴까? 최근 문제시된 식품위해인자 중 이물(異物) 사건은 물리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생산자나 유통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방지할 수 있는 실수라면 HACCP의 강화로 예방할 수 있다. 사카자키균은 미생물적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의 실수나 환경적 인자로 인해 특별한 식중독균이 생장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이다. 아크릴아마이드와 퓨란은 화학적위해요소로 식품의 기호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결과물이다.

멜라민은 절대 식품원료나 첨가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화합물이다. 따라서 당연히 식품내 규제치도 없다. 공업용화합물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요소비료를 열처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주로 염료나 플라스틱 접착제로 많이 쓰인다. 이 화합물이 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에 첨가된 것은 이것이 가진 질소원소 때문이다. 멜라민은 1 분자당 6개의 질소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소함량이 높다. 중국 우유생산업체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인위적으로 물을 섞어 부피를 늘인 불량우유의 품질 합격점인 질소함량 26%를 달성하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멜라민은 절대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합물로 신장결석 등 치명적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 9월 22일까지 5만명 이상이 발병되고 그중 입원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만2800명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나 영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중국영아 4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멜라민의 독성과 섭취량에 대해선 여러 학자들이 건강한 어른의 경우 국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과자류를 어느 정도까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필자도 동의한다. 복잡한 용어와 수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주식(主食)이 아닌 이상 건강한 어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아와 어린이의 경우 식품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지나치게 싸거나 선명한 색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 피해달라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도 한 과자제품에 대한 위해도는 낮다고 할 지언즉 현재 얼마나 많은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될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의 위해도는 신중하게 평가돼야 한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필연적으로 앞으로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국내 식품생산업자들은 멜라민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수입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보다 안전한, 다시 말해 고급화된 재료를 수입하기 바란다. 식약청 담당자들은 현재 매우 바쁘고 피곤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길 필자는 바란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미 멜라민에 대한 경고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대상 식품류를 지정하고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를 했었어야한다. 이제 식품안전 이슈는 문제가 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 어디선가 식품안전의 이슈가 터졌다면 이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필자는 식약청에 당부하고 싶다. 당연히 이들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사항은 충분히 정부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社說

'아름다운 동행' 첫발을 떼다

조계종이 기부문화를 이끌어갈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을 출범시켰다. 이 재단은 그 이름에서 시사하듯 중생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체중생의 상생은 일체제불의 공생이다. 부처님께서 두두물물에 깃든 불성을 강조하셨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일체중생의 마음과 둘이 아님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혼란한 것은 탐욕과 집착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을 불태우는 탐욕과 집착이 외부의 모든 관계들로 연결되며 갈등과 불화를 낳는 것이다. 개인의 탐욕과 집착이 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사회와 국가의 이익은 국가와 민족간의 분쟁으로 이어진다. 인간 세상의 끝없는 갈등은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마음을 먼저 맑게 해야 한다. 개인이 맑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적 상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바로 옆 사람과의 소통과 동행으로부터 온 세상의 정토를 기대하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이 재단을 통해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 시키기 위해 각종 캠페인도 펼쳐 나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재단의 이 같은 행보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개인의 탐욕과 집착을 훌훌 털어버리는 대승보살의 마음을 이 재단의 사업에 동참하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출발한 '아름다운 동행'일지라도 불자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으면 '외로운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자살방지 위해 불교계가 나설 때

또 한사람의 인기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세간을 뒤흔들고 있다.

자살은 누가 뭐래도 불행한 죽음이다. 그럼에도 자살은 끊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연예인의 자살 소식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끝장'을 보는 유일한 길이라는 오해와 착각이 지나치게 만연돼 있다.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같은 병적인 증세라 할지라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자살만은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자살문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회병리로 인식된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살을 줄이는 빠른 길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자살예방 활동은 불교계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불교야말로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가르치는 종교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윤회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삶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갖는 숭고한 의미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시키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열어 주는 종교라 자부하는 불교가 더 이상 자살의 사회적 확산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각 상담센터와 복지시설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 종단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 모색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다.

"번뇌 벗으니 출옥한 느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4 마음의 짐을 내려 놓으세요

원수 같은 남편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가벼울 수가 있나요.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김씨는 신기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칠순을 넘긴 김씨는 결혼 후부터 거의 평생 남편을 미워하고 살았다.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항상 다툴 만큼 성격이 맞지 않았다. 더구나 남편은 돈을 제대로 벌어온 적이 없었다. 젊은 때는 바람이 나서 몇 년이나 소위 말하는 딴살림을 차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평생 부부라는 허울만 좋을 뿐 마음은 원망만이 가득했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 벌써 이혼했지요. 흥,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도 고마워해야지요!" 김씨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예전에는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애들 때문에 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참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도 싫었다고 한다. 각 방 쓰는 것은 물론이고 뱀처럼 싫었다.

"내 인생 이 인간 때문에 다 망친 것 같아서 항상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중년 이후부터는 완전 체념 상태였고 기대하는 것도 없었다.

육십이 넘어 김씨는 절에 다니게 됐다. 인연법을 알게 됐지만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어느 새 십년이 지나 칠십이 넘은 나이가 됐다. "나도 얼마 있으면 이생을 마감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다음 생에는 죽어도 이 사람과는 만나기가 싫었다.

고민고민하다가 스님에게 갔다. "스님, 부처님 법으로 보면 다 제 탓이고 용서해야겠지만 죽어도 안 되네요." 스님은 의외로 "그럼요, 용서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스님, 이대로 죽으면

그 안에 계신 부처님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을까봐 겁이 나요." "그게 걱정되시면 한번 제 말씀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요?" 스님은 뜻밖에도 백일동안 남편에게 날마다 삼배를 올리라는 것이었다. 펄쩍 뛰었다. "어떻게 절을 해요, 그런 인간한테." 스님은 처사가 안 볼 때 잠자고 있을 때 하면 될 거라고 했다. "보살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처사님 육신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처님께 하세요. 그 모습은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어차피 각 방을 쓰니 남편은 알 리도 없고 해서 시작했다. 밤마다 <금강경>을 읽은 후 남편이 자는 방 쪽을 향해서 삼배를 했다.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래, 스님이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부처님께 하는 거라고 하셨어"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한 달째가 되자 절할 때는 저주하던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달이 넘어가자 절할 때만큼은 미운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마주쳤는데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부처님이 문득 느껴져서 깜짝 놀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밤 그 생각을 하며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한참 울게 됐다. 백일이 지났지만 김씨는 계속 삼배를 했다. 그렇게 일 년이 넘자 이제는 밤마다 삼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김씨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밉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었다. 그

자유인이 되세요

러면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세상에 이렇게 가벼울 수가. 마치 천근같은 무거운 덩어리를 지고 있다 없어진 것 같았다. 스님은 "그거 보세요, 처사님이 아니라 보살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요. 결국 미운 마음은 보살님 것이었으니까요"하며 기뻐하였다.

평생 미워하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을 줄은 몰랐다. "이제 보니 사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두는 것인데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미워하지나 말 것을." 김씨는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고 한다. "저는 이제 칠십 중반이 됐어요. 이 나이에 주체넘긴 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평생 기다리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짐을 내려놓으라고요. 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스스로 미움의 사슬에 묶여 있었음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한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난 심정이라며 활짝 웃는 김씨를 보니 부처님 말씀이 떠오른다.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십시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붕,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서삼릉 집장은 왕릉의 품격 비하·훼손한 일제 침략의도

54 왕자 공주 공동묘지 태실집장지

어이! 왕자, 공주, 차려! 가로 세로 줄 맞춰! 거기, 후궁도 마찬가지!

서삼릉의 이름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희릉, 효릉, 예릉이 대표여서 서삼릉이라고 한다. 거기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망자의 숫자로는 최대다. 서삼릉 경역내(境域內)에는 3원(園)과 46묘(墓)에 태실(胎室) 54기(基)가 있다.

그 중 꼿꼿이 줄맞춰 서서 숙면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왕자, 공주, 후궁들이다. 24시간 사열을 받고 있다. 가로 세로 줄 맞춰 서 있다. 조금이라도 줄이 비뚤어지면 불호령이 내리는지 부동자세로 정렬해 있다. 한때는 그들도 잘 나가던 위인들이었다. 정치적 야심만 버리면 재벌2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호사를 누렸다.

공주는 중국 진 · 한나라 때 비롯된 말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부터 공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낙랑공주와 고구려의 온달에게 시집간 평강공주가 있으며, <삼국유사> '서동요'의 주인공 선화공주도 있다.

제도적으로 공주라는 호칭은 고려 문종 때의 관제에 따르면 대장공주(大長公主)와 함께 정1품이었다. 그 뒤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왕의 딸은 공주라고 불렀으나, 조선 초기까지도 제도가 미비해 왕녀 · 궁주(宮主) · 옹주(翁主) 등 여러 가지로 불려, 왕의 적실녀 외에 왕의 후궁도 공주라 칭했다. 그 후 조선에서는 왕의 정실이 낳은 딸을 '공주'라고 하고,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고 해 구별했다. 공주는 지극히 존귀한 신분으로서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이다.

공주가 혼인하게 되면 모든 절차와 준비는 종부시(宗簿侍)에서 주관해 국법에 따라 예로써 치렀다. 공주의 남편은 처음 종1품의 위(尉)인 광덕대부(廣德大夫) · 숭덕대부(崇德大夫)로 의빈(儀賓 : 駙馬都尉)에 봉작됐으며, 그에 준한 녹봉을 받았다. 의빈이 죽은 뒤에도 공주는 계속 쌀 · 콩 · 보리를 봄과 가을에 받았다.

공주의 아들은 처음 종7품, 사위는 2등급 낮은 종8품의 품계를 받고, 그에 준한 대우를 받았다. 공주는 내명부 · 외명부와 함께 궁중의 잔치, 왕비의 시위, 혼인 및 초상 등 여러 행사에 참석했다.

공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제도(喪葬制度)에 따라 염빈(斂殯) · 예장(禮葬) · 조묘(造墓)의 3도감(都監)을 설치하고 3일간 조회를 열지 않으며, 왕 이하 궁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등 정중한 예우를 표했다.

후궁은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구분된다. 간택후궁의 경우 애당초 간택대상이 양반 사대부 가문이므로, 그 친정의 신분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승은후궁의 경우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출신성분은 대다수가 천민 공노비였다. 승은궁녀가 종4품 숙원 이상의 내명부 내관(=후궁)에 오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임신과 출산이다.

비록, 후궁의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왕비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후궁소생의 자녀를 다루었고, 후궁은 자신의 소생에게 존댓말과 함께 '어머니'의 호칭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신분이었다.

왕이 죽으면 왕비는 궁궐에서 살 수 있지만 후궁은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한다. 그리고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이 없으면 후궁의 첩지는 못 받고 상궁이 된다. 이런 상궁들은 왕이 죽으면 궐 밖으로 나가 비구니가 됐다.

서삼릉 경역내에는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묘 46기(基)가 있다. 이중 회묘(懷墓)와 경선군묘(慶善君墓) 이외의 묘는 후궁과 왕자 · 공주묘로 구분돼 집장(集葬)돼 있다. 가로 세로 반듯하게 정렬한 무덤군이 보기에 참 민망하다. 국립묘지 병사들의 묘역 같다. 왕릉 경역내에는 후궁이나 왕자, 공주의 묘를 쓸 수 없다. 그런데 서삼릉에는 이렇게 많은 묘가 있다니? 사연은 이렇다.

경술국치로 조선왕조가 멸망한 1910년 11월에 일본 궁내성 소속으로 망조왕실(亡朝王室)을 관리하기 위해 이왕직(李王職)이 설치됐다. 이왕직에서는 서울, 경기 일원에 산재한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분묘를 집장관리(集葬管理)한다는 명목아래 서삼릉 경역내 현 집장지가 선정됐다. 일제 때 숙종의 후궁인 소의 유씨묘 외 15기와 세종대왕의 1녀 정소공주묘 외 18기를 천묘 집장했다.

8 · 15 광복 후에는 일제 때 옮기지 못한 후궁묘 중 묘역 주변 개발로 인해 존치가 어렵게 된 명종 후궁 경빈이씨묘 외 6기를 천묘했다. 왕자묘로서는 고종의 1남 완화군묘를 천묘했다. 그 많던 후궁, 왕자, 공주들은 어디로 갔나? 아직 서울, 경기 일원에 묻혀 있는 일부와 여기 46기가 전부다. 역사에 이름이 올려진 이들은 번듯한 유택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갑남을녀처럼 사라졌다.

비구니가 된 후궁은 화장됐을 것이고, 출가한 공주는 시댁의 선산에 묻혔다. 이름만 왕자이지 제 목소리 숨기며 살다간 왕자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들 역시 무명용사가 되어 소멸했다. 보위가 예약된 양녕대군마저 갑갑하고 살벌한 권력의 심장부가 싫어 일탈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왕실에서는 왕세자를 비롯하여 왕자, 세손,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태(胎)를 석실(石室)에 담아 전국의 길지(吉地)를 가려 봉안(奉安)하고 태봉(胎峰)이라 해 그 주변에서는 방목, 벌채, 개간을 금했다. 태실 역시 집중관리라는 미명하에 태조의 태실 등 22기와 왕자 등 32기의 태실을 1930년대를 전후해 서삼릉 경역내로 이설했다.

서삼릉 경역내 묘 및 태실의 집장은 능역 일원을 공동묘역으로 변형케 해 왕릉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비하 훼손하고자 한 일제의 의도적 책략이었다. 그래도 하나의 경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시범낙농단지를 조성했다. 경역의 대부분이 낙농방목초지로 바뀌었다. 경역은 예릉 · 희릉 구역, 효릉 구역, 후궁 · 왕자 · 공주묘, 태실집단 구역, 소경원 구역 등으로 분할되고 각 권역은 서로 통행할 수조차 없는 고립상태에 있다.

136만평에 이르던 서삼릉 능역은 1960년대 무원칙하게 골프장, 종마목장, 초지, 군부대, 대학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겨우 7만평이 남았다. 이마저 이들 시설로 인해 5만평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어수선하던 시절이라 썩둑썩둑 잘라먹는 게임자였던 모양이다.

2006년, 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계,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 등 주민 30여 명이 '서삼릉 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세미나, 전문가 의견수렴, 복원 서명운동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1차 목표는, 마사회와 농협이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43만평을 돌려받는 일이다. 이곳에 능행로를 연결하고 재실, 돌다리, 개울을 복원하고 소나무 군락지를 원형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유적은 모두의 것이다. 개인이 거기에 문패를 단들 심사가 편치 않다. 영광과 치욕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키고 축적해 나간다. 누군들 별이 되고, 꽃이 되고 싶지 않으랴. 그러나 소멸은 평등하다. 우린 그저 적멸로 향해 갈 뿐이다. 그 노정에 업보를 적게 쌓는 것이 이승의 도리일 뿐.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왕자와 공주 묘.




영월에 있는 정조대왕 태실(위), 서삼릉 왕족가족 태실.

삼국시대 전부터 '공주' 사용 … 조선시대 품계 초월한 외명부
'서삼릉 복원 추진위' 2006년 결성, 서삼릉 복원후 개방 목표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